

# 2023년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보고서

# 발 간 사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여 동중심으로 지역에 나가 일하며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잇고, 주민이 주도하는 활동을 거두고, 지역 사회와 연대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복지관의 활동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 마을, 공공이 협력하여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연대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사업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협력을 끌어내고 관계잇기를 하며 그동안 지역밀착형 복지관으로 일하며 다져온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함께한 성과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나타나 보입니다.

지난 일년간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활동해주신 이용자분, 지역 주민분, 전문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개입방법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부하며, 이용자분들을 만나고 함께 변화를 끌어내는 의미 있는 일을 직원들이 실천해왔습니다. 늘 지지와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님들, 지역내·외 후원자 여러분,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복지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지역 기반 사업들을 진행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2024년 주민들이 주도하며 소통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맺도록 도우며,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고 나아가겠습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 영 미



# contents

---

## ◆ 발간사

## ◆ 복지관 소개

면목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운영목표 p. 1

## ◆ 2023년 중점사업보고

1. 긴급지원은행 '사랑의샘터 ECB' p. 6
2. 중랑구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입 역량강화 프로그램 '목청' p. 17
3.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p. 43
4.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꿈 디자이너' p. 56
5.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 '해바라기' p. 81
6. 발달장애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상' p. 98
7.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맞춤형 가족문화활동 지원사업 '가족애재발견' p. 113
8. 아동 놀이공간 활성화사업 '열면놀이터' p. 128

## 1. 운영 방향

### 1) 미션 & 비전

#### MISSION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이룹니다.

#### VISION



### 2) 운영목표 및 실천지침



- 주민을 자주 만나겠습니다.
- 주민의 힘을 믿겠습니다.
- 묻고 듣고 의논하겠습니다.
- 지역사회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지역주민과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 시도하며 배우겠습니다.

### 3) 주요연혁

2021년 12월	취약노인 보호사업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대상 수상
2021년 3월	초등 고학년 아동놀이공간 '열면놀이터' 개소
2020년 1월 ~	면목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通)해서 행복한 노후' 실시
2015년 3월 ~ 2019년 12월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변화지원사업 실시
2014년 11월 ~ 2015년 12월	주민주도형 카페창업 지원(협동조합, 마을기업)
2010년 8월	병설 면목데이케어센터 개소
2010년 6월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명칭 변경
2008년 4월 ~ 2011년 4월	면목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2006년 3월	노인일자리사업 실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005년 3월 ~ 2009년 3월	복지도우미사업 복지형, 자립형 실시(노동부지원)
2004년 7월 ~	긴급지원은행 사랑의샘터ECB 발족
2003년 1월 ~ 2006년 12월	용마산역가족전문상담센터
2002년 7월 ~ 2004년 12월	면목사회복지관 부설 성폭력상담소
2001년 7월 ~ 2005년 6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센터)
1998년 3월 ~ 2018년 2월	방과후보육시설(하늘을 나는 교실) 운영
1996년 4월	용마폭포공원 내 경로식당 위탁운영(중랑구청)
1992년 10월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
1992년 4월	면목사회복지관 개관

### 4) 시설 및 조직 현황

가. 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면목4동 1382번지 도시개발아파트 내)

나. 규모

유형	대지	규모	건립연도
지역사회복지관	366.9 m <sup>2</sup>	1,349.4 m <sup>2</sup>	1992.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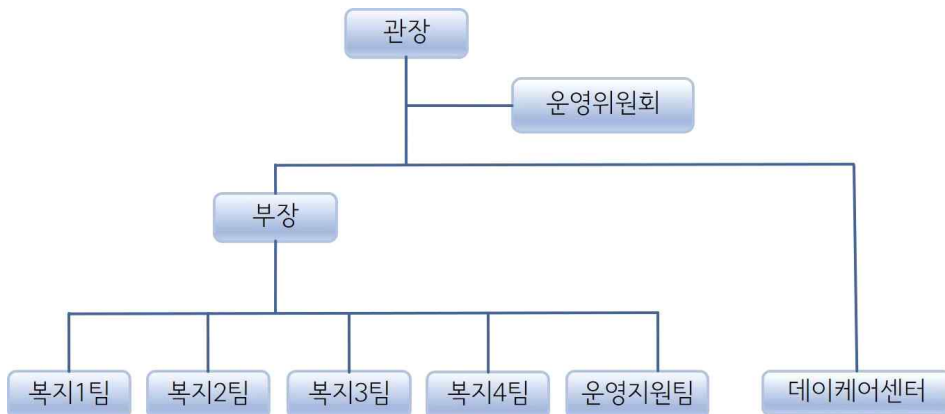
다. 층별 이용현황

층별	이용현황
1층	열면놀이터, 프로그램1,2, 자원봉사자방, 주방, 로비
2층	다기능실(경로식당), 프로그램3
3층	관장실, 사무실, 상담실1, 프로그램4,5, 아름인도서관, 로비
4층	면목데이케어센터, 기능회복실, 강당
5층	문서보관실, 옥외정원

라. 직원현황

계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					
	관장	부장	과장	팀장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안전관리	조리사	영양사	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원
57	1	1	4	1	12	24	1	1	1	1	1	1	5	1	2
57	46									11					

마. 조직도



## 5) 주요 사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긴급지원은행 '사랑의샘터 ECB'	- 사업기간 : 2004년 7월~ - 사업내용 : 중랑구 내 위기가정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생계비/주거비), 조직운영(기금마련, 이사회, 워크숍 등) - 연 예 산 : 23,500,140원
청년 자립지원사업 '목청'	- 사업기간 : 2018년~ - 지원 처 : State Street Bank - 사업내용 : 진로모색 워크숍, 개별 목표 수립, 교육비 지원, 특강, 청년 모임, 청년 워크숍 등 - 연 예 산 : 12,658,800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지원 처 : State Street Bank - 사업내용 : 진로모색 워크숍, 개별 목표 수립, 교육비 지원, 특강, 청년 모임, 청년 워크숍 등 - 연 예 산 : 12,001,125원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꿈 디자이너'	- 사업기간 : 2020년~ - 지원 처 : 월드비전 - 사업내용 : 꿈 지원금 지급, 자아탐색 프로그램, 개별성장계획 수립, 비전원정대 활동, 부모교육, 보호자 자조모임 - 연 예 산 : 25,190,000원
다문화가정자녀 사회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 '해(偲-함께)바라기'	- 사업기간 : 2016년~ - 지원 처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내용 : 협력기관 네트워크, 개별 맞춤형 지원(학습지원, 심리상담, 사례관리서비스), 가족기능강화, 부모활동, 자녀활동, 가족활동 등 - 연 예 산 : 40,013,085원
발달장애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상'	- 사업기간 : 2007년~ - 지원 처 : State Street Bank - 사업내용 : 직업기초능력 훈련, 직무훈련, 부모 및 실무자 교육, 부모모임, 진로탐색, 직업집중훈련, 직업훈련 - 연 예 산 : 12,658,800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가족애재발견'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 처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 사업내용 : 협력기관 네트워크, 가족문화활동, 의사소통교육, 전문심리상담, 상담 및 연계지원, 가족 마을활동 - 연 예 산 : 8,180,000원
아동 놀이공간 활성화 사업 '열면 놀이터'	- 사업기간 : 2020년~ - 사업내용 : 놀이 공간 운영, 지역사회 연계 공간개방, 지역사회 홍보활동, 놀이 프로그램, 방학 배움터, 자치 소모임, 팝업 놀이이벤트 외 - 연 예 산 : 2,168,080원

# 2023년 중점사업보고서



◆ 사 업 명 : 긴급지원은행 '사랑의샘터 ECB'



복지3팀 강예정 대리

목 적	긴급위기가정의 위기상황 경감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민간후원조직 활성화	
사업기간	사 업 비	지 원 처
2023년 1월 ~ 12월	23,500,140원	사랑의샘터 ECB

1.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의 필요성

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민간 긴급기금

2010년대 들어 정부는 복지체감도 증대를 위한 개편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완전 개통,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동주민센터의 취약계층발굴 및 고립가구지원사업 등으로 공공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복지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안전망 내 지원만 더욱 확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우리 사회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의 공공지원은 여전히 소득 기준에 따른 엄격한 선정기준을 취하고 있어 본 사업은 지원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 중랑구 소외계층 특성에 따른 복지지원 필요

2022년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18.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낮으며, 2023년 총 수급자 현황 또한 19,240가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자살사망자 수는 86명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10위권 안에 들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열린데이터광장). 중랑구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더욱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민간후원단체

사랑의샘터 ECB는 지역 내 틈새계층 및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후원단체이다. 이웃사랑과 나눔을 위한 정기후원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기금배분과 체계적인 이사회 운영을 꾀하고 있다. 또한 기존 회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후원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ECB의 취지와 선한 행보를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삶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 라. 경험적 근거

2004년 발족당시 300만명이 넘는 실질적인 빈곤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가족동반자살, 가족 해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특히 중랑구 지역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2004년 당시 10,577명)외에도 차상위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시달리고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랑구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각 계층의 인사들이 모여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004년 7월 '사랑의샘터 ECB'가 발족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사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후원자 개발 캠페인과 모금행사를 통해 회원개발과 후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436,889,985원을 모금하였고, 심사회의를 거쳐 중랑구 내 취약계층에 생계비, 주거비, 보철치과치료비로 340명에게 342,131,152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6년에는 긴급지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좀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긴급지원액 상향조정 및 의료비(보철치과치료비)지원 신설을 통해 위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오운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제20회 우정선행상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상금 3천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도 후원금 및 모금행사를 통해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하여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신규회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서울시 인구 수 / 중랑구 인구 수	9,682,126*/391,110*
위기대상	중랑구 인구 수 / 수급 및 저소득 인구 수	391,110/27,154*
표적대상	중랑구 인구 수 / 긴급지원 추천된 인원 수	391,110*/25
클라이언트수	ECB 회원 수 / 긴급지원 선정된 인원 수	21/15

\* 2022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긴급한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 에 적절한 지원 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 지역 내 사업홍보	연 4회	지역 내 사업홍보 및 기금마련
	■ 모금행사	연 1회	
	■ 후원자 개발을 통한 ECB 회원가입	연 25건	
	■ 긴급지원 심사회의	12회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 가정 발굴 및 극복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월 1회	
	■ 회계감사	연 1회	이사회 활성화 및 결속 력 강화
	■ 정기총회: 사업보고, 계획	연 1회	
	■ 봉사활동	연 1회	
	■ 워크숍: 이사회 응집력 강화	연 1회	
	■ 정기이사회: 안건논의, 지원보고	연 5회	
■ 임원모임, 친목모임	수시		
■ 나눔현판 게시	수시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 목표	프로그램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지역 내 사업홍보 및 기금마련	사업홍보	- 유관기관, 지역상점, 주민 등 사업 홍보 및 접근성 강화	2월, 5월, 10월	이사회, 강예정 대리	-	3회
	모금행사	- 카카오톡이가치 온라인모금행사 를 통한 사업홍보 및 기금마련	-	이사회, 강예정 대리	-	-
	후원자개발	- 이사회 정기후원자 수시 개발 - 업체 및 단체 통한 개발	연 3회	이사회	4명	6회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및 극복	심사회의 /지원	- 사례추천, 추천 담당자 발표, 선정논의, 지원(15명)	매주	심사위원 5명, 김영미 관장, 강예정 대리	21명	8회
	사후관리	- 지원 후 변화사항, 이용자 현황 결과보고	매일	강예정 대리	15명	8회
이사회 활성화 및 결속력 강화	회계감사	- 사업, 회계, 자치회 감사	1월	총무, 감사, 이지희 we'r	2명	1회
	정기총회	- 사업경과보고, 사업계획	2월	이사회, 김영미 관장, 김영례 부장, 강예정 대리	16명	1회
	봉사활동	- 경로식당 배식봉사	6월		10명	1회
	워크숍	- 단합, 조직발전방향 모색	11월		5명	1회
	정기이사회	- ECB 사업 주요안건 논의, 실적 및 지원결과 보고	격월		69명	5회
	임원모임	- 긴급안건 및 주요사항 논의	수시		15명	2회
	나눔현판 게시	- 현판게시를 통한 ECB 이사회 소속감 증대	수시		-	-
회원관리	- 지속적 기금확보를 위한 개별 관리	수시	21명		2회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시기
지역 내 사업홍보 및 기금마련	- 이사 별 정기후원자 개발 : 총 25명	- 후원신청현황	- 희망이음 후원자 현황점검	상/하반기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및 극복	- 15명 총 30,000천원 지원	- 결과보고	- 월별 긴급지원 결과점검	매월
이사회 활성화 및 결속력 강화	- 이사회 활동 만족도 평가 : 5점 만점 평균 4점 이상 달성	- 결과보고	- 만족도 조사	12월
	- 후원중단 회원 5명 미만	- 후원신청/해지 현황	- 희망이음, 후원자 현황점검	상/하반기

#### 다. 담당인력구성

번호	이름	직위	담당역할
1	김영미	관장	총괄 및 슈퍼비전
2	김영례	부장	슈퍼비전, 세부사업지원
3	윤석호	팀장	슈퍼비전, 세부사업지원
4	강예정	대리	사업 담당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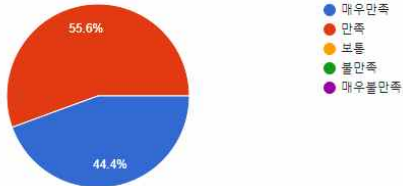
라. 사업 일정

내용/기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홍보												
심사회의 (접수 시 매주 화요일)												
회계감사												
정기총회												
봉사활동												
워크숍												
정기이사회												
임원/친목모임												

5. 프로그램 평가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지역 내 사업 홍보 및 기금 마련	- 이사 별 정기후원자 개발 : 총 25명	<p>6. 본인은 이사회의 후원자 개발을 위해 몇 번 시도하였나요? 응답 9개</p> <p>● 0회 ● 1회~2회 ● 3회 이상</p> <p>- 후원자 6명을 개발하여 목표대비 24%를 달성하였음. 이사 1명이 6명 중 3명을 개발하는 등 이사들의 전체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임. 정기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시도했는지 묻는 문항에 0회에 1명(11.1%), 1~2회 4명(44.4%), 3회 이상은 4명(44.4%)이 응답하였음. 후원자 개발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물어보았을 때 ‘적극적인 ECB홍보’, ‘지난 송년회 행사 통해 ECB를 알리고 지인초청이 좋았다.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사랑의 샘터 지원성과와 후원의 의미를 잘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 후원개발 캠페인 집중기간을 정해서 시도해 보기’, ‘후원자 개발을 많이 한 이</p>

		<p>사에게 해마다 상을 수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연말 송년모임 때 지인을 초대하여 회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이사회가 노력하였고, 회원 유치에 도움이 되었음.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내년에 가능한 부분을 시도해 보면 좋겠음.</p>																		
<p>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및 극복</p>	<p>- 15명 총 30,000천원 지원</p>	<p>- 2월~11월까지 총 21명이 긴급지원 및 보철치과치료비를 신청하였음. 선정회의를 통해 17명이 선정이 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2명이 지원취소하여 총 15명에게 22,456,380원을 지원하였음. 지원인원은 100% 목표달성 하였으나 올해 계획했던 모금활동이 진행되지 않아 기금확보가 어려웠음. 때문에 11월 보철치과치료비를 지원할 당시 남은 잔액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음.</p>																		
<p>이사회 활성화 및 결속력 강화</p>	<p>- 이사회 활동 만족도 평가 : 5점 만점 평균 4점 이상 달성</p>	<p>- 이사회 활동 만족도 조사에 총 9명이 응답하였음. 이사회 활동에 대해서 '매우 만족'에 4명(44.4%), '만족'에 5명(55.6%)이 응답하였음.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잘 받고 있고, 위기가정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p> <p>1. 2023년도 진행했던 정기이사회에 대해 만족하나요? 응답 9개</p>  <table border="1"> <caption>이사회 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caption> <thead> <tr> <th>만족도</th> <th>인원</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만족</td> <td>4명</td> <td>44.4%</td> </tr> <tr> <td>만족</td> <td>5명</td> <td>55.6%</td> </tr> <tr> <td>보통</td> <td>0명</td> <td>0%</td> </tr> <tr> <td>불만족</td> <td>0명</td> <td>0%</td> </tr> <tr> <td>매우불만족</td> <td>0명</td> <td>0%</td> </tr> </tbody> </table> <p>- ECB 이사회 활동 중에서 봉사활동(4명, 44.4%)과 문화탐방(4명, 44.4%)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응답하였음. 그 이유로 '어려운 이웃 불편한 어르신을 배려하고 도와드리는 봉사가 의미가 좋아요.', '다양한 행사와 봉사를 통해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조직의 화합과 소속감 증진', '단합'이라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음으로 송년모임(2명, 22.2%), 정기총회(2명, 22%)를 응답하였고, '함께 결산과 예산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완료하는데 협조한 것 같아서'라는 이유를 확인하였음.</p>	만족도	인원	비율	매우만족	4명	44.4%	만족	5명	55.6%	보통	0명	0%	불만족	0명	0%	매우불만족	0명	0%
만족도	인원	비율																		
매우만족	4명	44.4%																		
만족	5명	55.6%																		
보통	0명	0%																		
불만족	0명	0%																		
매우불만족	0명	0%																		

4. 2023년 ECB 이사회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사회 활동은 무엇인가요?(중복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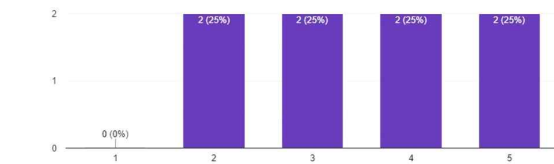
응답 9기



- 정기이사회는 10명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였지만 봉사 활동 10명, 워크숍 5명 등 이사회 활동에 전반적으로 이사 참여율이 저조했음. 하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사들은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만족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여한 이사들은 서울 근교로 문화탐방을 진행하며 새로운 사실도 알고 이사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5. ECB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단합은 어떤가요?

응답 8기



- ECB 단합력을 물어보았을 때 평균 3.5점으로 단합력이 높지 않음을 확인함. 중간에 회장의 사퇴로 지인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후원자 개발 및 이사회원 모집이 중요해졌음. '문화탐방을 겸비한 단합대회, 문화탐방과 워크숍이 필요함'등의 응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사들 간의 단합 및 결속력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내년에 이사들이 현 상황을 인지하고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활동을 진행하여 회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 활동소감으로 '적극적인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활동이 미흡하여 반성해봅니다..', '임원진 내 의견차로 힘든상황이 있었지만 현 회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20주년 되는 해 만큼 이사진과 후원회원을 보강하여 잘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등 이사회가 내년에는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후원중단 회원 5명 미만	- 1년간 후원을 중단한 회원은 총 7명임. 경제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음. - 후원유지를 위해 후원금이 의미있게 쓰임을 전달하는게 중요하겠음. 소식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겠음.
--	-----------------	---

## 나.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횟수)	평가결과
홍보	후원자 개발 - 이사별 정기후원자 수 시 개발(연 25명) - 업체 및 단체 통한 개발	- 후원자 6명을 개발하여 목표대비 24%를 달성하였고, 작년 대비 4명이 더 개발되었음. 후원개발에 참여한 이사는 총 4명이었음. 연말 송년모임 때 지인초대를 기획하여 후원자를 2명을 개발할 수 있었음. 송년모임처럼 적극적으로 지인을 초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하는 것이 후원개발자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됨.
	위기가정 발굴 - 온/오프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역신문 등)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관공서에 긴급지원 및 보철치과 치료비 안내 공문 연 3회 발송하여 위기가정을 신청할 수 있었음. 특히, 보철치과치료비 지원이 신청이 많았으며, 보철치과치료비 선정 및 지원 내용을 언론 홍보(2건)를 통해서 지역에 알릴 수 있었음.
전문인력	자문가 - 조직운영 및 사업자문	- 내년에는 발족 20주년을 맞아 ECB 사업 및 조직 운영과 앞으로 발전을 위해 자문을 받아보면 좋겠음. 자문이 어렵다면 유사한 성격의 주민조직을 찾아 기관방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음.
자원연계	기금마련 - 일시후원, 정기후원 등 후원자 개발	- 후원자 해지 및 장기 보류자 발생으로 정기후원금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정기후원자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함. - 올해 모금행사를 계획하였으나 회장과 이사회원 간에 의견 차이로 추진이 안됨. 내년에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모금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사업 안내 및 후원자 모집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 강구해야겠음.
	이사회 - 조직 내 자체자원 활용(음식점, 부동산, 직능 단체 소속인)	- 정기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운영하는 식당의 장소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이사회 구성원 뿐만 아니라 후원자 중 음식점도 활용하면 좋겠음.
	기타 - 위기가정 추천기관 확대 위한 안내문 발송	- 위기가정 발굴 증대를 위해 3월, 5월, 10월에 중랑구 내 유관기관 28곳에 사업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음. 덕분에 공적자원으로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ECB긴급지원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기관이 많았음. 추천기관 확대를 위해 기존 기관 외에도 새로운 기관을 찾아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겠음.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정기이사회는 4월에 진행하였는데 정기총회 이후 중간 공백기간이 길어 내년에는 3월에 바로 정기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li> <li>- 봉사활동은 5월의 가정의 달이 아닌 6월 경로식당 특식 지원이 적은시기에 다과를 준비해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음. 11월에 워크숍을 다녀온 날짜는 좋았으나 다른 모임과 겹치거나 바쁜 시기인 경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내년에는 상반기에 워크숍을 진행하여 이사회 활동의 애정을 갖고 참여하도록 돕고자 함. 상반기 활동의 결속력을 높여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 20주년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음.</li> </ul>
프로그램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2023년 한 해 총 5회 진행되었으며, 5회 동안 62명의 이사가 참여하였던 것에 반해, 봉사활동(10명)과 워크숍(5명)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정기이사회 이외의 이사회 활동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겠음. 이사회 활성화 및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에 워크숍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단합으로 하반기에는 20주년 기념식 및 모금활동을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사료됨.</li> <li>- 이사회를 그만두면서 신규회원발굴 및 이사회 회원 정착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음. 연말에 송년모임에 지인을 초대하여 회원발굴이 되었으며, 앞으로 도 지역 내에 함께 참여할 만한 분들에게 ECB활동을 소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사들을 독려하겠음.</li> </ul>
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직접 심사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사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이 조직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앞으로도 ECB가 지역의 주민들과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li> <li>- 매년 연 1회 이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봉사활동을 진행함. 과일줍을 직접 만들고,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배식봉사에 참여하여 등 이사들의 참여로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의미있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음. 또한 ECB사업 및 활동을 이러한 계기로 지역사회에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지속하고자 함.</li> </ul>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B후원금으로 중랑구 내 위기가정에게 긴급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왔음. 공적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지역 내 지속적인 위기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음.</li> <li>- 모금행사를 못하면서 안정적인 기금마련이 중요과제로 대두됨. 내년은 ECB 발족 20주년으로 모금활동과 기념식을 함께 계획하여 안정적인 기금마련 방법을 고안해야겠음.</li> <li>- 중간에 회장이 사임하면서 이사회원의 다수 탈퇴로 이어져 이사회 조직유지가 염려되었음. 새로운 이사회원 충원이 필요하며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내년에는 조직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음.</li> </ul>

## ■ 활동사진 자료



정기총회(안전심의)



정기총회(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정기총회(단체사진)



정기총회(식사)



긴급지원 심사회의



정기이사회

■ 활동사진 자료



봉사활동1



봉사활동2



봉사활동(공연 및 나눔)



봉사활동(배식봉사)



워크숍 문화탐방



워크숍 식사

◆ 사 업 명 : 청년 자립 지원사업 '목청: 청년 진로 가다듬기'



복지1팀 권수민 대리

목 적	진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개별 및 통합적 지원을 통해 진로 고민을 해소하고, 사회 진입 역량을 강화	
사업기간	사 업 비	지 원 처
2023년 2월 ~ 10월	12,658,800원	State Street Bank

1. 사업의 필요성

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은 주로 심리검사나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에 맞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이해'나 자아탐색의 중요성, 또는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청년들은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다.

2022년 기준, 니트(NEET) 청년은 35만 명이 넘는다. 2016년 23만 명에 비해 54%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청년층 N잡러(2개 이상 직업 종사자)는 2016년 44만 명에서 2022년 63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MZ세대(1980~2000년대생) 직장인 중 85%가 N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23%는 실제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소셜 크리에이터'(20%)로 활동하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들(17%)도 상당수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여전하다. 고물가 시대에서 고용의 질은 악화되며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일하지 않거나 격리, 혹은 고립되어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sup>1)</sup>.

1) 문가영, “그냥 쉬거나 쪼개기 알바” 코로나 풀려도 구직난 허덕이는 청년들, 매일경제, 2022.09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진로를 충분히 고민하고 찾아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공과 물질이 우선 시되는 풍조에 휩쓸려 지치고 불안하거나 무기력하기보다 나는 언제 만족하고, 어떤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상태는 무엇인지 나의 욕구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욕구는 직업(일)으로 드러난다. 일은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존재 의미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직업명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싶은지, 개인의 동기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sup>1)</sup>. 어떤 일로부터 나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인간의 행복과 자아실현, 그리고 생계유지 측면을 위해 이뤄져야 할 노동은 회피하고 싶거나 고통을 주는 문제 거리로만 생각될 수 있다.<sup>2)</sup>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청년이 진로를 탐색할 때, 취업에 앞서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바탕으로 나아갈 바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나. 저소득/고립 청년과 청년 지원 상황

한 연구<sup>3)</sup>에 따르면 니트(NEET)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학력, 가구총소득, 심리적요인이다. 저소득 가구의 청년이 스스로 설계한 계획에 따르거나 혹은 청소년기에 정한 진로에 맞춰 고학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선 대학에 가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심리적 압박감 등의 이유로 수준 낮은 대학에 진학하였고 이로 인해 열패감에 빠져 심리적 요인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을 높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빈곤과 관련해서는 구직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정책보다는 복지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의 취업 적성 찾기부터 교육, 취업 알선까지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순히 청년의 취업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단계를 수료할 때마다 지원금도 지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원활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의 근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가 46.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상담이나 직업훈련도 실제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일정 기간 수강하면 자격증을 주는 수업들로 단순히 ‘스펙 쌓기’용 교육이 많아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 과도한 구비 서류, 전공(관심사)과 취업 분야의 불일치 등에 참여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sup>4)</sup> 2021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어 지원 수당이 증가하고 취업성공금 지급에 대한 계획도

1) 힐러리코텀(2020), 래디컬헬프, 착한책가게, p164~167

2) 커리어투어(2017), 청년허브 기획연구,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연구

3) 김윤수(2022), 청년니트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4) 문수빈·윤세리, 취준생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실효성은 ‘글썸’, 머니투데이, 2016.06.27

있으나 사용자 확인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취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청년 상황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아 자립형 복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sup>1)</sup>

중랑구는 2017년 7월, 일자리경제과 내 청년지원팀을 신설한 후 2018년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네트워크 운영, 취업 특강, 일자리카페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내 한 협동조합은 위탁사업으로 청년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코로나19 이후 청년 및 종사자 네트워크가 약해졌고, 협동조합은 해산하였으며 '중랑형 청년지원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랑구 일자리센터나 기업 인사 담당자 특강 등이 눈여겨 볼만 하나, 특정 직무, 특정 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 연계 위주의 지원이라 심리적 요인이 낮거나 진로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기관에서는 저소득 취약 가정을 사례관리 하며 청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4년 간 진행하며 고립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했다. 그 경험에서 사회복지사의 개별 개입 외에 당사자 참여형의 토래집단 상호작용과,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이나 고립 등으로 진로 탐색을 하는데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토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직업의 스펙트럼을 목격하고,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다. 관계를 통한 자신감 회복

사회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은 타인에게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와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자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Machielse, 2006). 사회적 자본은 원가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인간관계(참여자, 담당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주민 등)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주거, 연애·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 수많은 포기를 경험한 청년들은 자신감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이 진로 탐색과 구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때 사회적 자본은 청년들이 다시금 도전하게 하는 바탕이며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을 되찾도록 한다. 이에 본 기관은 참여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속에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도록 하여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1) 이동수, “고용안전망” vs “총선용 퍼주기”...‘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미지수, 세계일보, 2019.06.04

## 라. 경험적 근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4명 청년들이 본 사업을 이수했다. 약 4년 동안 만난 청년들의 상황은 다양했다. 파트타임, 정규직, 프리랜서, 취업준비자 등 신분도 다양했지만 각자 진로를 고민하는 지점도 달랐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일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 등 자기 이해가 필요한 청년, 일 경험이 없거나 단기적인 청년, 부정적인 일 경험으로 지쳤거나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 '이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남보다 잘할 수 있는지' 불안하고 위축된 청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가치관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을 만나 왔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N잡러를 꿈꾸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년들은 자기 진로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전문 강사의 지도와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속적 관찰을 통해 청년 스스로 질문하고 답했고, 자기 고민을 바탕으로 교육을 듣거나 일을 하며 역량을 다졌다. 청년들은 고민하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부딪쳐볼 수 있었고, 실천을 통해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 실천하는 과정은 자기 진로를 스스로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타인의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도 되었다.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로 지원하는 것도 청년들에게 필요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자기다운 감정과 의견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를 표현했을 때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공동체의 관심, 자기 의견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분위기에서 청년들도 관계를 확장하고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더해 2022년 사업 종료 후, 청년 유관 기관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했다. '자기이해'와 '자기표현'이라는 두 범주로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계획했다. 자기 욕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자기이해), 관계 속에서 시도하고 말이나 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지원(자기표현)하고자 한다. 이때 여러 기관 및 지역에서 제공하는 청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 참여자 중 지역 청년 정보를 소개했을 때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온 경험이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 외의 삶에서도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서로 친밀하게 지내길 바라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친밀감을 위한 대화, 외부활동, 소그룹 활동을 계획하고, 이전 해에 진행한 개별 취미활동 지원보다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활동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인구	2,234,407*
위기대상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인구	86,326**
표적대상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청년 인구	55,268**
클라이언트수	표적대상 중 참여를 원하는 청년	9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2023.1)

\*\* 중랑구 연령별인구현황(2022.12.)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진로 고민이 있는 중랑구 청년들이 개별 및 통합적 지원을 통해 진로 고민을 해소하고, 사회진입 역량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이해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모색 워크숍</li> <li>- 개별 목표 수립</li> <li>- 교육비 지원</li> <li>- 특강</li> </ul> </li> </ul>	9명/8회 9명/9회 9명/9회 9명/4회	자아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T 및 종결 평가</li> <li>- 목표 점검</li> <li>- 소그룹 목표 점검</li> <li>- 청년 모임</li> </ul> </li> </ul>	9명/2회 9명/3회 9명/3회 9명/5회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 목표	프로그램	활동(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자아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진로 모색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참여자 8명</li> <li>- 방법: 전문 강사의 워크숍 진행</li> <li>- 내용: 관심사와 가치관 발견을 통한 진로 모색</li> </ul>	3월~5월	권수민 대리, 외부 강사	8명	8회
	개별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참여자 7명</li> <li>- 방법: 개별 면담</li> <li>- 내용: 진로 모색 워크숍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단기 진로 목표 수립</li> </ul>	5월	권수민 대리	7명	7회

	교육비 지원	- 대상: 개별 목표를 수립한 참여자 7명 - 방법: 비용 지원 - 내용: 참여자 실무 역량 강화 비용 지원	5월~10월	권수민 대리	7명	7회
	특강	- 대상: 참여자 7명 - 방법: 전문 강사의 강의 진행 - 내용: 콘텐츠 제작, 의견 표현법	6월, 8월	권수민 대리	7명	3회
청년 모임을 통한 자기 표현 및 지지 관계 형성	■ 자기 표현					
	OT/종결 평가	- 대상: 참여자 8명 - 방법: 내용 전달, 참여자 소통 - 내용: 사업 안내, 사업 평가	2월, 10월	권수민 대리	8명	2회
	목표 점검	- 대상: 참여자 5명 - 방법: 워크숍 - 내용: 진로 목표 공유 및 점검	7월, 9월, 10월	권수민 대리	5명	3회
	소그룹 목표 점검	- 대상: 참여자 7명 - 방법: 2그룹 점검 - 내용: 진로 목표 공유 및 점검	6월	권수민 대리	7명	1회
	청년 모임	- 대상: 참여자 8명 - 방법: 참여자 간 소통, 외부 청년과 소통 - 내용: 청년 이용 기관방문, 청년과의 만남, 참여자 간 소통	3월~9월	권수민 대리	8명	8회
	청년 워크숍	- 대상: 참여자 5명 - 방법: 참여자 계획 워크숍 - 내용: 참여자 선정 주제	8월	참여 청년, 권수민 대리	5명	1회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시기
자아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형성	- 진로개발준비 정도 향상 - 개별 목표(자가진단 척도) 수립과 실천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여부	- 진로개발준비도* 척도 - 만족도 설문지 - 프로그램 일지	- 사전사후 척도 검사 - 만족도 조사 - 담당자 평가	2~10월
청년 모임을 통한 자기 표현 및 지지 관계 형성	-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 - 청년 모임을 통한 소통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 사회적지지**척도 - 만족도 설문지 - 프로그램 일지	- 담당자 평가	

\*진로개발준비도 35개 문항

\*\*사회적 지지척도 25개 문항

#### 다. 담당인력구성

번호	이름	직위	담당역할
1	김영미	관장	총괄 및 슈퍼비전
2	김영례	부장	사업 지원 및 슈퍼비전
3	윤지영	과장	사업 지원 및 슈퍼비전
4	권수민	대리	사업 계획 및 운영

#### 라. 사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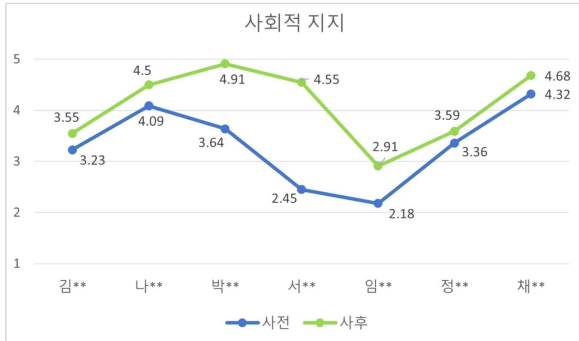
내용/기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참여자 모집												
OT 및 종결 평가												
진로 모색 워크숍												
개별 목표 수립												
교육비 지원												
특강												
목표 점검												
청년 모임												
청년 워크숍												

### 5. 프로그램 평가

####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자아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형성	- 진로개발준비 정도 향상	- 진로개발준비도를 35개 문항으로 질문함. 5점 척도로 사전 검사 점수는 전체 평균 2.9점, 사후 점수는 평균 3.8점으로 향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개별 평균 점수도 모두 상승함.

		<p style="text-align: center;">진로개발준비도</p> <table border="1"> <caption>진로개발준비도</caption> <thead> <tr> <th>참여자</th> <th>Blue Line Score</th> <th>Green Line Score</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2.89</td> <td>2.74</td> </tr> <tr> <td>나**</td> <td>4.91</td> <td>3.14</td> </tr> <tr> <td>박**</td> <td>4.14</td> <td>3.4</td> </tr> <tr> <td>서**</td> <td>3.54</td> <td>2.31</td> </tr> <tr> <td>임**</td> <td>3.34</td> <td>1.89</td> </tr> <tr> <td>정**</td> <td>3.37</td> <td>2.89</td> </tr> <tr> <td>채**</td> <td>4.09</td> <td>3.8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와 '진로 결정 확신도'에 높은 점수를 줌. 타인이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리(자기 이해)하니, 자기 확신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어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음.</li> <li>- 한 참여자는 "(사업 초반엔)나의 진로에 확신이 없었다. 불안정하고 과거에 묶어 있었다. 모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었다. 2028년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계획한 일을 빠르게 도전하고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함. 해당 참여자는 프리랜서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 경험을 하고 있음.</li> <li>- 또 다른 참여자는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무를 추천 받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불분명하니 추천 받은대로 취업을 준비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사업을 통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추천받은 직무 탐색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라고 답함.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실성이 생기자 동기 부여 받은 모습을 확인하였음.</li> </ul>	참여자	Blue Line Score	Green Line Score	김**	2.89	2.74	나**	4.91	3.14	박**	4.14	3.4	서**	3.54	2.31	임**	3.34	1.89	정**	3.37	2.89	채**	4.09	3.83
참여자	Blue Line Score	Green Line Score																								
김**	2.89	2.74																								
나**	4.91	3.14																								
박**	4.14	3.4																								
서**	3.54	2.31																								
임**	3.34	1.89																								
정**	3.37	2.89																								
채**	4.09	3.83																								
	<p>- 개별 목표(자가진단 척도) 수립과 실천 만족도 평균 4점 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 수립과 실천 만족도</p> <table border="1"> <caption>목표 수립과 실천 만족도</caption> <thead> <tr> <th>참여자</th> <th>Score</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3.8</td> </tr> <tr> <td>나**</td> <td>5</td> </tr> <tr> <td>박**</td> <td>5</td> </tr> <tr> <td>서**</td> <td>4.8</td> </tr> <tr> <td>임**</td> <td>4.1</td> </tr> <tr> <td>정**</td> <td>4.1</td> </tr> <tr> <td>채**</td> <td>4.7</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 항목으로 질문함. 평균 만족도는 4.5점으로 5점 척도로 진행함. 문항은 '자기 이해', '진로 계획', '진로 실천', '표현과 지지'로 네 개 분야임. 항목 중 특히 참여자들은 본 사업이 '자기 이해', '진로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평균 만족도가 4점임을 확인함.</li> </ul>	참여자	Score	김**	3.8	나**	5	박**	5	서**	4.8	임**	4.1	정**	4.1	채**	4.7								
참여자	Score																									
김**	3.8																									
나**	5																									
박**	5																									
서**	4.8																									
임**	4.1																									
정**	4.1																									
채**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참여자는 '나는 불안감과 공존하는 프로N잡러가 되고 싶다', '나는 상상하고 경험한 것을 설득력있게 구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과 필요한 것을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가 되고 싶다' 등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방향을 한 줄 정리했고, 그를 이루기 위한 '진로계획'을 작성함. 실천은 매 월 자기 및 동료 점검으로 진행함.</li> <li>- 4점을 넘지 못한 한 참여자는 본 사업 참여와 일을 병행하여 계획한 내용을 실천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음. 그럼에도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실천하고 공유했으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에 대해 꾸준히 지지를 보내며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알림.</li> </ul>																								
	<p>-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참여자는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교육비를 사용하여 학원이나 강의를 수료함. 한 참여자는 강의를 듣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기 위해 모임을 계획, 진행, 평가하는 내용으로 교육비를 사용함.</li> </ul> <table border="1" data-bbox="596 801 1159 1052"> <thead> <tr> <th>참여자</th> <th>교육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 야구, 드로잉, 일본어</td> </tr> <tr> <td>나**</td> <td>- 게임 기획, E스포츠</td> </tr> <tr> <td>박**</td> <td>- 영어, 포트폴리오 정리, 동물행동학</td> </tr> <tr> <td>서**</td> <td>- 그래픽디자인</td> </tr> <tr> <td>임**</td> <td>- 글 쓰기, 글 편집</td> </tr> <tr> <td>정**</td> <td>- 글 쓰기, 작곡</td> </tr> <tr> <td>채**</td> <td>- 모임 기획과 운영</td> </tr> </tbody> </table>	참여자	교육 내용	김**	- 야구, 드로잉, 일본어	나**	- 게임 기획, E스포츠	박**	- 영어, 포트폴리오 정리, 동물행동학	서**	- 그래픽디자인	임**	- 글 쓰기, 글 편집	정**	- 글 쓰기, 작곡	채**	- 모임 기획과 운영								
참여자	교육 내용																									
김**	- 야구, 드로잉, 일본어																									
나**	- 게임 기획, E스포츠																									
박**	- 영어, 포트폴리오 정리, 동물행동학																									
서**	- 그래픽디자인																									
임**	- 글 쓰기, 글 편집																									
정**	- 글 쓰기, 작곡																									
채**	- 모임 기획과 운영																									
<p>청년 모임을 통한 자기표현 및 관계 형성</p>	<p>-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지지 수준을 22개 문항으로 질문함. 5점 척도로 사전 검사 점수는 전체 평균 3.3점, 사후 점수는 평균 4.1점으로 향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개별 평균 점수도 모두 상승함.</li> </ul>  <table border="1" data-bbox="589 1226 1166 1564"> <caption>사회적 지지 점수 변화</caption> <thead> <tr> <th>참여자</th> <th>사전</th> <th>사후</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3.23</td> <td>3.55</td> </tr> <tr> <td>나**</td> <td>4.09</td> <td>4.5</td> </tr> <tr> <td>박**</td> <td>3.64</td> <td>4.91</td> </tr> <tr> <td>서**</td> <td>2.45</td> <td>4.55</td> </tr> <tr> <td>임**</td> <td>2.18</td> <td>2.91</td> </tr> <tr> <td>정**</td> <td>3.36</td> <td>3.59</td> </tr> <tr> <td>채**</td> <td>4.32</td> <td>4.6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참여자는 사업 초반 타인과 사회에 대한 피로함을 많이 표현하였고, 사업 초반 타 참여자와 갈등이 있었으며, 진로의 방향도 반사회적인 콘텐츠에 자신의 가치관을 담은 것이었음. 하지만 진로를 찾고자 하</li> </ul>	참여자	사전	사후	김**	3.23	3.55	나**	4.09	4.5	박**	3.64	4.91	서**	2.45	4.55	임**	2.18	2.91	정**	3.36	3.59	채**	4.32	4.68
참여자	사전	사후																								
김**	3.23	3.55																								
나**	4.09	4.5																								
박**	3.64	4.91																								
서**	2.45	4.55																								
임**	2.18	2.91																								
정**	3.36	3.59																								
채**	4.32	4.68																								

		<p>는 마음으로 모인 또래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누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반사회성'에 담긴 이유를 탐색하게 됨. '다른 사람을 탓하기 보다는 내 선택에 의미를 뒤야겠다.'고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겠다'며 자기를 이해했을 뿐 아니라, '반사회성'의 의미를 '자신만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정리하며 진로를 구체화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자신의 진로에 타인과의 피드백을 포함(예술가로 혼자 작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디자이너, UI/UX 직무 지향)하거나, 사업 참여자에게 받는 지지 관계의 영향을 자신이 원하고 있으며 유익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음.</li> </ul>																
	<p>- 청년 모임을 통한 소통 만족도 4점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만족도는 5개 문항으로 질문함. 본 사업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안전한 환경이었는지, 지지적인 느낌을 받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5점 척도임. 평균 4.9점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확인함.</li> </ul> <div data-bbox="583 826 1166 1168" data-label="Figure"> <table border="1"> <caption>소통 만족도 (안전한 환경, 지지관계 등)</caption> <thead> <tr> <th>참여자</th> <th>만족도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5</td> </tr> <tr> <td>나**</td> <td>5</td> </tr> <tr> <td>박**</td> <td>5</td> </tr> <tr> <td>서**</td> <td>5</td> </tr> <tr> <td>임**</td> <td>4.8</td> </tr> <tr> <td>정**</td> <td>4.6</td> </tr> <tr> <td>채**</td> <td>5</td> </tr> </tbody>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참여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만족도 분야임. 참여자들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 실천, 계획을 안전하게 자주 말할 수 있도록 참여자 역할 부여, 규칙 설정, 의견 표현을 돕는 강의, 활동지에 먼저 적고 발표, 소그룹 모임 등 다양한 기회를 준비함. 이를 통해 지지감과 즐거움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음.</li> <li>- 글쓰기에 관심있는 한 참여자는 사업 초반, 다른 참여자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주길 원하지 않았음. 하지만 자기 이해 과정과 지지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글을 보여주기 어려워했던 이유를 밝히고 이후 글의 전문을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li> </ul>	참여자	만족도 점수	김**	5	나**	5	박**	5	서**	5	임**	4.8	정**	4.6	채**	5
참여자	만족도 점수																	
김**	5																	
나**	5																	
박**	5																	
서**	5																	
임**	4.8																	
정**	4.6																	
채**	5																	

나. 개별 대상자 변화 질적 평가

이름	질적 변화 내용																																
	<p>참여 전</p> <p>(1) 신청 당시 일 경험과 시도한 것: 신청 당시 무직으로 직장 생활 경험이 없었음. 장기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국가 지원으로 영상 편집 학원에 다니고 있었음.</p> <p>(2) 진로 고민과 참여 동기: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고 학원 다니는 중이었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 했고, 특히 또래와 진로 탐색 과정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음.</p> <p>(3) 개입 방향: 직업 선택 시 필요한 자기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시험 준비 기간이 길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또래 집단 소통을 통해 활력과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p>																																
김**	<p>목표와 실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모색워크숍을 통해 해외 야구와 애니메이션(명료한 내용과 단순한 그림체)에 대한 관심을 정리함. 이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지만, 애니메이션 외 야구를 전달할 수 있는 <b>다른 방법(직업)을 탐색해 보고, 관심사를 구체화</b>하고(어떤 부분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 정리한 진로 방향을 <b>타인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b>하는 과정이 참여자에게 의미 있었음.</li> </ul> <table border="1" data-bbox="436 871 1167 1132"> <thead> <tr> <th>목표</th> <th>실천 목표</th> <th colspan="3">자기 평가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나는 재미있게 전달하는 야구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td> <td>1. 직장에 적응하여 성과 내기</td> <td>6월*</td> <td>7월</td> <td>9월</td> </tr> <tr> <td></td> <td>-</td> <td>2</td> <td>4</td> </tr> <tr> <td>2. 주 3회 이상 퇴근 후 애니메이션/일본어 강의 수강</td> <td>6월*</td> <td>7월</td> <td>9월</td> </tr> <tr> <td></td> <td></td> <td>-</td> <td>8</td> <td>2</td> </tr> <tr> <td>3. 야구 보며 캐릭터 구상 및 애니메이션 배울 점 찾기</td> <td>6월</td> <td>7월</td> <td>9월</td> </tr> <tr> <td></td> <td></td> <td>5</td> <td>2</td> <td>2</td> </tr> </tbody> </table> <p>*목표 설정 후 취업으로 기존 목표 평가가 어려워 점수 미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목표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구상하기/주변 재직자에게 조언 구하기/배우고 싶은 강의 찾기였음. 당시 영상편집 학원을 다니는 중이라 배운 내용으로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가 필요하다 생각했으나, 더 기술을 익힌 후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고 싶어했고, 편집이 아닌 드로잉 영상에 관심이 있어 기술을 새로 익히기로 함. <b>관심 강의를 찾아 수강 시작했으며 지인에게 관련 업계 정보를 묻고 정리하기도 함.</b></li> <li>- 7~9월 <b>드로잉, 일본어 강의 꾸준히 수강함.</b> “어렵지만 재밌어서 순식간에 교재를 풀었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배움에 재미를 느끼며 실천 인증을 활발히 함. 하지만 퇴근 후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채로 수강하여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표현함.</li> <li>- 상반기에 교육 관련 영업직으로 취직함. 원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소득을 얻고자 선택함. 첫 직장인만큼 부담이 컸으나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컸고, 목청 모임에서도 업무 스트레스를 표현함. 참여자들이 얘기를 듣고 각자의 위로와 조언을 건넸고 <b>힘든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회기마다 도운 것이 의미 있음.</b> 본인이 정한 기간까지 노력한 후 퇴사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이후 담당자도 취업 위주 정보를 전달함.</li> </ul>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재미있게 전달하는 야구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	1. 직장에 적응하여 성과 내기	6월*	7월	9월		-	2	4	2. 주 3회 이상 퇴근 후 애니메이션/일본어 강의 수강	6월*	7월	9월			-	8	2	3. 야구 보며 캐릭터 구상 및 애니메이션 배울 점 찾기	6월	7월	9월			5	2	2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재미있게 전달하는 야구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	1. 직장에 적응하여 성과 내기	6월*	7월	9월																													
		-	2	4																													
	2. 주 3회 이상 퇴근 후 애니메이션/일본어 강의 수강	6월*	7월	9월																													
		-	8	2																													
3. 야구 보며 캐릭터 구상 및 애니메이션 배울 점 찾기	6월	7월	9월																														
		5	2	2																													

	변화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짐. 사업 초반 '남이 시키는 것만 하며 살았다. 애매하게 살았다.'라며 자서전 제목을 &lt;나처럼 살지 마세요&gt;라고 작성함. 하지만 사업 후반부에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안 하던 일도 시작하고, 제 의견을 말할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목청에서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며 스스로도 변화를 느낌.</li> <li>- 해외 야구와 애니메이션은 기존에도 관심 있는 분야였지만, 더 확실히 좋아하게 되었고, 관련 직무를 탐색해 볼 수 있었으며, 생각만 하던 배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 변화 점임.</li> </ul>																	
	참여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 당시 일 경험과 시도한 것: 신청 당시 무직이었으나 대외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었음. 여러 대외활동, 교육, 청년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활동으로부터 수입을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직업적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웠음.</li> <li>(2) 진로 고민과 참여 동기: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직업으로 삼을만한 것은 없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고, 또래 청년과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싶어 했음.</li> <li>(3) 개입 방향: 보드게임, e스포츠,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으나 관련 대외활동 경험이나 이력 정리 없이 이력서만 제출하는 상황이었음. 다양한 관심사와 단편적인 경험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느껴졌고, 방법을 모르기보다는 동기 부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음. 자기 이해를 통해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음.</li> </ol>																	
나**	목표와 실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취업이 되어 늦거나 불참하는 때가 많았음. 진로모색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와 주로 소통했고 취업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목표를 수정함.</li> <li>- 'E스포츠 전문가'를 희망한 이유는 생생하게 현장에서 즐기고 싶어서임.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b>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함께 탐색</b>했고 기존 대외활동(홍보, 마케팅)과 연결하여 E스포츠 매니저란 직업을 발견할 수 있었음.</li> <li>- 대외활동과는 별개로 과거 게임을 주제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해보기도 함.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게임의 스토리 위주로 해설을 했던 게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함. 이후 게임 기획에 교육비를 사용하며 관련 기술을 익힘.</li> </ul> <table border="1" data-bbox="432 1255 1159 1449"> <thead> <tr> <th rowspan="2">목표</th> <th rowspan="2">실천 목표</th> <th colspan="3">자기 평가 점수</th> </tr> <tr> <th>6월</th> <th>7월*</th> <th>9월*</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E스포츠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즐기는 사람</td> <td>1. E스포츠 매니저에 대해 알아보기</td> <td>10</td> <td>-</td> <td>-</td> </tr> <tr> <td>2. E스포츠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직업 탐색</td> <td>1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 설정 후 취업으로 기존 목표 평가가 어려워 점수 미부여</p>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6월	7월*	9월*	E스포츠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즐기는 사람	1. E스포츠 매니저에 대해 알아보기	10	-	-	2. E스포츠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직업 탐색	10	-	-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6월	7월*	9월*															
E스포츠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즐기는 사람	1. E스포츠 매니저에 대해 알아보기	10	-	-															
	2. E스포츠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직업 탐색	10	-	-															
	변화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웠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목청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한 줄 정리할 수 있었고 그를 이루기 위해 과거 본인의 대외 활동과 연결 지었으며 어떤 직무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었음.</li> </ul>																	

<p>참여 전</p>	<p>(1) 신청 당시 일 경험과 시도한 것: 신청 당시 무직으로, 과거 5개월 근무 경험 있음. 하지체장애가 있어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성장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제한된 일만 했다고 함. 퇴사 후 대학원(동물행동학)에 진학함.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자 결정한 일이지만, 장애인으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함. '장애 정체성이 없을 때 결정할 일'로 여기며 후회하는 느낌이었음. 신청 당시 동물행동학과 관련된 활동은 하고 있지 않았고, 장애 커뮤니티 활동, 취미 역도를 하고 있었음.</p> <p>(2) 진로 고민과 참여 동기: 장애인식개선을 목표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장애가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되어 본 사업을 신청함.</p> <p>(3) 개입 방향: 기존 직업군에 한정 짓기보다는 참여자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가 있음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탐구하는 게 필요해 보였음.</p>																		
<p>박**</p> <p>목표와 실천 내용</p>	<p>- 자신의 뿌리(동기, 하고자 하는 일, 좋아하는 일)를 찾는 과정에 진지하게 임했고 찾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많았으며 정리하고 난 후 실천에 거침이 없었던 참여자임.</p> <p>- 진로모색워크숍을 통해 <b>'본질을 공부하고 배운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나눌 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일'에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정리함.</b>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안정감과 확신을 주었던 것 같음. 정리하고 난 후 사회적기업의 대표, 강사, 교수 등 다양한 역할을 생각하고 계획함.</p> <table border="1" data-bbox="436 865 1163 1149"> <thead> <tr> <th>목표</th> <th>실천 목표</th> <th colspan="3">자기 평가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나는 불안감과 공존하는 프로N잡러가 되고 싶다.</td> <td>1. 주 1회 이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감사일기, 심리코칭)</td> <td>6월 8</td> <td>7월 8</td> <td>9월* -</td> </tr> <tr> <td>2. N잡 준비(커뮤니티 운영, 사회적기업 구상, 롤모델찾기)</td> <td>6월 0</td> <td>7월 3</td> <td>9월* -</td> </tr> <tr> <td>3. 전공감각 유지하기 위한 공부(영어, 동물 관련 서적)</td> <td>6월 2</td> <td>7월 5</td> <td>9월* -</td> </tr> </tbody> </table> <p>*목표 설정 후 취업으로 기존 목표 평가가 어려워 점수 미부여</p> <p>- 과거 우울증이 있었는데, 진로를 구체화하며 다시 불안감이 생김. 특히 단념했던 교수라는 직업을 다시 떠올리며, 준비 기간이 긴만큼 불안도 깊어질 것이라 예상함. 이에 대해 <b>완벽주의 해소하기,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법 알기라는 목표를 세움.</b> 이를 위해 심리 강의 수강, 감사 일기 작성이란 목표를 세워 실천했고, 롤모델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워 여러 영상과 책을 익힘. 이전에 롤모델을 찾는 건 자기감, 자기비하로 이어져 꺼려왔던 일이라고 함. 하지만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진로 실천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함.</p> <p>- <b>N잡 구상</b>을 위해 청년센터에서 장애 관련 커뮤니티를 기획하여 콘텐츠를 발행했고, 전공감각 유지를 위해 동물행동학 강연 수강, 논문 읽기, 영어 공부를 했고, 내년에 있을 반려동물간호자격증을 준비함.</p> <p>- 참여자(커뮤니티 기획 모임)로 함께한 청년센터에서 N잡 준비에 대한 <b>강연을 제의받음.</b> "강연은 먼 훗날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라며 목적을 통해 목표와 진로 계획을 세우고 난 후 기회를 찾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함. "잘하고 싶은만큼 불안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공존하는</p>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불안감과 공존하는 프로N잡러가 되고 싶다.	1. 주 1회 이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감사일기, 심리코칭)	6월 8	7월 8	9월* -	2. N잡 준비(커뮤니티 운영, 사회적기업 구상, 롤모델찾기)	6월 0	7월 3	9월* -	3. 전공감각 유지하기 위한 공부(영어, 동물 관련 서적)	6월 2	7월 5	9월* -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불안감과 공존하는 프로N잡러가 되고 싶다.	1. 주 1회 이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감사일기, 심리코칭)	6월 8	7월 8	9월* -															
	2. N잡 준비(커뮤니티 운영, 사회적기업 구상, 롤모델찾기)	6월 0	7월 3	9월* -															
	3. 전공감각 유지하기 위한 공부(영어, 동물 관련 서적)	6월 2	7월 5	9월* -															

		<p>것이란 마음을 떠올리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요.”라며 불안을 다루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음. “강사 경험을 차곡차곡 모아 교수가 되고 싶어요.”, “교수가 되기 전에는 사회적기업 준비생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따라가보고 싶어요.”라며 단계에 맞게 생각하고 움직임을 알 수 있었음.</p>
	<p>변화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도전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짐. 참여 전에는 직장에서 정해진 일을 하며 한계를 느꼈던 경험이 있고 ‘명함을 주는 안정적인 직장에 가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함. 하지만 참여하고 난 후 ‘사회적기업 준비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기존 직업이 아니어도, ‘무엇’이 되지 않은 상태여도, 현재의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게 되었으며, 목청 모임에서 명함을 만들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음. “기존 것에서 선택하려면 보니 역량 발휘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추상적이고 한 가지 직업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직업이란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구나. 나를 표현하는 것이 곧 직업이구나’ 하고 생각해요”라고 표현함.</li> <li>- 묻어두었던 동물행동학 교수라는 꿈을 다시 갖게 되었고, 교수가 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알고 사회적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여러 일(콘텐츠 발행, 모임 운영, 강연)에 도전하게 됨. “사회적기업 준비생이란 말을 갖고 부터 제가 바빠진 것 같아요.”라며 웃음 짓기도 함.</li> </ul>
<p>서**</p>	<p>참여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 당시 일 경험과 시도한 것: 신청 당시 무직으로, 1년 정도 관심 분야였던 의류패턴실에서 근무 했으나 부정적인 사내 문화, 잦은 야근과 저임금 등으로 우울증을 얻고 퇴사함. 퇴사 후 국가 지원으로 웹퍼블리싱을 배웠고, UI/UX를 추천받아 배운 후 회사에 지원하기도 했으나 잘 되지 않았음.</li> <li>(2) 진로 고민과 참여 동기: 참여자는 ADHD가 있고 우울증이 있던 적도 있음. 회사 지원에 연이어 탈락하며 구직에 집중하기 어렵고 탈락 후 회복 기간도 점점 길어지게 되었음. “누가 시켜서 하는 취업 같아요. 집안의 분위기도 안전한 것을 선택하라는 분위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예요. 내가 원하는 분야가 맞나?”라며 고민하게 됨. 참여자는 부정적인 과거 경험만큼 자기 표현 욕구도 강함. ‘자유롭고 활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직업을 찾고 자신의 것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싶다고 함.</li> <li>(3) 개입 방향: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도록 자기 이해를 돕고, 그 모습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기 부여가 잘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음,</li> </ol>
	<p>목표와 실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인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예술가, 타인의 인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디자이너’라며 예술가로 살고 싶은데 (수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 비판적인 참여자였음. 진로모색워크숍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b>진짜 자기 욕구를 발견하는 작업</b>이 해당 참여자에게 주된 과업이었음. 진로모색워크숍 뿐 아니라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b>타인의 지지와 소통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됨.</b></li> <li>- 개념적인 용어(‘스타일’, ‘하위문화’ 등)들을 명확히 하며 실천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했고, 후반에는 비주얼 디자이너, 아이돌 산업 등 <b>구체적인 적</b></li> </ul>

용 분야를 찾아낼 수 있었음.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여러 컨셉을 표현하는 비주얼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1. 학원 강의 집중하기(복습, 과제, 심화과정 수강)	6월 0	7월 1	9월* 0
	2. 포트폴리오 정리/디자인 강의 수강	6월 3	7월 3	9월* 0
	3. 생각 정리법 찾기/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깨닫기	6월 2	7월 1	9월* 0

\* 9월에는 모든 목표에 0점을 줬으나 점검 모임 후 강의 수강과 포트폴리오 정리(2번 목표), 일상에서 의미찾고 SNS 작성(3번 목표)을 실천함. 참여자는 초반에는 활동지 작성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ADHD가 있는 참여자 특성이 영향인 듯함. 이후에는 담당자가 주마다 기존 목표 언급하며 점검했으나 한 가지 일을 집중하여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고, 실천 후에도 스스로의 노력을 낮게 평가함.

- '추상적인 설명보다 끝까지 완성해보라'는 피드백을 받고 포트폴리오 작업, SNS의 그림 업로드 등에 집중하기도 함. 웹프로그래밍, UI/UX, 아이돌컨셉 그래픽 등을 배웠고, 목청 내 명함 만들거나 인터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미지가 담긴 결과물을 완성하여 공유하기도 했음. 특히 포트폴리오 작업을 통해 가치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봄.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한 어려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타인을 만나며 위축된 모습, 그 틀을 깨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 자유와 반항의 가치를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어 포트폴리오로 표현하며 '끝까지 완성해 봄'.
-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깨닫기' 목표는 하반기에 추가된 목표임. 분주하게 재밌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즐거움보다는 피로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 사업 초반 진행한 자서전 작성 미션이나 취미인 팝업스토어를 방문할 때 소감을 남겨보자는 제안을 했고, SNS를 활용하며 실천함.

변화된 점

- 타인의 인정에 대한 거부 반응은, 타인의 인정이 싫은 게 아니라 자기 모습 그대로를 인정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반응임을 알게 되었음. 목청에서 참여자와의 끈끈함이나 함께 마음을 맞추며 뭔가를 이뤄가는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시켜서 하는 일', '타인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일'로 여기며 원하지 않았던 직무를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음.
-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변화한 부분임. '예술가'가 아니라 '아트디렉터'를 목표로 하게 되었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의 브랜딩도 시도함.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원하는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브랜딩을 위한 가치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브랜딩 방향을 잡으니 시각적인 구체화도 원활했다고 함.
- 구체화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는 수업 덕에 가능했다고 함.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말했던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화하며 분야 자체가 아니라 그 분야가 가진 이미지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게 됨. 그 이미지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찾아 분리하였음.

	참여 전	<p>(1) 신청 당시 일 경험과 시도한 것: 신청 당시 무직으로, 단기 일 경험 있음. 국비 지원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배운 적이 있음. 1년 간 배우고 나니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기간과 교육비가 추가됨. 기약없는 배움에 '확실히 원하는 일도 아닌데 1년을 바쳐도 괜찮을까?' 고민했고, 당시 개인사와 겹치며 번아웃이 와 그만둠.</p> <p>(2) 진로 고민과 참여 동기: 번아웃 후 은둔청년지원사업 참여했고, 작년에는 본 기관 고립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함. 작년까지 회복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밝힘. 관심 분야는 영화 리뷰 작성, 디자인, 그림, 최신 콘텐츠임. 하고 싶은 다양한 일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조직에 속할지, 제작자가 될지, 거래처가 될지 등).</p> <p>(3) 개입 방향: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힘과 의지가 느껴지는 참여자로 회복 후 새롭게 도전하는 시기에, 집중하고 싶은 분야를 정리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였음.</p>																		
임**	목표와 실천 내용	<p>- 진로모색워크숍에서 직무 검색을 통해 에디터가 특정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또한 추구하는 가치를 다양한 분야와 맥락에 활용하며 살고 있는 여러 롤모델을 보며 자신의 미래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됨. 돈이 목표가 아니라 꿈을 위해 현실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다양한 예시를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함.</p> <p>-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글쓰기 보다는 잡지 편집에 가까움을 알게 됨.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맛깔나게' 전달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전하고 싶어 했고, 작가나 에디터보다는 <b>디렉터의 성향</b>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p> <table border="1" data-bbox="436 1023 1159 1304"> <thead> <tr> <th>목표</th> <th>실천 목표</th> <th colspan="3">자기 평가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나는 상상하고 경험한 것을 설득력있게 구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td> <td>1. 편집 수업을 찾고 듣는다.</td> <td>6월 5</td> <td>7월 9</td> <td>9월 10</td> </tr> <tr> <td>2. 글 표현(쓰기) 수업을 듣는다.</td> <td>6월 4</td> <td>7월 5</td> <td>9월 10</td> </tr> <tr> <td>3. 하루 글쓰기 최소 단위 (600자 혹은 30분)를 실천한다.</td> <td>6월 6</td> <td>7월 7</td> <td>9월 9</td> </tr> </tbody> </table> <p>-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수업에 더해 편집 수업을 수강함. 책 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며 다양한 직무로 쓰임 받고, 수익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음. 특히 목청에서 만난 지역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일(글쓰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출판하기, 편집하기)을 하는 것을 보고, 먼저 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들으며 인디자이인 프로그램과 북바인딩을 배움.</p> <p>- 영화 리뷰 발행, 에세이 계정 개설, 인스타 계정 개설 등 외부에 자기 글이 노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함. 목청에서는 참여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기록, 편집, 소개해 보았고, 목청 외에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표현함(그림책, 영상 기록, 사회, 정기발행 등). 이외 목표로 한 수업들도 꾸준히 수강하고 그에 따른 과제도 성실히 수행했으며, SNS계정에도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p>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상상하고 경험한 것을 설득력있게 구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1. 편집 수업을 찾고 듣는다.	6월 5	7월 9	9월 10	2. 글 표현(쓰기) 수업을 듣는다.	6월 4	7월 5	9월 10	3. 하루 글쓰기 최소 단위 (600자 혹은 30분)를 실천한다.	6월 6	7월 7	9월 9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상상하고 경험한 것을 설득력있게 구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1. 편집 수업을 찾고 듣는다.	6월 5	7월 9	9월 10																
	2. 글 표현(쓰기) 수업을 듣는다.	6월 4	7월 5	9월 10																
	3. 하루 글쓰기 최소 단위 (600자 혹은 30분)를 실천한다.	6월 6	7월 7	9월 9																

	변화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역할을 확장하여 정의했다는 것이 변화한 점임. 글쓰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에디터에서 디렉터로 역할할 수 있음을 확 인함. 이를 통해 모호하고 다양하다 생각했던 자신의 관심사를 범주화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꾸준히 교육받고 훈련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작품을 드러냈음.</li> <li>- 융통성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좋아하는 일과 살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해지니 삶에 융통성이 생기게 됨. 좋아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 돈을 벌어도 좋아하는 일을 융통성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관련 경험을 하게 됨. 올해 글, 영상, 사회 등으로 현상을 기록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신의 방향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중 수익을 얻은 활동도 있음.</li> </ul>																		
	참여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 당시 일 경험과 시도한 것: 신청 당시 시간제로 재택 근무하고 있었음. 과거 타 직장에서 출퇴근하며 인턴으로 일했으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함. 어린시절 트라우마와 겹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택근무를 택하게 됨. 2021년부터 본 기관 고립 청년지원사업 참여하고 있음.</li> <li>(2) 진로 고민과 참여 동기: 이전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있음. 관계뿐 아니라 진로 탐색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럼에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참여하기 시작함.</li> <li>(3) 개입 방향: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고립청년사업 참여시에도 있던 생각으로, 어렵지만 용기를 내 참여하고 점차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참여자임. 본인의 고민을 표현하고 실천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또한 이전부터 관심있던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함.</li> </ol>																		
정**	목표와 실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쓰기 욕구는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과 취향을 드러냈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b>'글쓰기를 지속해도 된다는 확신,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을 얻고 싶어 함.</b></li> <li>- 이렇게 확인 받고 싶어하는 모습은 진로모색워크숍 중반까지 있었으나 후반부에 재밌었던 경험으로 악기를 연주한 일을 떠올리며 달라짐.</li> </ul> <table border="1" data-bbox="436 1222 1159 1516"> <thead> <tr> <th>목표</th> <th>실천 목표</th> <th colspan="3">자기 평가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창작자가 되고 싶다.</td> <td>1. 매일 30분씩 글쓰기</td> <td>6월 7</td> <td>7월 4</td> <td>9월 7</td> </tr> <tr> <td>2. 작곡/글쓰기 강의 수강</td> <td>6월 10</td> <td>7월 8</td> <td>9월 1</td> </tr> <tr> <td>3. 나에게 위로가 되는 작곡가, 연주곡 찾아보기/한 곡 피아노 치며 노래하기</td> <td>6월 2</td> <td>7월 5</td> <td>9월 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음악으로 즐겁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경험을 발견</b>하고 '예상치 못했지만 즐겁다' 표현했고 표정도 밝았음. 자신의 연주 영상을 공개하는 뜻밖의 모습도 볼 수 있었음. 잘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을 얻자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긍정적 마음을 표현함. 강사는 이에 대해 '돌아간 것이 아니라, 확실해진 것이다. 스스로 하고 싶어진 것'이라며 의미 부여함. 자</li> </ul>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창작자가 되고 싶다.	1. 매일 30분씩 글쓰기	6월 7	7월 4	9월 7	2. 작곡/글쓰기 강의 수강	6월 10	7월 8	9월 1	3. 나에게 위로가 되는 작곡가, 연주곡 찾아보기/한 곡 피아노 치며 노래하기	6월 2	7월 5	9월 10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창작자가 되고 싶다.	1. 매일 30분씩 글쓰기	6월 7	7월 4	9월 7																
	2. 작곡/글쓰기 강의 수강	6월 10	7월 8	9월 1																
	3. 나에게 위로가 되는 작곡가, 연주곡 찾아보기/한 곡 피아노 치며 노래하기	6월 2	7월 5	9월 10																

		<p>기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작곡, 연주 중심의 계획을 세워 교육비 사용했으나, 곡을 만들기보단 편곡하거나 재해석하는 쪽이 자신의 관심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쓰기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소설과 에세이로 나눠 진행함. 과거에는 웹소설, 게임 속 아바타로 자신의 감정을 우회하여 표현했으나 지금은 빗대기 보다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어했음. <b>소설과 에세이에 대한 흥미</b>를 표현하는 것에서 참여자의 성장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음. 자신의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고 공개해보라는 강사 피드백에 따라 개인 경험이 담긴 <b>에세이를 담당자에게 공유</b>했고, 걱정하면서도 <b>긴 분량의 소설을 참여자들에게 공유</b>함. <b>심리 치유 에세이는 강의를</b> 들으며 개인 경험을 쓰고 공유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기술을 익히기도 했음. 우울한 개인의 경험이 담긴 기록이 콘텐츠가 된 다양한 사례를 접한 것도 참여자에게 자신감을 주었음.</li> <li>- 사업에 참여하며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워 했으나,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왜?'를 고민하며 자기를 이해해 감. 계속 써오던 소설과 에세이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소설은 '나의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통합하는 내면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b>소설은 저를 치유하기 위한 작업이에요.</b>', '에세이는 <b>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b> 내 고립 경험이 고립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해요.'라며 <b>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왜 그 일이 좋은지를 깨닫는 과정을 경험</b>함.</li> </ul>
	<p>변화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표현에 익숙해지게 됨. 해당 참여자는 고립 경험이 있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함. 사업 초반에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거나 표정이 어두워 강사와 참여자들이 걱정했으나, 점차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으며 의견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기도 함. 목청에서 뿐 아니라 외부 작품 공유 동아리에도 참여함.</li> <li>- 이러한 표현의 익숙함은 자기 정체성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어짐. "누군가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직업이 아니라, 작가나 작곡가도 아니지만, '창작자'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답함.</li> <li>-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자기 이해와 표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됨. 참여 전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고 싶은데 돈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굳이 직업이 되지 않아도 나는 계속 쓰는 사람'으로 해소됨을 보게 됨.</li> </ul>
<p>채**</p>	<p>참여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 당시 일 경험과 시도한 것: 신청 당시 무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대안학교에 진학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등 주체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참여자였음.</li> <li>(2) 진로 고민과 참여 동기: 관심 분야는 주목받아야 할 사회 현상들, 모임 기획과 운영, 공간 운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는 때마다 자신이 흥미있게 느끼는 일을 사람들과 나누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음.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정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봤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이 고민되어 참여하게 됨.</li> <li>(3) 개입 방향: 본 사업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목표에 이르는 실천 단계를 설정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li> </ol>

목표와  
실천  
내용

- 관심사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만큼, 참여자는 자신의 여러 관심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어 했는데, 진로 강사는 시작하기 전에 한 문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실천하며 정립해 볼 것을 제안함.**
- 또한 시작을 방해하는 고민들(‘돈을 어디서 얻어서 시작하지?’, ‘이 정도 콘텐츠로 사람을 모집해도 되나?’)을 짚으며, 적합한 대상과 주제를 찾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대상과 주제를 찾아 볼 것을 제안함.**
-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반대로 범주화해보기도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관련 직무를 검색해보며 다양한 직업인을 보게 되었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진로가 구체화된 **여러 사례를 보며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혹은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이어짐. 또한 목청에서 만난 지역 청년이 자기 공간에서 **문화예술로 자기 관심사를 표현**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따로 방문하여 살피기도 함.
- 그럼에도 끝내 ‘한 문장’으로 분야를 정리하지 못했음. 강사는 참여자 성향상 분야가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면서 분야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을 지지했음. 시작하려면 한 분야를 선택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한 분야가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함.
- 이후 참여자는 **자신의 명함을 만들 때, 책, 글, 음악, 여행, 죽음, 사람 등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 한 분야에 특정되지 않는 자신을 표현**했고, 여러 SNS를 활용해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공개함. 목청 SNS 특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올리기 보다는 때마다 달라지는 자신의 주된 관심 분야, 모임 기획 아이디어, 모임 후기 등 **과정을 지속적으로 SNS에 업로드**하며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함.
- 교육비는 현재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인 **‘편하게 자신에 대해 글쓰기’를 주제로 사람을 모집하여 5회기로 진행**함. 이후 모임을 기록한 책자를 제작했고, 이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SNS에 아카이빙함.

목표	실천 목표	자기 평가 점수		
나는 사람들과 필요한 것을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가 되고 싶다.	1. 주 1회 이상 텍스트(책, 영화, 영상)를 접하며 아이디어를 기록한다(5~6월).	6월*	7월	9월
		6	-	-
	2. 8회차 프로그램 계획안을 완성한다(7~8월).	6월	7월*	9월
		-	8	-
3. 모임 진행하며 회차별로 기록한다(9~10월).	6월	7월	9월*	
		-	-	10

\*월별 목표 설정으로 목표당 점수 하나씩 부여함.

변화된  
점

-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불안이 덜해진 것임.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갔던 것과,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며 더 자신을 믿게 되었다고 함. 이러한 기준이 단단히 잡혀서 그 외 삶의 영역을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쉬고 놀고 일하는 것에서도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함.

마**	참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기관 사례관리(자원연계 이용자) 가정의 자녀로 지인의 가게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었으며 요식업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했음. 이에 더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단계를 탐색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음.</li> <li>- 진로모색워크숍을 통해 타인의 일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 강점(승부욕, 경쟁, 인정에 대한 동기가 큼)과 롤모델 탐색, '손님들에게 맛(요리)으로 인정받기'라는 지향점을 정리해 볼 수 있었음.</li> <li>- 프로그램 출석율이 좋지 않았음. 사업 초반에는 하고 있던 일의 스케줄을 변경할 정도로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나, 이후 여러 이유로 빠지는 때가 많았음.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불참시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이후 개별 만남을 통해 강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했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집단 프로그램으로 개입이 어렵다 판단되어 종결함.</li> </ul>
-----	------	--

#### 다.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횟수)	평가결과
홍보	<p>대상자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지역 아파트(13회)</li> <li>- 구청, 동주민센터, 청소년센터, 마을지원센터, 서울대학교(7회)</li> <li>- 스터디카페, 구립도서관(5회)</li> <li>- 용마산역(1회)</li> <li>- 중랑구 내 지역 상점(수시)</li> <li>- 기관 홍보 채널(3회)</li> <li>- 서울청년포털(1회)</li> <li>- 유관기관 SNS(1회)</li> <li>- 기관 이용자(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홍보를 통해 4명(서*희, 채*주, 나*채, 박*수)이 참여했으며, 모두 이전에도 타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음. 본 사업 진행 중에도 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기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습이었음.</li> <li>-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사례관리 이용자 중 1명(마*준), 지인 소개로 1명(김*래) 참여함.</li> <li>- 관내 고립청년지원사업 작년 참여자 중 진로 탐색에 관심있는 참여자에게 안내했고, 2명(임*하, 정*운)이 참여함. 고립감을 해소하며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본 사업 내용이 적절했고, 본 사업을 통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자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내년에도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함.</li> <li>- 작년까지는 지역 상점, 아파트 등을 통한 접수가 있었으나 올해는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접수가 적었음. 효과적인 홍보처를 찾는 것이 필요함.</li> </ul>
	<p>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및 SNS 게시(7회)</li> <li>- 참여자 인터뷰집 제작(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진행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4회), 카드뉴스(1회), 소식지(1회)와 SNS 채널(1회)에 게시하여 홍보했고, 참여 강사 및 참여자들의 SNS를 통해서 사업 진행 과정과 소감이 담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음.</li> <li>- 참여자의 진로 고민과 실천이 담긴 인터뷰집을 제작하여 참여자, 유관기관, 고립청년지원사업의 참여자에게 배부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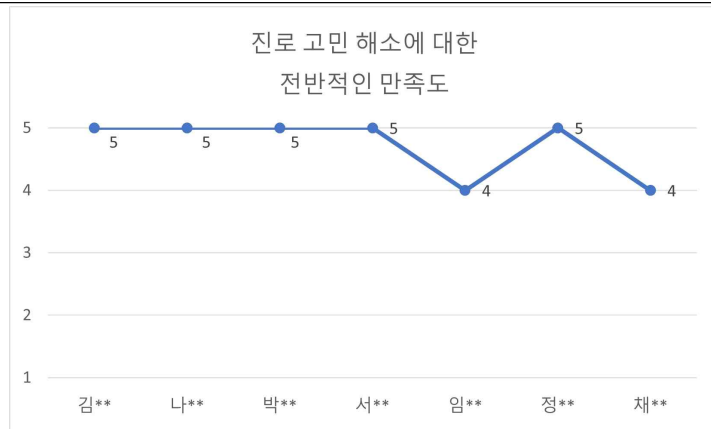
전문 인력	강사	- 강사 섭외(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탐색 강의(8회), 퍼스널브랜딩 SNS활용 강의(2회), 리더십워크숍 강의(1회)에 전문인력 섭외하여 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자기이해와 자기표현을 익힐 수 있었음.</li> <li>- 특히 진로탐색 강사는 회복탄력성 등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을 강의에서 함께 다루었고, 1:1 개별 코칭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였음.</li> <li>- 또한 SNS 강의는 '자기표현'이라는 주제를 두고 참여자들과 방식을 논의하여 인스타그램 매체를 선택하는 등 참여자 의견을 바탕으로 섭외하고 진행함.</li> </ul>
	기타 서비스	- 청년 정보 공유(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운영 청년몽땅정보통 외에 중랑구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중랑마을넷 내 참여 정보 등 정보 성격에 따라 전체 혹은 개별 안내함. 참여자들은 심리 교육, 지역 전시 방문, 지역 예술 프로그램 참여 등 자기 관심사에 맞는 활동에 참여함.</li> </ul>
자원 연계	프로 그램	- 고립청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참여자는 고립청년지원사업의 보조 활동가 '이음지기'로 참여하여 청년들의 소통을 촉진하고, 활동을 기록함. 회기마다 '이음지기 통신'으로 참여자와 활동을 공유했고, 청년동아리활동으로 그림책을 제작하여 공유했는데, 참여자의 관심사 글 쓰기와 편집이라는 관심사에 부합하여 결과물을 제작하고 피드백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됨.</li> <li>- 종결평가 '잘 살아보겠습니다'에 고립청년사업 참여자들을 초대하고, 인터뷰집을 전달하여 좋아하는 일을 쉽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도록 함. 타인 앞에서 자기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됨.</li> </ul>
	기관 방문	- 서울청년센터 광진, 럽덥(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센터 광진오랑에 방문함. 작년 말 담당자가 사업을 계획하며 방문한 곳으로, 센터가 생소한 청년에게 공간과 기관 역할(정책 연계)을 전할 수 있었음. 또한 담당 매니저의 진로 선택 과정 소개를 요청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을 소개할 수 있었음.</li> <li>- 중랑구 청년이 운영하는 공간 럽덥에 방문함. 공간 소개와 운영자의 진로 실천 과정, 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들었고, 사전 논의한 활동(질문 카드 만들기)을 운영자가 진행함. 질문 만들기는 이후 인터뷰집 제작을 염두에 두고 요청한 내용이지만, 질문을 카드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이후 참여자 '명함 제작 활동'시에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 참</li> </ul>

		<p>여자기리 진행할 수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의 삶의 방식에 공감한 한 참여자는 교육비를 럽덤에 사용하여 편집 수업을 들었고, 이후 본 사업 인터뷰집 제작시에도 협조 받을 수 있었음.</li> </ul>
청년 초청	- 목청 1기 참여자(1회)	- 참여자에게 다양한 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기 참여자를 초청함. 1기 참여자가 준비한 활동을 함께 즐기고 진로 실천 과정을 들음.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진행함. 계획 후 참여자 역동에 따라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정하여 진행했으며, 작년보다 2회 더 모임을 추가하여 진행함.</li> <li>- 해마다, 참여자마다, 효과적인 진행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참여자가 청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빠져 사업 참여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담당자와 논의 후 더 필요한 쪽으로 선택하여 오도록 안내하고 있음. 다만 참여자 역동을 고려하여 자율 모임이나 프로젝트성 모임으로 하반기 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고자 함.</li> </ul>
프로그램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상은 중랑구 거주 청년이었으나, 관내 고립청년지원사업 해당 지역인 광진, 동대문구 청년들까지 포함하여 모집하게 됨. 고립청년지원사업 참여 후 활력을 찾게 된 청년들은 진로 탐색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3개월 남짓한 사업이 끝나면 지지체계가 열어지게 되었고 마땅한 동기가 생기지 않았음. 고립청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본 프로그램의 참여대상 거주지역을 중랑구, 동대문, 광진구로 확장하여 모집했고, 2명이 연이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li> <li>- 초반 소모임(2회): 사업 초반 참여자 간 친밀함을 높이기 위해 진행함. 외부 활동을 계획했으나 거동 불편한 참여자가 있어 기관에서 1회, 인근 청년센터에서 1회 진행 후 외부 식사로 대신함. 담당자가 준비한 대화 구조 속에서 의 대화는 활발했으나 참여자 성향상 외부 식사와 같은 자리에서의 비공식적 대화는 원활하지 않았음. 이후에도 친목도모를 위해 소모임 자리를 초반에 마련하여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li> <li>- 진로모색워크숍(8회): 청년 진로 코칭에 열정이 있는 강사를 섭외함. 정해진 회기 외에도 청년들에게 개별 코칭을 하는 등 적극 코칭함. 참여자들의 진로 방향과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담당자도 강사의 코칭 방향에 맞춰 이후 모니터링할 수 있었음. 올해 청년들은 좋아하는 분야는 비교적 분명하나 좋아하는 분야를 생업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몇몇 청년은 좋아하는 일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자기 선택을 미루고 있었음. 청년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강사의 개별 코칭이 큰 도움이 되었음.</li> <li>- 목표점검워크숍(4회): 2개 조로 나누어 자율 진행하고자 했음. 참여자 간 친밀도는 올라갔으나 목표점검은 잘 되지 않았고 일정을 맞추는 일이 원활</li> </ul>

	<p>하지 않아 1회 조별 진행 후 3회 단체 진행함. 소그룹 모임을 대신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목표 실천 과정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함. 이후 사업 진행시에도 월 1회 점검 모임은 갖되, 목표를 스스로 꾸준히 점검하고 참여자 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강(3회): 인스타그램, 노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온라인에 자기 콘텐츠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참여자들이 있었음.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도, 자기 진로를 타인에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 아카이빙하고 피드백받는 과정은 실천과 표현 과정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한 퍼스널브랜딩 강의를 2회 진행함. 자기 SNS를 정돈하고 발전시키는 계기, 진로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리더십워크숍 1회 진행했으나 아쉬움이 있음. 이후에는 역동적인 분위기로 참여자들이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알아보고자 함.</li> <li>- 명함 제작 소모임(1회): 본 모임은 자기 표현 과정으로 특강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청년 공간 방문 후 참여자끼리 모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에 소모임으로 진행함. 진로 정리와 표현의 과정에서 참여자 제안으로 계획한 모임으로, 모든 참여자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담아 명함을 제작함.</li> <li>- 색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청년과의 만남(2회):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콘텐츠화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지역 청년을 초대함.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거나, 적용해볼 만한 부분이 있어 도움이 되었음. 이후에도 참여자 상황에 따라 이전 기수 참여자를 섭외해볼 수 있었음.</li> <li>- 참여자 기획 소모임(1회): 모임 기획과 운영에 관심있는 참여자가 있어 참여자 대상으로 모임 준비를 요청하여 진행함. 같은 참여자가 진행했을 때 집중도가 높고, 다른 참여자도 관심을 보여 이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역할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보고자 함.</li> <li>- 인터뷰집 제작: 글쓰기와 편집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와 참여자 인터뷰 진행함. 참여자들이 자기 진로와 실천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표현하며, 자기 진로에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됨.</li> <li>- 종결모임(1회): 제작한 인터뷰집을 발표하고, 명함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외부 청년을 초대하여 진행함. 자신의 진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였음.</li> </ul>
<p>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자기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기 진로를 직접 쓰고 실천하고 발표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함. 작년 사업 평가 때 참여자들의 자기표현 기회를 늘리고자 계획한 것처럼 올해 명함 제작, 인터뷰 참여와 기록, 종결모임 발표, 자기표현 특강 등을 준비함. 표현하고 피드백 받는 것에 참여자마다 편차가 있었으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연습해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음.</li> <li>- 참여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소모임이나 인터뷰집 기획을 담당해볼 수 있었음.</li> <li>- 지역 자원(지역 청년 소개, 지역 청년센터 방문)을 연계하여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li> </ul>
<p>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사업 참여 전의 진로 고민이 해소되었다’라는 문항으로 확인하였으며 5점 척도로 평균 4.7점을 확인하였음.</li> </ul>



-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자기 확신임. 참여자들은 취업이나 수익을 얻는 일이 아니라도 자기를 탐구하고 개발시켜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고 관련 경험과 배움을 쌓아나갔음.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고, '네가 하는 일이 맞다'고 지지해주는 전문 강사와 동료의 있었기에 자신을 믿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
- 특히 참여자들은 취업이나 경제활동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집중하며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고, 같은 참여자들이나 사업에서 만난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선례로 확인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구체화하고 안심할 수 있었음. 이후 사업에서도 참여자 개별 욕구를 집단에서 표현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계획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함께 경험하고자 함.

## ■ 활동사진 자료



오리엔테이션



소모임



역할 정하기



청년센터 방문



진로모색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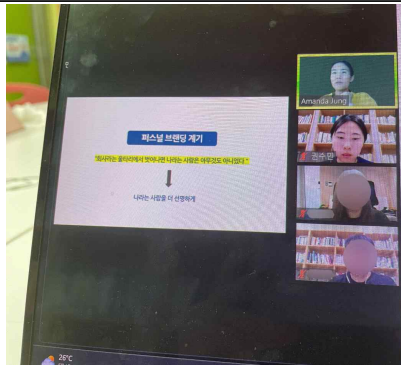
## ■ 활동사진 자료



지역 청년과의 만남(보드게임)



지역 청년과의 만남(공간운영/질문카드)



SNS활용 퍼스널브랜딩 특강



소모임(명함 만들기)



종결 평가(인터뷰집 발표)

◆ 사 업 명 :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복지1팀 권수민 대리

목 적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일상의 활력을 회복하고 고립감 해소	
사업기간	사 업 비	지 원 처
2023년 6월 ~ 12월	12,001,125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1. 사업의 필요성

가. 새로운 복지 취약 계층 고립 청년의 증가와 고립의 장기화

서울시는 2022년 12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 청년 인구의 3.3%가 고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은둔 상태 1.2%, 전체 4.5%) 이 비율을 2021년 청년 인구에 적용하여 추산하면 고립 청년은 9만 3천에서 9만 6천 명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조사<sup>1)</sup>에서는 2019년 고립 청년(서울시 만 19세~34세 청년) 비율이 3.1%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 5.0%로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2021년이 코로나 19 전과 후라고 생각한다면 팬데믹으로 인해 청년의 고립감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조사에서 고립 기간과 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외출하지 않는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는 평균 23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20대 초반과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중후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시작된 고립은 5년 이상(41.2%), 10년 이상(21.3%)으로 장기화되기도 한다.

청년들은 고립의 계기로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과 '다른 사람과 대화, 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져',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라는 이유를 꼽았는데 20대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30대는 취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

1) 김성아, 고립·은둔청년현황과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3.05

대별로 차이가 난다. 청년층의 고립과 은둔이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립된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입하는 첫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된 장년, 중년, 노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사회 진입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고립을 택하게 된다면 인간관계를 연습할 기회조차 점차 사라지며 사회와의 연결 고리가 점점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때문에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연습하고,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활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나. 청년복지 사각지대와 단계적 지원의 필요

서울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기관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에 위치하여 방문 청년에게 정책 큐레이팅, 공간 대관, 대화 모임, 중단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화 모임은 청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로 청년을 모집하고 환대하며, 정책 큐레이팅은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대면 상담 서비스다. 대면 이용이 어려운 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정기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서는 심리적 접근성을 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표본은 적으나 작년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참여자 중 서울청년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참여자는 10% 미만으로 센터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방문이나 서비스 이용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고립 청년을 위한 단계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2)는 지원 기관의 목표를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 사회 재적응, 사회 재진입과 사회통합 세 가지로 제안한다. 우선 고립 청년은 자신들의 고립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구나 필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 기관에서는 청년 만남의 시작부터 청년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청년의 자기이해와 심리·정서적 활력 증진을 위해 개입한다.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혹은 낮아진 자존감 등 자기 인지의 오류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활력 회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연구<sup>1)</sup>에서는 정서적 고립 청년은 고립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자기 이해(흥미, 강점 등) 수준과 긍정적 자기 인식('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사회 재적응(관계 회복)을 위해 청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지원 인력과의 관계, 함께 하는 참여자들과 관계 맺는다. 상호작용에 익숙해지고, 갈등을 경험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갈 수 있

1) 최수현, 정서적 고립에 빠진 청년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동향지, 26권 1호, 2023.03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립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사회에 어우러질 수 있다(사회통합).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은 다시 은둔하고 고립하는 청년에게도 사회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재은둔 비율은 62.8%로, 청년들의 대부분은 고립감을 해소하길 원하고 고립 생활 극복을 위해 무언가 시도해보기도 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음(27.2%)',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했음(26.5%)',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20.6%)'을 이유로 다시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고립에 대한 이해를 갖춘 기관이 청년에게 힘을 보태어 고립과 은둔을 잘 해소하도록 돕고, 재은둔으로 이어지더라도 상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경험적 근거

본 기관은 고립청년지원사업을 4년 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며 앞서 언급한 청년의 활력 회복, 사회 재적응, 사회 재진입을 돕고자 했다. 청년의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정서 강의, 상담, 진로 강의를 진행했고, 관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강의와 소모임을 진행했다. 또한 사회로의 통합을 돕기 위해 고립 생활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청년들을 초대하여 경험을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이전 참여자의 고립 경험에 도움을 받아 사업 보조 인력으로 협력할 수도 있었다. 참여 청년들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립 청년과, 고립에서 벗어난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청년 정책과 서울청년센터, 정기 문자 메세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안내하고 함께 활용해보면서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청년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지속적으로 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인구	2,892,560*
위기대상	중랑, 광진,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인구	338,079**
표적대상	중랑, 광진,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중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 인구 추산	11,156***
클라이언트수	표적대상 중 참여를 원하는 청년	20

\*서울시 연령별 인구현황, 2023.4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연령별 인구현황, 2023.4

\*\*\*서울시 고립 청년 추산 비율 3.3%를 위기대상에 적용(서울시 고립은둔청년실태조사, 2022.12)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일상의 활력을 회복하고 고립감을 해소한다.	- 선정 및 사례관리	20명/20회	참여자 개별 욕구 파악
	- 강의	10명/10회	
	- 소모임	10명/20회	사회적 관계망 형성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목표	프로그램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참여자 개별 욕구 파악	선정 및 사례관리	- 대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 내용: 1:1 상담, 자원 연계 - 방법: 고립청년 척도 및 신청서 작성	6~12월	권수민 대리	26명	26회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의	- 대상: 참여 청년 10명 - 내용: 자기이해, 진로탐색, 관계 기술, 심리정서 - 방법: 집단 활동	6~11월	권수민 대리	11명	16회
	소모임	- 대상: 참여 청년 10명 - 내용: 기분 환기 및 관계 형성 - 방법: 집단 활동	6~12월	권수민 대리	16명	15회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시기
참여자 개별 욕구 파악	- 개별 목표 수립 작성 및 이행 여부	- 상담기록지 - 개별목표수립지	- 만족도 설문 - 담당자 평가	6~11월
사회적 관계망 형성	- 만족도 설문 평균 4점 이상	- 만족도 설문지 - 일지 및 결과보고		

### 다. 담당인력구성

번호	이름	직위	담당역할
1	김영미	관장	총괄 및 슈퍼비전
2	김영례	부장	사업 지원 및 슈퍼비전
3	윤지영	과장	사업 지원 및 슈퍼비전
4	권수민	대리	사업 계획 및 운영

### 라. 사업 일정

내용/기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집, 선정												
사례관리												
심리정서 프로그램												
자기이해 프로그램												
관계기술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소모임												
권역특화 프로그램												

## 5. 프로그램 평가

###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참여자 개별 욕구 파악	- 개별 목표 수립 작성 및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참여자는 초기 상담시 개별 목표를 생각하고 작성하였으며 집단 프로그램이나 개별 연락을 통해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음. 초기 상담시 정한 목표 외에도 매일 점검 가능한 개별 점검표를 전달하여 편의에 맞게 활용하도록 함.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목표보다는 의욕낼 수 있는 일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목표로 목표 수립 과정을 통해 참여자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었음.</li> <li>- 소모임 진행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관심사를 적고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시도하여 목표한 바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줄이고자 함.</li> <li>- 참여자A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목표로, 진로를 넘어 삶의 동기과 관련된 목표였음. 여러 방법을 논의한 끝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정기적 외출과 강의를 통한 좋은 자극 받기였음. "참여 전에는 완벽</li> </ul>

		<p>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눈 앞의 일을 하자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고 있으나, 전진하려는 구나 싫어요.”라며 몸을 움직이며 정기적으로 할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한 변화를 표현함. 특히 진로탐색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호기심, 탐구력을 인정받고 관련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B는 스스로 회피형 성격이라 칭함. 겉은 밝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피하게 된다며 자신의 성향으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길 원함.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어려워하여 개별 지원(심리 강의, 심리 상담, 자가 활용 노트, 진로 컨설팅)하였고, 참여자가 책으로만 접한 심리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며 스스로 적용해볼 수 있게 되었음.</li> </ul>																																																						
<p>사회적 관계망 형성</p>	<p>- 만족도 설문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정도* 사전 사후 검사로 대체함. 점수가 낮을수록 고립감이 낮은 것임.</p> <p>- 만족도 설문</p>	<p>- 만족도 설문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정도* 사전 사후 검사로 대체함. 점수가 낮을수록 고립감이 낮은 것임.</p> <div data-bbox="577 720 1156 1068">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고립정도 총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번호</th> <th>사전</th> <th>사후</th> </tr> </thead> <tbody> <tr><td>1</td><td>92</td><td>82</td></tr> <tr><td>2</td><td>57</td><td>62</td></tr> <tr><td>3</td><td>71</td><td>66</td></tr> <tr><td>4</td><td>69</td><td>37</td></tr> <tr><td>5</td><td>69</td><td>52</td></tr> <tr><td>6</td><td>70</td><td>60</td></tr> <tr><td>7</td><td>63</td><td>61</td></tr> <tr><td>8</td><td>66</td><td>59</td></tr> <tr><td>9</td><td>60</td><td>54</td></tr> <tr><td>10</td><td>70</td><td>62</td></tr> <tr><td>11</td><td>65</td><td>53</td></tr> <tr><td>12</td><td>62</td><td>45</td></tr> <tr><td>13</td><td>60</td><td>54</td></tr> <tr><td>14</td><td>78</td><td>66</td></tr> <tr><td>15</td><td>64</td><td>52</td></tr> <tr><td>16</td><td>70</td><td>75</td></tr> <tr><td>17</td><td>50</td><td>48</td></tr> </tbody>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20명 중 17명이 응답했으며 고립정도는 사전 평균 66점(100점 중)에서 사후 58점으로 8점 감소하였음. 응답자 중 고립감이 감소한 참여자는 15명, 증가한 참여자는 2명임.</li> <li>-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외출할 일이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또래와 소통한 것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낌. 참여자 C는 오랜 기간 외출하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게 낯설어, 편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이를 위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연습을 했고, 익숙해질 쯤 중앙센터와 청년센터 오랑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사람이나 고립 경험이 없는 사람과도 만나는 기회를 가짐. “사람(또래)들과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재밌어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라며 긍정적 소감을 남김. 과정 상에서 참여자가 회피하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도록 독려하고, 원하는 바를 시도해 보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함.</li> <li>- 참여자D는 ADHD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었음. 눈 맞춤이 어렵고 대화시 과도하게 긴장하는 모습으로, 관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을 준비를 목표로 함. 소모임에서 참여자가 자신있어 하는 ‘요리’를 타 참여자에게 알려주는 기회</li> </ul>	번호	사전	사후	1	92	82	2	57	62	3	71	66	4	69	37	5	69	52	6	70	60	7	63	61	8	66	59	9	60	54	10	70	62	11	65	53	12	62	45	13	60	54	14	78	66	15	64	52	16	70	75	17	50	48
번호	사전	사후																																																						
1	92	82																																																						
2	57	62																																																						
3	71	66																																																						
4	69	37																																																						
5	69	52																																																						
6	70	60																																																						
7	63	61																																																						
8	66	59																																																						
9	60	54																																																						
10	70	62																																																						
11	65	53																																																						
12	62	45																																																						
13	60	54																																																						
14	78	66																																																						
15	64	52																																																						
16	70	75																																																						
17	50	48																																																						

		<p>를 마련했고 그를 계기로 모임에서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편하게 말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음. 특히 버킷리스트 작성 소모임에서 대부분 참여자들이 요리를 해보고 싶어했기에 참여자들의 개별 목표와 흥미를 참여자 강점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p>
--	--	---

## 나.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	평가 결과
홍보	<p>대상자 모집</p> <p>-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상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에서 사업 홍보를 주로 담당하여 적극적인 광역 홍보가 가능했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뿐 아니라 유관기관,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홍보함.</li> <li>-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를 통한 본인 신청만 가능하였음.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를 활용하여 신청자 상황에 따라 은둔/고립/비활력 청년으로 고립 정도를 나눈 후 각 컨소시엄 기관에 배정함.</li> <li>- 신청 청년은 주최기관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중앙센터)에 접수됨. 척도 결과 고립 청년인 경우 청년 거주지에 따라 각 권역센터(본 기관 외 8개 기관)로 배정됨. 이 외 은둔청년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비활력청년은 씨즈에 배정되어 일 경험을 위한 지원을 받음.</li> <li>- 중앙센터(중앙, 광진, 동대문구 거주자) 신청자는 26명으로 1명은 서울시 외 지역 이사로 종결, 저녁과 주말에 참여 가능한 5명은 중앙센터로 이관함. 종결과 이관 발생시 중앙센터를 통해 최종 20명이 참여함.</li> </ul>
	<p>프로그램</p> <p>- 활동 후기 제작 배포(18회)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이음센터의 소식을 담았다는 의미인 '이음통신'이란 이름으로 활동 후기를 작성하여 배포함.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여 활동과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을 홍보함.</li> </ul>
전문인력	<p>강사</p> <p>- 강사 섭외(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및 1:1 진로 컨설팅을 위한 강사를 섭외함.</li> <li>- 본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기이해, 심리정서, 관계기술, 진로탐색 영역에서 강의를 진행할 강사를 섭외함. 각 영역에서 참여자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를 섭외함. 세부 강의 주제는 회복탄력성, 비폭력대화, 글쓰기, 동기부여, 좋아하는 일 탐색, 에니어그램, 동작치료로 진행함.</li> </ul>
	<p>활동 보조</p> <p>- 활동 보조 인력(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음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 보조 인력을 채용함. 이음지기는 작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고립청년지원)에 참여한 후 올해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립에 대</li> </ul>

			<p>한 이해가 있는 청년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모임 준비를 돕고 참여자들의 대화를 촉진했으며 활동 후기를 담은 '이음통신'을 제작하여 배포함.</p>
자원 연계	심리상담 및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마음건강지원사업, 트라우마집단상담,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3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은 중앙센터를 통한 접수 과정에서 서울시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안내 받았고, 3~8회기 가량의 1:1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li> <li>- 중앙센터에서 주관하는 트라우마(학교폭력/공황장애) 집단 상담에 참여자 1명을 연계함.</li> <li>- 이 외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심리 강의를 청년들에게 안내함. 심리 지원을 희망하나 대면 참여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음.</li> </ul>
	정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청년센터 오랑(수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대부분이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용해본 적이 없었음. 본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이 청년 정책과 연결되고 관심사에 맞는 클래스에 참여해볼 수 있도록 이음지기를 통해 월 1회 이상 청년 정보를 안내함. 몇몇 참여자는 공간을 방문하거나 용기를 내어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소모임 진행 장소로 센터 공간을 대관하여 함께 방문해볼 수도 있었음. 청년센터 이용은 각 참여자가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음.</li> </ul>
	후원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점 후원금 전달(1회)</li> <li>- 위기긴급 서비스 연결(1회)</li> <li>- 후원품(수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후원금품을 연계함. 특히 한 청년은 1인 가구로 홀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심리적 여건상 지속적 경제활동이 어려웠음. 연체된 주거비(2개월)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근처 복지관의 희망온돌 위기긴급 서비스를 연결하였고, 이후 지역 상점에서 저소득 청년을 위해 모금한 금액(30만원 가량)을 해당 청년에게 전달함.</li> <li>- 이 외 청년들에게는 김장김치, 레트로트 식품, 삼푸와 세계 등 복지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었음.</li> </ul>
	기관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동아리(1회),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또래 청년과의 만남을 연결함.</li> <li>- 작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고립청년지원) 참여자들이 구성한 동아리에서 각자의 고립 경험을 담아 그림책을 제작했고, 책 공유회를 열어 참여자들에게 책과 내용을 공유함.</li> <li>- 청년진로탐색프로그램에서 각 참여자의 진로탐색 과정을 사업 참여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함.</li> </ul>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중순 협약식을 맺고 권역센터 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4개월 간 프로그램 진행함. 참여자는 10월까지 상시 모집함. 상시 모집으로 많은 청년에게 홍보가 되었으나 10월 참여자는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았음. 7월 참여자도 특성상 매 번 참여하기 어려워 각자가 느끼는 사업 기간은 더 짧았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연속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후반 참여자와 컨디션 기복이 있는 참여자들이 더 많은 고립감 해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li> <li>- 작년까지는 참여자 모집 후 프로그램 참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참여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는 신청 후 중앙센터에서 1차 접수 상담을 진행했고, 웹کم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청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참여할 거리를 준비하였음. 또한 각 권역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져 서비스 연결 대기 기간이 심리적으로 길게 느껴지지 않았음.</li> </ul>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은 같지만, 나이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이했기에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달랐음. 집단 프로그램으로 해소되지 않는 청년은 1:1 진로 컨설팅과 사례관리로 개입하였음.</li> <li>- 자기이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폭력대화 강의 2회기 진행함. 참여자들은 자기 감정과 욕구를 알 수 있었고, 관계적인 고민에도 도움이 되었음. 이후에는 진행 회기를 늘려 진행하면 좋겠음.</li> </ul> </li> <li>- 심리정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탄력성 강의 2회기, 감정 글쓰기 강의 3회기 진행함. 회복탄력성 강의는 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강의없이 진행해도 좋겠음. 또한 글쓰기 강의는 참여자가 짧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작성하며 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타 강사에게 다시 의뢰하면 좋겠음.</li> </ul> </li> <li>- 관계기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치료 프로그램 2회기 진행함. 긴장되고 방어적인 몸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움직임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참여자가 적어 아쉬움. 이후 접근이 용이하게 프로그램명을 달리해보고자 함.</li> </ul> </li> <li>- 진로탐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니어그램 검사(1회), 좋아하는 일 탐색 강의(3회), 동기부여 강의(2회) 진행함. 좋은 내용이고 긍정적인 평을 받았으나 아쉬움이 남음. 참여자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쉬운 주제였지만 '좋은 내용이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됨. 이후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고립 경험과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를 듣는 시간을 준비하여 참여자가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하면 좋겠음.</li> <li>: 또한, 진로 탐색 강의를 통해 의미 부여를 한 후 무엇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무엇을 하고, 이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듦.</li> </ul> </li> <li>- 소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이 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기고, 의욕과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내용 구성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해보고 싶은 일을 적고 소모임 때마다 함께 수행함. 그 중 요리를 만드는 활동이 호응이 좋았음. 하지만 모임의 내용</li> </ul> </li> </ul>

	<p>보다, 모임 횟수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음. 외출할 기회, 역할이나 할 수 있는 일거리, 꾸준히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특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진행함. 한 번은 음식 키트를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것으로 재료를 다듬고 편지를 작성함. 다같이 협력하여 키트를 만들고 어르신께 나누는 것은 긍정적으로 느꼈으나,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또 다른 활동은 작년 사업 참여자들의 고립 경험을 담은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자신의 경험을 미니북으로 만드는 활동임. 각자의 고립 경험에 공감하고, 회복된 작년 참여자들을 보며 심리적 편안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음. 이후에도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나 나눔 활동을 위한 협력 작업, 프로그램 외부인과 고립 경험을 나누는 활동은 계획하여 진행해보면 좋겠음.</li> </ul> </li> <li>- 1:1 진로 컨설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참여자에게 고루 지원하기 위해 초반에 개별 지원은 지양되었으나 참여 인원이 확정되고 난 후 필요에 따라 개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진로와 취업 컨설팅 중 참여자 상황과 욕구에 맞는 컨설팅을 연계함. 취업컨설팅(1명), 진로컨설팅(2명), 동작컨설팅(1명) 연결함.</li> </ul> </li> <li>- 중앙센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는 본인이 소속된 권역 뿐 아니라 중앙센터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었음.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이 주어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었음. 중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타 권역 청년을 만날 수 있었고 큰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었음. 하지만 사업 초반에 중앙센터의 일정이 공유되지 않아 권역센터 일정과 겹쳐 참여자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참여자 개별 지원이나 추가 강의 여부가 사업 후반부에 전달되어 예산 사용과 프로그램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li> </ul> </li> </ul>
<p>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의, 소모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진행함.</li> <li>- 참여자 간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함. 소모임 중 소통이 적은 워데이클래스는 2회만 진행했고, 참여자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분야를 함께 시도한다는 데 의의를 두며 진행함. 나머지 소모임은 관계 형성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하였음.</li> <li>- 기관 이용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사업 협조를 받을 수 있었음. 활동 보조를 위해 전년도 사업과 올해 타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의 강점을 활용하였으며, 전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경험을 올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였음. 사업 협조 뿐 아니라 전년도 참여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소득이나 결과물(그림책)로 성취감을 줄 수도 있었음.</li> <li>- 저소득 청년을 돕고 싶다는 지역 청년 사장님들의 마음을 모아 가게에 모금함을 비치했고 모인 금액을 청년에게 전달하며 지역에서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li> </ul>
<p>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간이 짧은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 스스로 외부에서 오는 경험을 잘 다룰 수 있는 주제로 집단 프로그램을 준비함.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기, 외부 상황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기, 몸을 움직이며 긴장된 자신을 알아차리기, 자신의 흥미를 탐색하며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것임.</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정기적 외출 기회와 비슷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과의 소통임. 때문에 이후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기적인 활동 거리와 고립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지속해서 마련하고자 함.</li><li>- 특히 진로 탐색 영역에서, 고립을 경험했으나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시간에 더 신경 쓰고자 함.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임. 또한 삶의 의욕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작더라도 즐겁고 작은 성취를 이뤄볼 수 있는 경험을 준비하고자 함. 자신의 흥미를 찾고 시도해보며 참여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면 좋겠음.</li></ul> |
|--|

■ 활동사진 자료



환영 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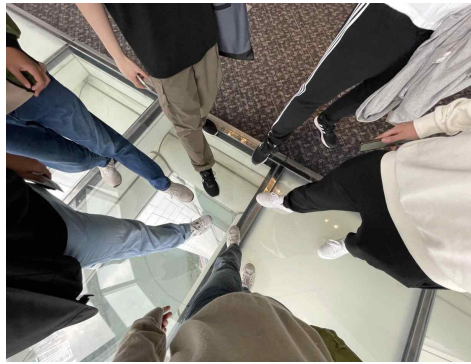
강의



소모임 주제 논의

소모임(요리)

■ 활동사진 자료



소모임(전망대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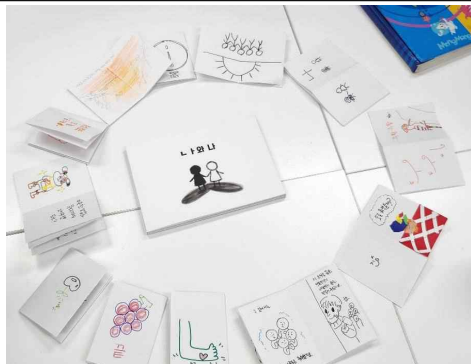
소모임(공원 산책과 독서)



소모임(단풍 책갈피 만들기)




소모임(등산)



권역특화(그림책으로 고립경험 나눔)



권역특화(어르신께 만두 키트 전달하기)

 사업명 :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꿈 디자이너'



복지1팀 허준호 대리

<b>목 적</b>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 및 계획관리, 대인관계 역량을 증진하며 신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b>사업기간</b>	<b>사업비</b>	<b>지원처</b>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5,190,000원	월드비전	

## 1. 사업의 필요성

### 가. 사업 배경

#### 1) 진로태도와 아동·청소년 성장 관계

최근 빈곤 관련 연구에서는 저소득,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정지혜, 2006<sup>1)</sup>). 진로태도 성숙은 진로성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 및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진로에 대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한 합당한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보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 직장 내에서도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낮은 직업윤리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Loughead et al, 1995). 결국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어받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세습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교졸업 후 이들이 바람직한 진로선택에 대한 개입과 함께 높은 직업적 포부와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노성환, 2003, 정지혜, 2006 재인용).

1) 정지혜,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 아동·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희망

Stotland(1969)는 희망을 동기화 이론에 적용하여 측정 가능한 변수로 개념화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희망을 인간이 움직이게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게 하는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전제하고 '목표 도달,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과 관련된 목표 획득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며, 희망에 대한 핵심 변인으로 목표에 대한 지각된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이은영, 2008<sup>1)</sup>). 김택호(2004)는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고 여기는 반면,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한 난관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이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어려운 문제 상황을 더 잘 해결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은영(2008)은 연구에서 희망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박소연(2010)은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희망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 희망이 청소년에게 하나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희망은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 3) 사회적 지지가 아동·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김영아, 200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에 대해 의미 있는 타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교사들을 꼽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삶을 구성하는데 역할 모델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노미순, 1999).

특히,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 체계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부모지지체계라 할 수 있다. Holland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정 직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은 이러한 직업들에 대한 그들의 흥미와 직업적 자기 효능감과 가치에 대해 의미 있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Lapan, Hinkelman, Adams, & Tuner, 1999, 박윤희, 2009 재인용). Flores와 O'Brien(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 포부와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예언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박윤희, 2009 재인용). 김수리(2005)는 부모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1) 이은영, 희망과 자아정체감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박윤희(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진로태도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인 독립과 더불어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노미순(1999)은 직업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일반계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 태도나 진로 준비행동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를 알 수 있다.

#### 나. 지역적 특성

##### 1) 중랑구(동북부)지역 빈곤현황 및 사업 필요성<sup>1)</sup>

본 기관이 속한 중랑구(서울 동북권)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 하위 4위(18.21%, 지방재정365)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17.48%)과 2021년(18.21%) 각 하위 3위에 머물렀으나 2022년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하면서 2021년과 순위만 변경된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인 자립정도는 평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급자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서울 동북권역(성동·성북·광진·중랑·강북·도봉·동대문·노원구)가 서울 5권역(동북 외 서북·도심·서남·동남) 중 150,869가구(38.4%, 2022서울통계)로 가장 높고 그 중 중랑구는 26,582가구(6.8%, 2022서울통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내 관할 동을 중심으로 세분하면 면목3·8동, 4동, 5동, 7동은 중랑구 전체 수급가정 중 21.6%(4,157가구, 2021통계연보)에 육박했다.

서울통계(열린데이터광장) ‘비중이 높은 지출 항목(2020)’에 따르면 중랑구 평균 1순위 지출 비중은 식료품비 73%, 주거비 10%, 사교육비와 부채상환이 각 4%로 우선 순위를 띄었다. 2순위로는 식료품비 16%, 주거비 29%, 광열수도비 10%로 나열된다. 지출 1순위를 참고할 때, 식료품비와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나, 2순위 지출 규모를 보면 여전히 필수 지출 부분으로 지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중랑구(동북부) 초등, 중등 가구 빈곤 실태 및 욕구

서울 권역 아동·청소년(만 15세~19세) 수급가정 분포도에서는 노원구 1,677가구(3.8%)에 이어 중랑구가 1,615가구(3.7%, 2021서울열린데이터)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 저소득 가정(한부모지원특별법으로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수)은 강서구 355가구(8%)에 이어 311가구(7%)로 앞서 살펴본 저소득 아동·청소년 수급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 가구 모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랑 동북권역 2020년도 아동·청소년의 희망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방과후 학교’가 190명 조사 중 54표로 1위, ‘초등돌봄교실’이 47표로 2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3위 등으로 나타났다(2020). 그러나 2020년도 190명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방과

1)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통계

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으로는 평균 46명이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청소년 아카데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은 평균 97명이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함). 특히 아동·청소년의 평일과 주말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만족 여부는 아래와 같다(표 1~4/2021, 통계청).



표 1) 2021 서울 아동·청소년 방과후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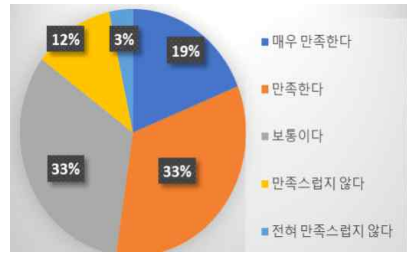


표 2) 2021 중등(1~3)학년 방과후생활 만족도

서울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만족한다(59%)로 나타나나 중등학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51%로 소폭하락하며 불만족 결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아래와 같았다.



표 3) 2021 서울 아동·청소년 방과후생활 불만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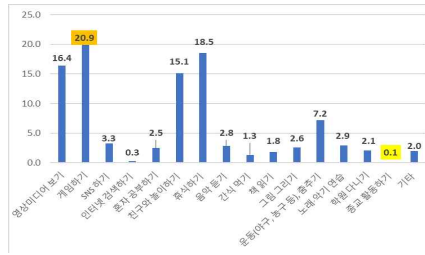


표 4) 2021 아동·청소년 방과후 희망 활동

‘피곤해서’(29%)가 가장 높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26%), ‘할 일이 너무 많아서’(25%) 등이 순위를 이었다. ‘하고 싶은 것’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희망 활동으로는 게임하기(20.9%), 휴식하기(18.5%), 영상미디어보기(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관련 활동이나 자기계발 활동(학습 등)에 비하여 멀티미디어, 비대면활동, 오락, 휴식에 더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19,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 사회적 경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3) 중랑구(동북부)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정책현황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랑구 관내 주요 공공복지 사업 및 자원으로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진학지원,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2년 관내 역점사업 중 하나였다. 다양한 평생학습활동 지원과 더불어 청소년·보호자가 더욱 직접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그 외 기본적인 아동수당 지급 등 공공부조 영역과 더불어 환경교육센터, 중랑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및 여러 아동·청소년 복지 공간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중랑구 청소년전용공간 당가동 1·2·3·4·5번지를 순차적으로 개원하며 청소년 커뮤니티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민관영역 자원으로는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분과운영, 교육청 주관 교육복지협력사업 네트워크, 본 파트너십 기관과 지역 자치기구가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 축제 및 연계 활동 등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본 기관의 핵심 사업이었던 '아동 3권 사업'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할 동별 주요 놀이터 활동 사업과 그 매개로 연결된 주요 직능단체 및 민간단체들의 협력 체인도 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을 향한 복지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 실무자들의 목소리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전달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복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파트너십 기관은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사업 내 기업 연계 장학사업 및 결연 사업, 월드비전 파트너십 기관 꿈지원 사업으로 2023년에도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고자 한다.

## 다. 경험적 근거

### 1) 월드비전 아동 꿈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월드비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꿈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꾸준히 검증하였고 꿈을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꾸준히 추적 연구해왔다. 아동청소년의 욕구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문제에 이어 교육기회 부족과 보호자의 경제·정서적 지원 부족 문제가 큰 것을 파악하였으며 월드비전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드비전 조사 연구 보고서(2010)에 의하면 아동의 희망하는 교육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고 짚었다. 중학생의 경우 자아낙인이나 주위낙인에 대해 초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낮아지고 부정적인 인식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경향성이 아동에게 돈을 관심의 우선 대상이 되게 하고 돈 혹은 그 외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막연히 '잘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6년 동안의 월드비전 꿈 지원 프로그램 참여 아동·가정을 통한 변화로 가족레질리언스, 부모양육태도, 부모·친구지지, 자기효능감, 진로 성숙도에서 더욱 구체적인 꿈과 진로관

형성, 도전 의식을 높였다. 변화 요인으로 1)개인의 능력과 다양성을 존중 2)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기반 3)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통합적 접근 4)아동의 주체적 참여 5)체험과 경험의 장 적극 지원 6)아동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7)사회경제적 계층 특수성이 아동과 가정의 성장 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파트너십 기관 참여 아동의 주도적인 꿈 탐색·성장의 기회

본 기관은 2022년 3차년도 사업을 통해 자아탐색 프로그램(3회기), 비전원정대(6회기), 아동기획회의(2회기), 보호자 자조모임(6회기), 가족연합캠프(1회기), 꿈 지원금(12회), 자기성장계획서(IDP) 수립(1회), 자기성장계획 점검 및 평가(각 1회), 내부 아동 사례 담당자 실무자 회의(4회)를 진행하였다. 자아탐색 프로그램에서는 진학기 진로탐색과 진로 흥미유형 파악, 미래 성장계획 등 직업 세계 이해를 진행해왔다. 과년도에 이어 3차 자기성장계획서를 수립하였고 매월 꿈 지원금을 통해 계획한 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진행했다. 2021년도에 이어 월 2만원씩 사업비가 증액되어 월 10만원씩 지원했다. 비전원정대 활동에서는 꿈과 진로를 매개로 대학 탐방, 문화탐방, 꿈 리더 활동 등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진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보호자 자조모임과 캠프를 통해 부모-참여 아동 지지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존-신규 참여 가정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1:1 가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 모니터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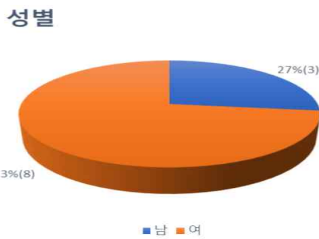


표 5) 참여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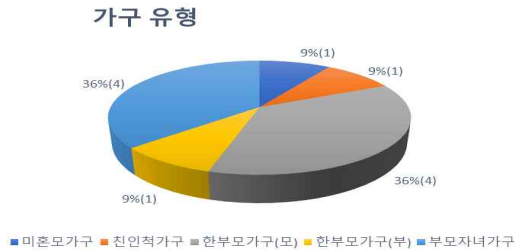


표 6) 참여자 가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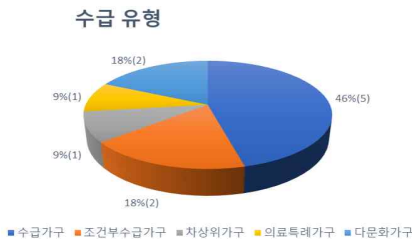


표 7) 참여자 공공부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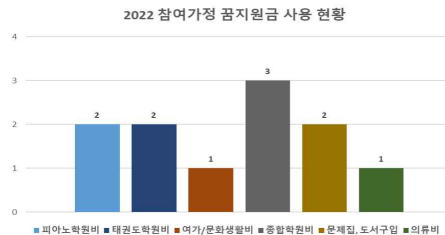


표 8) 2022참여가정 꿈지원금 사용 현황

이에 2022년 초기 접수 후 계속 참여자 외, 종결로 인한 신규 발굴 1가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지역적 욕구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 완화를 고려하였다. 총 11명의 참여 가정이 있으며 지원되는 꿈 지원금의 사용 비중을 보면 아래와 같다(표5,6,7,8).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중랑구 거주 아동·청소년(12세~19세)	46,188*
위기대상	중랑구 내 저소득(한부모/수급) 아동·청소년 수	3,846**
표적대상	위기 대상 중 사례관리 권역 내 아동 청소년 수	830***
클라이언트 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	11

\* 2022 서울시 통계연보

\*\* 2021 서울시 통계연보

\*\*\* 위험집단 중 2021년 동별 수급자 비율(21.6%)을 곱하여 셈함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 지역 사회 안에서 보호와 지지를 받으며 넓은 세계로 자기를 확장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꿈꾸고, 도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아동 개별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지원금 지급 11명/12회</li> <li>- 개별성장계획 수립 11명/1회</li> <li>- 점검 및 평가 11명/2회</li> </ul> </li> </ul>	아동이 자기탐색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바탕으로 비전을 구체화하고 긍정적인 자질과 실천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아동 그룹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탐색 프로그램 11명/3회</li> <li>- 비전원정대 활동 11명/6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보호자 그룹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교육 11명/1회</li> <li>- 보호자 자조모임 11명/5회</li> </ul> </li> </ul>	참여 아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가정 그룹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연합캠프 22명/1회</li> </ul> </li> </ul>	참여 아동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의 주도적인 성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가정 그룹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꿈 리더/ 멘토 네트워크 15명/3회</li> <li>- 사례관리 실무자 회의 4명/4회</li> </ul> </li> </ul>	참여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효과성 증대 및 주제적인 참여 고취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 목표	프로그램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아동 이공 정적 인 자기 이 해 , 목표 및 계 획 관 리역 량, 대 인 관 계 관 리 역 량, 신 념 체 계 변 화	참여 아동 개별 코칭	꿈 지원금 지급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매월 참여 아동 꿈지원금 지원 - 내용: 아동 1인, 매월 11만원씩 지원	1월 ~ 12월	허준호 대리	133명	12회
		점검 및 평가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참여 가정 참여 모니터링 - 내용: 아동 개별성장계획에 근거하여 꿈 지원금 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진행	반기 1회	윤지영 과장, 최영주 과장, 안예지 주임, /허준호 대리, 이윤지 we'r	23명	2회
		개별 성장 계획 수립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꿈, 직업인 성장 계획 - 내용: 자아탐색 프로그램 후 아동별 개별성장계획 수립	3월, 4월, 7/8월	윤지영 과장, 최영주 과장, 안예지 주임, 허준호 대리, 이윤지 we'r	13명	3회
	참여 아동 그룹 활동	자아 탐색 프로그램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인성 및 소통 교육 - 내용: '진로설계와 권리습관'을 주제로 상호 교류 과업 수행	3월	허준호 대리, 꿈 멘토	27명	2회
		비전 원정대 활동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유형별 직업군 조사, 고등/대학교 탐방 등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문화활동 진행 - 내용: 자아탐색프로그램 후 필수 활동 외 아동 희망 진로/직업 관련 활동 및 문화활동 진행	2월 ~ 12월	윤지영 과장, 허준호 대리, 꿈 멘토	56명	7회
	참여 아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 체계 강화	참여 보호자 그룹 활동	부모 교육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전문 강사 교육 진행 - 내용: 부모 교육 1회 진행 및 평가	8월	허준호 대리, 전문 강사, 꿈 멘토	8명
보호자 자조 모임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부모 모임 주선 - 내용: 회장, 총무에 의한 복지관 내/외 네트워크 모임 진행			3월 ~ 10월	윤지영 과장, 허준호 대리, 꿈 멘토	50명	6회
참여 아동과 가족 유대감을 형성	참여 가정 그룹 활동	가족 특별 활동 - 대상: 용마회경여중 외 7개교 참여 12가정 - 방법: 아동/보호자 모임 간, 캠프 계획 수립 및 진행 - 내용: 가족연합 1박 2일 캠프 진행	10월	윤지영 과장, 허준호 대리, 꿈 멘토	22명	1회

하고 아동의 주도적인 성장 강화	네트 워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참여 아동 및 꿈 멘토 자원봉사자 15명</li> <li>- 방법: 연 3회 꿈 리더 아동 및 멘토가 회의를 통해 각 분기별 활동을 구체화</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 꿈 리더/ 멘토 네트워크</li> <li>2) 사례관리 실무자 회의</li> </ol> </li> </ul>	3월 ~ 11월	허준호 대리, 꿈 멘토, 아동 리더, 최영주 과장, 안예지 주임, 이윤지 w'er	22명	5회
-------------------	----------	---	----------	---	-----	----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 시기
아동이 자기이해, 목표 및 계획관리역량, 대인 관계관리역량, 신념 체계 변화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목표 수립(개별목표계획서)</li> <li>- 꿈지원금 지원률 100% 달성</li> <li>- 개별계획 점검/평가 2회 진행</li> <li>- 자아탐색활동 참여율 80%이상 달성</li> <li>- 비전원정대 참여율 80%이상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목표계획서</li> <li>- 입금증</li> <li>- 점검/평가서</li> <li>- 출석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상담</li> <li>- 지출기안</li> <li>- 담당자 확인</li> </ul>	1월 ~ 12월
참여 아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이수율 80% 이상 달성</li> <li>- 교육 만족도 70% 이상 달성</li> <li>- 자조모임 참석율 50% 이상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부</li> <li>- 만족도 설문지</li> <li>- 활동비 지급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조사</li> <li>- 담당자확인</li> </ul>	3월 ~ 12월
참여 아동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의 주도적인 성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특별활동 참여율 70% 이상 달성</li> <li>- 가족특별활동 만족도 70% 이상 달성</li> <li>- 아동 꿈 리더/ 꿈 멘토 회의 진행율 80% 이상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li> <li>- 만족도 설문지</li> <li>- 회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 조사</li> <li>- 담당자 확인</li> <li>- 회의록 작성</li> </ul>	3월 ~ 11월

#### 다. 담당인력구성

번호	이름	직위	담당역할
1	김영미	관장	총괄 결재 및 수퍼비전
2	김영례	부장	중간관리 수퍼비전
3	윤지영	팀장	면목4동 총괄 / 수퍼비전 및 사업 점검
4	최영주	팀장	면목5·7동 가정 사례관리 / 사례관리 수퍼비전
5	안예지	주임	면목3·8동, 기타동 가정 사례관리
6	이윤지	사회복지사	면목4동 가정 사례관리
7	허준호	대리	프로그램 총괄 운영 및 모니터링

## 라. 사업 일정

내용/기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드비전 사업디자인												
꿈지원금 지원												
IDP(자기성장계획), 점검												
IDP 점검												
IDP 평가												
비전원정대												
비전원정대 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비전원정대 아동 총회(꿈 리더 선출 및 활동 다짐서 작성 등)</li> <li>- 4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견학</li> <li>- 5월: 비전설계 아카데미(with_진로소개 동아리 '하랑')</li> <li>- 9월: 비전설계 워크숍(with_진로소개 동아리 '하랑')</li> <li>- 10월: 대학탐방(임의 대학 1곳)</li> <li>- 11월: 비전설계 보고대회(with_진로소개 동아리 '하랑') / 기타활동_문화탐방의 달</li> </ul>											
부모교육												
보호자자조모임												
보호자자조모임 활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보호자 자조모임 총회(임원 선출, 활동 다짐서 작성 등)</li> <li>- 2월: 생일축하(미정_2월자)&amp;식사 모임</li> <li>- 4월: 생일축하(미정_4월자)&amp;총회 희망 활동(1)</li> <li>- 5월: 생일축하(미정_5월자)&amp;총회 희망 활동(2)</li> <li>- 8월: 생일축하(미정_8월자)&amp;보호자 교육(주제 미정)</li> <li>- 10월: 생일축하(미정_10,11월자)&amp;임원진 주관 활동의 달(임원진 진행 전담)</li> <li>- 12월: 생일축하(미정_12월자)&amp;송년모임</li> </ul>											
가족특별활동												
아동 꿈 리더/멘토 네트워크												
반기 보고, 정산보고												
APR(아동성장보고서)												
성탄카드 작성/제출												
실무자 모임(간담회)												
기관장간담회												
월 보고서 전산입력/전송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월 5일

## 5. 프로그램 평가

###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이해, 목표 및 계획관리역량, 대인관계관리역량, 신념체계 변화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목표 수립(개별목표계획서)</li> <li>- 꿈지원금 지원율 100% 달성</li> <li>- 개별계획 점검/평가 2회 진행</li> </ul>	<p>* 꿈지원금 목표(100%기준) 대비 133명, 12회 지원하며 100.7%달성. 개별목표 수립은 아동 12명 모두 수립하며 109% 달성. 개별계획 점검/평가는 목표(2회 기준) 대비 12명, 2회 진행하며 105% 각 달성. 자아탐색활동은 목표(80%기준) 대비 27명, 2회 진행하며 100% 달성. 비전원정대 활동은 목표(80%기준) 대비 56명, 7회 진행하며 106% 달성함.</p> <p>- 선물금(4건/35만원), 잔여사업비분 아동지금액(5건/172만원), 추석명절지원금(12건/360만원), 동계학습비(12건/360만원)은 월드비전 본부에서 아동 꿈지원금 통장을 통해 직접 입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탐색 활동 참여율 80% 이상 달성</li> <li>- 비전원정대 참여율 80% 이상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이사로 인해 종결아동 2건 발생으로 4월경 종결, 신규 및 7/8월경 각 신규 참여자를 선정함. 당초 사업 예산 대비 종결 아동 +1개월 각 추가 지원, 하반기 종결아동 꿈지원금 지원분 10만원을 추가 지원함. 각 아동 사례 담당자 주관으로 8월 아동성장보고서, 12월 성탄 맞이 후원자 카드 작성 및 발송함.</li> <li>- 가정별 점검 및 평가는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내방/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추후 가정 방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li> <li>- 2023년부터 사업 지침(가정별 가정 방문 1회, 내방 등 전화 면담 등 2회 이상 모니터링 준수)에 따라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연 3회 이상 가정별 정기 모니터링 일정을 수립하였음. 상담 기록 시 시설정보 시스템에 먼저 기록 후 내부 결재가 완료되면 꿈아이On(인트라넷)의 모니터링에 기록하였음. 기관 사례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꿈아이 On 기록 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수행·관리도 병행함(63건).</li> <li>- 평가시 IDP 계획서 검토·점검·계획 변경 여부 등 아동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면담 및 평가를 진행함. 과정 중 계획 대비 IDP 유지(8명), 비전 변경(4명), 실천계획 변경(1명)이 있었음.</li> </ul>
<p>참여 아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이수율 80% 이상 달성</li> <li>- 교육만족도 70% 이상 달성</li> <li>- 자 조 모 임 참석율 50% 이상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만족도 설문을 통해 교육시간(4/5점), 교육장소(4/5점), 강사(4/5점), 교육 주제(5/5점), 교육 내용(5/5점)으로 평균 만족도 88%(4.4점)을 달성함. 부모교육 이수율은 목표(80%기준) 대비 11명 참여로 122%, 자조모임 참석율은 목표(50%기준) 대비 50명 참여로 151.5% 달성함.</li> <li>- 사춘기 아이들 양육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일정이 많아짐에 따라 전략적인 대화 방법의 필요성이 높았음. 이에 '비폭력대화' 강의를 통해 자녀에게 요구하는 통보식 대화 방식을 벗어나 자녀와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을 습득할 수 있었음.</li> <li>- 부모교육에 도움이 된 부분으로 "모든 교육 내용이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랑 소통, 대화, 공감, 관찰, 느낌 NVC", "아이랑 소통하기"가 있었음. 다음 교육 희망 주제로 '부모님 경제교육', '대화 주제로 이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가 있었음.</li> <li>- 01/28) 1회기 보호자 활동 총회 9명 참여(참여율 81.8%)</li> <li>- 02/18) 2회기 보호자 자조모임 임원 모임 진행 4명 참여 (참여율 36.4%)</li> <li>- 02/25) 3회기 보호자 2월자 생일 파티 및 비전 워크샵 10명 참여 (참여율 90.9%)</li> <li>- 04/22) 4회기 보호자 4월자 생일 파티 및 국토대장정 논의 8명 참여 (참여율 72.7%)</li> <li>- 06/24) 5회기 보호자 6월자 생일 파티 및 상반기 간담회 11명 참여 (참여율 90.9%)</li> <li>- 08/12) 6회기 보호자 8월자 생일 파티 및 임원 보궐 선출 8명 참여 (참여율 72.7%)로 진행함.</li> </ul>

<p>참여 아동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의 주도적인 성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특별 활동 참여율 70% 이상 달성</li> <li>- 가족 특별 활동 만족도 70% 이상 달성</li> <li>- 아동꿈리더/꿈 멘토 회의 진행율 80% 이상 달성</li> </ul>	<p>* 가족특별활동(가족연합캠프) 목표(70%기준) 대비 22명 참여로 146.7% 달성함. 참여자 친밀도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만점에 4.4점(88%)으로 나타남. 참여가정 지지체계 강화 정도에 관하여 22명 결과 5점 만점에 4.5점(90%)으로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차 참여자부터 올해 새롭게 참여한 참여자 등 활동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호자 모임 회장·총무님이 말도 건네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부모님끼리 자주 모이는 멤버가 있는 등 본 활동에서 보기 어려운 관계망 형성을 살펴볼 수 있었음.</li> <li>- 나들이 자리를 빌려 친해진 아동·부모님도 있으나 아직 어색하다는 가정도 눈에 띈. 단톡방과 관련하여 개인의 관심사 등 이슈를 자주 공유하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담당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들되, 부모님 임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여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하면 좋겠음.</li> <li>- 미션지를 수행하며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좋았다)'는 평이 있었으며, 탐방 및 체험 간 미션지를 매개로 가족 내·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다수 있었음.</li> <li>- 점심 식사와 카페에서 아이들은 꿈 멘토 선생님들과 따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모님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보 교류, 가정의 이슈를 나눌 수 있도록 도모함. 관련하여 '카페에서 신 것, 케이블카 탄 것'이 좋았다는 평이 있었음.</li> <li>- 당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탐방 시 남는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가정별로 자부담으로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삼삼오오 바이킹을 타는 등 놀이동산에 다녀옴. "놀이공원을 오래 즐기지 못해 아쉬움", "맛있는 걸 먹고 놀고 해서 좋았다" 등의 평이 있었음.</li> </ul>
---	---	---

**\*참여자 개별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평가(변화)기록**

이름	질적 변화 내용
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419,356원</li> <li>&lt;아동 종합 평가&gt;</li> <li>(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음. 상반기에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했음. 돈을 덜 벌더라도 근무 시간이 짧고, 유동적이라서 가족, 친구랑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싶었음. 하반기에는 워라밸을 보다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됨. 하고 싶은 것이 생겨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임. 연봉이 높은 직업에 관심이 생겼음. 명확하게 하고 싶은 직업은 없음. 로봇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꿈은 현재 사라졌고, 꿈에 대한 탐색을 0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음.</li> <li>(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완료하는 경험을 했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완주했음. 다시는 하고 싶지</li> </ul> </li> </ul> </li> </ul>

	<p>않은 힘든 경험이지만, 완주한 그 순간에는 뿌듯했음. 요즘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것은 공부임. 학교 수업과 과외만으로는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더 해볼까 고민 중이었음. 학기 초부터 해온 고민인데, 학원을 다니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낮잠, 자유시간)이 있어서 시작을 망설였음. 이제는 진짜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겨울 방학에 엄마와 함께 학원 상담을 가려고 함.</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p> <p>(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이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함. 티머니 충전, 일회용 티머니 발급을 할 줄 모름.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할 줄 모름.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미성숙해서 모르는 건지, *현이만 그런 것인지 궁금함. *현이가 가르쳐주면 따라서 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제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현이가 엄마에게 “모르겠어요.” 표현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엄마가 가르쳐 주는 데에 한계가 있음.</li> <li>- *현이를 믿고 기다려주기보다는 *현이를 이끌어주는 면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현이가 연 초에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말을 꺼냈지만, 학원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서 흐지부지하게 끝났음. *현이가 꼭 가고 싶다면 다시 말을 꺼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이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한 학기가 지남. 엄마가 적극적으로 물어봐주길 기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겨울방학에 *현이와 함께 학원 등록 상담을 다녀오고자 함.</li> </ul>
<p>최*현</p>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557,257원</p> <p>&lt;아동 종합 평가&gt;</p> <p>(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p> <p>-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 월드비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매우 소중함. 친구들을 만나는 것,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프로그램을 하고 오면 일주일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보낼 수 있음. 프로그램 전에는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만나면 너무 좋은데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아닌 척, 시크하게, 버릇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됨.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후회함. 매년 멘토선생님들이 바뀌어서 아쉬움. 지금 만나는 친구들과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음. -&gt;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현이에게는 월드비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본인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어렸을 때의 왕따 경험, 관계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현이는 학기 초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함. 이런 *현이에게는 월드비전을 통해 오랫동안 친구, 선생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경험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음. (“아직 왕따 했던 친구들이 지나가면 손이 막 떨리고 그래요. 저는 먼저 인사하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 학기 초에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데.. 학기 후반이 되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신촌, 건대입구에 놀러 많이 다녀요. 제가 먼저 놀러 가자고 제안하는 편이에요. 저는 베프의 기준이 2~3년간 관계가 유지되고 부모끼리 서로 알아야 하고, 집에도 가보고, 같이 씻는 것도 가능한, 서로의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베프라고 할 수 있어요.”)</p> <p>(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p> <p>- 베푸는 삶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음. 지난번 프로그램할 때 초콜릿을 가져가서 친구, 선생님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해주어 너무 기분이 좋았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음.</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p> <p>(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음. 얼마 전 넘어져서 연골이 찢어짐.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고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또 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임.</li> <li>- 부모모임에 참여하면서 행복했고 새로운 일(노래 부르는)을 찾아서 좀 더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음.</li> </ul>
안*형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3,258,962원</p> <p>&lt;아동 종합 평가&gt;</p> <p>(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고 탐방을 다녀오고, 대학교 생활에 호기심이 생겼고, 대학생이 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학교 굿즈를 사고 싶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학교', '명예로운 학교'에 대한 동경심이 들었음. 연세대학교 기념품 샵에서 곰돌이 열쇠고리를 구입했고 학교 가방에 걸고 다님. 연세대학교는 멋진 곳이지만, 내가 갈 곳은 아니라고 생각함.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돈을 벌고 싶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로그래머 학원을 다니고 싶음.</li> <li>- *형이가 대학교에 호기심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대학탐방에 참여한 의미가 있음.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학원을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었음. *형이가 학업에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형이는 공부를 잘하게 되면 배움의 기회, 경험의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함.</li> </ul> <p>(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대단한 직업을 가진 어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음.</li> <li>-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이지만 월드비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해볼 수 있었음.</li> <li>- *형이는 월드비전에서 하는 활동들에 흥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음. 하지만, 월드비전에서 장학금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li> </ul> <p>&lt;보호자 종합 평가&gt;</p> <p>(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이를 더 믿어주려고 함. 중학교 2학년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오히려 *형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를 많이 쳤음.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함. 형 *형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관심을 갖고, 대학교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음. *형이도 그럴 것이라 믿음. 공부는 부모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에게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음.</li> <li>- *형이의 진로를 같이 고민함. *형이가 아르바이트하겠다고 할 때마다 제대로 된 직업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음. *형이가 대충대충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됨. 공무원을 하면 좋겠는데, *형이는 관심 없어함. *형이에게 어울릴만한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임. *형이가 형보다 체격이 좋고, 초등학생 때에는 운동부 스퀘트도 받았음. 운동선수는 돈이 많이 들고, 다칠 수 있어서 안 시키고 싶음.</li> </ul>
박*원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525,744원</p> <p>&lt;아동 종합 평가&gt;</p> <p>(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해나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함. 부자가 되어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아이들을</li> </ul>

	<p>위해서 기부하고 싶다고 함. (“보육원에 기부하고 싶어요.”)본인이 현재 피아노 장학회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함.</p> <p>(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 피아노 교수님 일정과 월드비전 일정이 겹쳐서 월드비전에 참여 못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아노를 더 깊게 배울 수 있었음.(주 1회 아차산역에서 레슨을 받고 2~3주에 한번 이화여대 교수님이 봐주고 있다고 함. 교수님과 일정 조율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함)</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  (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  - 어머니의 경우 최근 등 통증이 있다고 하셨음.(“일을 많이 하니깐요.”) 근래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봤더니 작년에 받아보셨고 괜찮았다고 하심. 자궁 쪽만 6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아 봐야 한다고 하셨음.  - 아버님의 경우 어깨 치료는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심.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1회에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힘들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함. 병원에서도 수술 부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큰 수술(수술을 해도 100%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함)이 되기에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를 사용해 보고 도저히 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하심. 현재는 통증이 있을 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손목터널증후군, 방사통으로 두통까지 있다 보니 저녁에 잘 못주 무시고 깨기도 하신다고 함.  - 하늘이는 여름방학 때 자궁 쪽 수술을 잘 마무리된 상황임. 다른 병원에서는 그래도 그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하셔서 고민 중이라고 하심. “여자아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서요.”</p>
<p>최*아</p>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534,972원  &lt;아동 종합 평가&gt;  (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 하랑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음.  - 수학박물관에 가서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음. 신기했음.  (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 수학 공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 연세대학교 방문하여 기념품 구입 한 것을 자랑하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연세대, 고려대라고 이야기함.</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  (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  - 이사를 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음. 아버지 무릎관절이 좋지 않다 보니 이사하자마자 관절수술을 하시고 외출하시면서 집에 자전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심.  - 기존에 어린이집 근무를 했던 것에서 상담 쪽으로 아예 변경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뒤로 밀려나면서 보통 7~8시에 퇴근하고 있다고 하심(오전에 조금 늦게 출근함). 현재는 장애아동 행동치료 쪽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졸업학기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심.  - *우가 성장하면서 발달은 느리나 2차 성징은 나타나서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신다고 함. 지금은 복지관 다니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으며 어머니 퇴근 전까지 집에 와서 TV를 보고 시간을 보낸다고 함.</p>

	<p>- 월드컵전에서 *윤이 어머님과 친하다고 하심. *윤이 어머님이 나긋나긋하다 보니 *윤이 어머님이 속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부모님들과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고 하심. *윤이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 *아와는 어울리는 것을 어렵하다고 함.</p>
문*윤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656,455원 &lt;아동 종합 평가&gt; (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 비전원정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직업인 사람들이 직접 알려주어 전보다 많은 직업을 알 수 있었음, 대학탐방으로 연세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들이 있는지 등 학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었음. (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 대학탐방을 해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음. 꿈발표회 날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발표회를 위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준비도 새롭게 해 보았음.</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 (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 - 아이가 스스로 노력도 하고 잘하려는 모습이 있다 보니 어머니도 욕심이 전보다 욕심이 생기는 게 있음. 그래도 잔소리를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본인 세대와 현재 아이 세대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려고 함.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전보다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줄어든 만큼, *윤이를 믿고 존중하고 있음. 이를 *윤이도 느껴서 전보다 엄마를 믿고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 - 참여가정 보호자들과는 좋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친해진 엄마들과 프로그램 외에도 만나서 서로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또래 아이를 둔 보호자끼리 더 많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음.</p>
김*담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913,527원 &lt;아동 종합 평가&gt; (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웠음. 대학탐방 갔을 때 연세대학교에 알 수 있었음. 피아노과랑 성경학과가 있다는 게 인상 깊었음. (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 꿈발표회 참석은 못 했지만 준비해 보는 게 재밌었음. 스무 살쯤 나와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음.</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 (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 -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한동안 바빴지만 지금은 괜찮음. 근로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담이와 전보다 얘기 자주 하게 됨. *담이가 학원을 옮기는 걸 원하다 보니 다닐 만한 학원을 더욱 찾고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됨.</p>
김*주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593,023원 &lt;아동 종합 평가&gt; (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음. 춤추는 동영상을 보는 것, 음식 사진을 맛있어 보이게 찍는 것을 좋아함. 선생님이 나에 대한 질문을 하시니까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음. - 진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았음. 늘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요즘은 군인이 안 됐을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됨.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아이</p>

	<p>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 되고 싶냐는 생각을 했음.  (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 다른 친구들의 꿈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수학박물관을 친구 때문에 가게 되었음. 혼자서는 가지 않았을 법한 장소를 다녀온 것이 특별하다고 느껴졌음.  -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좋았음. 가기가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면 재미있게 잘 놀 수 있음.</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  (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  - 애들이랑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삼겹살 식당에 가서 대화 나누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듦.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그런 곳에서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이 자기 속 마음을 더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참으려고 노력함. 청소년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더 빛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되도록 화를 참고, 가라앉은 뒤에 이야기하려고 함.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음.  - 베트남에 계신 장인어른의 병세 악화로 병원비, 장례식 비용이 (약 800만원)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간이 있었음. 평소에 경제관리를 잘 해온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큰 지출이 생겼을 때에는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속이 상했음.</p>
<p>구*애</p>	<p>- 2023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655,749원  &lt;아동 종합 평가&gt;  (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 대학탐방으로 연세대에서 여러 가지 학과도 있고 좋은 학교임을 알 수 있었음. 그리고 비전원정대를 비롯 여러 활동들을 해보면서 아티스트라는 꿈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꼈음. 음악을 꼭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취미로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 비전원정대를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고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음. 국토대장정도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너무 힘들었기에 다시는 도전해보고 싶지 않다며 거듭 강조하였음.  - 아티스트라는 진로를 위한 실천으로 댄스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며 더 많은 곡의 춤을 출 수 있게 됨. 무대도 작년보다 두어 번 더 설 수 있었음. 9명에서 함을 맞춰 난이도가 있는 빠른 곡(전소미-'XOXO')을 완곡으로 출 수 있게 된 것이 뿌듯함.</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  (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  - 근로가 바뀌다 보니 평일에 *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움. 그래도 밤 늦게라도 집에 방문하여 *애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청소년나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음. *애가 중국어공부를 시작한 뒤로 아는 선에서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대화하는 주제가 하나 더 생긴 뒤 이야기 횟수도 조금 더 늘어났음.</p>
<p>추*솔</p>	<p>- 2022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1,633,601원  &lt;아동 종합 평가&gt;  (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 꿈을 위해 노력(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월드비전에는 나처럼 공부 대신 다른 분야로 진로를 정한 친구도 있지만,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음.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사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좋음.</p>

	<p>- 원래도 엄마랑 상의를 많이 했지만, 월드비전을 하면서 엄마가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음. 엄마와 함께 선생님과 상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엄마가 나에게 대해, 자전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엄마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말(귀가 시간 늦추기)을 선생님 앞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음.</p> <p>(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p> <p>- 경륜선수 외의 다른 분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 월드비전은 단체로 하는 활동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 되는 것들도 하기 때문에 경륜선수 외의 직업들에 대해서 알게 알 수 있게 됨.</p> <p>- 월드비전 참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자전거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설경륜팀에 입단하게 되었음. 팀에 소속되고 난 뒤로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졌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됨.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졌음. 만약 진학을 못한다면 지금 소속된 팀에 남아서 기록을 경신하면서 경륜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쌓고싶음.</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p> <p>(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p> <p>- *솔이의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플리마켓 수세미 판매 수익,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비만으로는 *솔이의 자전거 용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고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뜨개질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음. 내년부터 방과후 교사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임.</p> <p>- 울여름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음. 만병의 근원은 살이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고, 성공했음. 살을 뺀 뒤로 기력이 좋아졌음.</p>
김*연	<p>- 2022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2,190,286원</p> <p>&lt;아동 종합 평가&gt;</p> <p>(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p> <p>- 그동안 몰랐는데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음. 직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보며 스스로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p> <p>(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p> <p>-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새롭게 해볼 수 있었음. 수박박물관도 가보고, 대학탐방도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음. 꿈발표회도 다른 것보다 재밌던 건 아니었지만 내 미래를 발표해 보는 색다른 경험이였다.</p> <p>&lt;담당자 종합 평가&gt;</p> <p>- *연이는 굳인이 필요한 것으로 체력을 중시하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주짓수 보다는 유도가 더 실상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유도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전보다 더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 모습이다.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꾸준히 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학교 수업시간에도 잘 참여하며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도 빠짐없이 매일 가고 있으며, 센터의 형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음. 최근 이웃을 위한 바자회도 진행하고 수익금을 기부했음을 확인함.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눔을 하여 좋은 활동이었음을 강조하며, 의미 있는 경험이었음을 상기하도록 이야기를 나눔.</p>
김*성	<p>- 2022년도 사업비 중 아동 총 지원 금액: 1,633,576원</p> <p>&lt;아동 종합 평가&gt;</p> <p>(1)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은?</p> <p>- 대학탐방으로 연세대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음. 역사가 깊고 큰 학교라 가보고 싶어졌음.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음.</p>

	<p>-&gt; 실제로 학업성적이 많이 올라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고등학교 진학으로 외고 입학은 목표로 하고 있음.</p> <p>(2) 20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거라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해 볼 수 있었음. 기억에 남는 걸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본 게 새로웠음.</p> <p>&lt;보호자 종합 평가&gt; (1) 2023년 보호자의 변화된 부분은? -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을 듣고 있음. *성이가 전보다 안정된 만큼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됨. 이전부터 연을 맺은 교회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가끔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있음. 최대한 빠르게 취업하여 집안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임.</p>
--	---

### 나.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	평가 결과
홍보	프로그램	- 홈페이지 게재, 소식지, 카드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홈페이지에 2023년 1/6/11월 각 진행한 2023년 파트너십 기관 사업 재계약건 외 4건의 활동을 게재함. 기관 소식지를 통해 2023년간 2회 활동 기록을 실어 발행함.</li> <li>- 2022년에 이어, 서면 소식지 내 홈페이지 활동 기록을 연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접속률을 높인 기관 홍보 전략으로 더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li> <li>- 중등 2학년 그룹으로 월드비전 주관 제5회 HO!국토대장정에 참여하며 해당 내용을 관련하여 가정, 학교, 학원, 종교 등 구두/문자를 통해 본 프로그램 활동을 알리고 아이들이 격려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여 소속감을 고취함.</li> <li>-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동을 통한 주요 활동 소개로 인해 별도의 카드뉴스는 발행하지 않았음.</li> </ul>
전문인력	강사	- 부모교육 강사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보호자 자조모임 및 상반기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사춘기 자녀 양육'과 '소통과 대화'에 관심이 많음을 확인하여 본 비폭력대화 교육으로 강의 주제를 모색 후 직전 보호자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을 확정함.</li> <li>- 사전 교육 필요성으로 여러 교육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이나 정보는 다양하고 많지만,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피드백이 다수 있었음. 본 교육 진행 시 해당 참여자 의견을 전달하여 교육 시간 중 코칭 시간을 마련함.</li> <li>- 일방적 교육 주입뿐만 아니라 1:1, 1:2 대화를 통해 최근 고민, 관심사, 상호 피드백을 겸하며 참여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공유함. 강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참여자 서로의 생각과 조언, 격려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음.</li> <li>- 비폭력 대화 방식의 골자인 관찰-느낌-욕구-부탁의 과정을 나누어 각 1시간가량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되었음. 그 결과 '아이랑 소통, 대화, 공감, 관찰, 느낌, Need, Request, NVC'를 알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춘기 아이들 양육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일정이 많아짐에 따라 전략적인 대화 방법의 필요성이 높았음. 이에 본 강의를 통해 자녀에게 요구하는 통보식 대화 방식을 벗어나 자녀와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을 습득할 수 있었음. 부모교육에 도움이 된 부분으로 “모든 교육 내용이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있었음. 다음 교육 희망 주제로 ‘부모님 경제교육’, ‘대화 주제로 이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가 있었음.</li> <li>- 참여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교육의 주제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문에 5점(5점 만점)을 보임. ‘교육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질문에 5점(5점 만점)을 보임. ‘교육시간은 어떠했나요?’ 질문에 4점(5점 만점)을 보임. ‘교육장소는 어떠했나요?’ 질문에 4점(5점 만점)을 보임. ‘교육강사는 어떠했나요?’ 질문에 4점(5점 만점)을 보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강의임을 확인함.</li> </ul>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슈퍼비전 및 월드비전 협력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별 사례관리 담당자 간담회(분기별 연 3회)를 통해 프로그램 전체 진행상황 및 월드비전 본부와 진행되는 교육 정보, 진행 흐름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었음. 시기별 월드비전 필수 모니터링 진행 계획 및 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었음.</li> <li>- 분기별 기관 사업 평가를 통해 자원 동원, 사업 추진, 참여 가정의 효과적인 변화에 관하여 논함. 중학교 2학년 그룹이 되며 본격적인 중간·기말 고사가 시작되어 참여 아동 전반적으로 학업에 관한 고민과 참여율 저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에 프로그램 진행 횟수 증가, 요일 변경, 시간대 변경 등 더욱 유동적인 활동 진행으로 변경하여 참여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li> </ul>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MS를 통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부터 ‘꿈 멘토 자원봉사자’를 선발, 아동과 담당자 사이에서 보다 아동에게 친밀감 있는 연결 체제를 마련하여 2023년 4기 꿈 멘토를 작년 대비 1명 증원하여 4명 모집하였음. 대면활동 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친밀감 증진을 위해 꿈 멘토 1인당 2~3명의 아동을 배정하여 연간 활동 소그룹을 구성하였음.</li> <li>- 아동그룹활동(자아탐색 프로그램, 비전원정대)활동뿐만 아니라 일부 보호자 활동에도 참여하며 보조 진행 외 참여 아이들, 부모님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음. 활동을 통한 친밀감 형성, 정보습득으로 아이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아동 꿈 리더 회의(2회)에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을 위한 활동 계획·추진에 힘을 보탬.</li> </ul>
자원연계	현금/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드비전, 기관 수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꿈지원금 외 사례관리 영역에서 선물금(4건/35만원), 잔여사업비분 아동지급액(5건/172만원), 추석명절지원금(12건/360만원), 동계학습비(12건/360만원)은 월드비전본부에서 아동 꿈지원금 통장을 통해 직접 입금함.</li> <li>- 기관 자원연계를 통해 아동·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기관 수시지원 물품(샴푸, 린스 등 생필품), 김장김치 지원 등 월드비전 참여로 인한 현금성 지원 외 현물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 수시지원 연계로 공백을 보완하여 진행함.</li> </ul>

	기타 기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NVC 비폭력대화 교육원, 직업소개동아리 '하랑', 연세대학교, 유관중학교 지역복지전문가, 프로그램 협력기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접수로 접하게 된 직업소개동아리 '하랑' 연계로 다양한 전문직업군을 참여 아동에게 매칭, 진로직업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었음.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한국NVC비폭력 대화교육원과 연계하여 전문강사 파견, 보호자들의 욕구인 '청소년기 아동 소통'에 대하여 1:1 대화 코칭을 진행할 수 있었음. 국토대장정을 위한 준비로 보호자들의 아동 선물 준비로 지역사회 소미경 한복전문점에 굿즈 제작을 의뢰함. 과정에서 의뢰한 물품 외에 아이들의 안전 귀환을 담아 노리개를 선물로 더해주시기도 함. 대학탐방처로 연세대학교 정기견학을 신청, 무료로 대학 견학을 진행하였음.</li> <li>- 참여자 중 지방 이사로 인해 1명(조*린),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최*락)이 종결하게 되었음. 종결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신규 참여자 모집 관련 관할 동 유관학교 지역복지전문가에게 전화 방문하였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2가정, 내부 사례 1사정이 추천·발굴되어 면접을 통해 신규 참여자로 선정하였음(김*연, 김*성, 추*솔). 특히 김*성 아동의 경우 기존 11명 정원이 꽉 찬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 추천(증원 요청)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월드비전 동부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정원 외 추가로 증원된 아동임.</li> <li>- 종결(2명) 및 신규 발굴(3명)로 결원 충원을 150%달성함.</li> </ul>
--	---------	---	--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며 학업에 관한 학원 일정이 대폭 증가하며 아동·보호자 참여도가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 관련하여 기관 내부 논의를 통해 주요 필수 활동은 방학 중 평일을 통해 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계획은 상·하반기 가정 간담회(필수 방문 상담 진행), 그 밖의 모니터링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함. 참여 가정의 바빠진 일정을 고려하여 면담 일정이 쉽지 않으므로 가정과 담당 사례관리 실무자의 협의 조율이 더욱 중요해졌음.</li> <li>- 프로그램 진행 전체 일정과 관련하여 연초 아동·보호자 각 총회를 진행하며 연간 일정을 수립하였음. 예정된 일정 대비 공휴일과 연휴, 기관 상황과 가정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반영하다 보니 계획된 일정과 다소 차이가 발행하였음. 특히 중학교 2학년 그룹 국토대장정 건이 예상 대비 일찍 진행되며 6월 이후 활동이 1개월 정도 미뤄지는 경우가 발행함. 아이들 마다 전문 레슨, 대회 출전, 주말 보강 학습이 잦아지며 일정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확인함. 이에 차년도 사업 진행에서는 연간 일정을 공유하되 3~6개월 단위 활동 평가를 도입하여, 향후 활동에 관한 피드백과 참여도 증진을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자 함.</li> </ul>
프로그램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 아동, 보호자 총회를 통해 과년도 결과보고 및 당해연도 활동 계획을 진행하고 연말 아동 꿈발표회를 통해 2023년도 활동 내용을 결과보고함. 사업 시작 당시 모습부터 2023년까지 함께 참여한 활동을 두루 살펴보며 프로젝트 참여 의미를 다지고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음. 작년 이어 비전원정대 '꿈 리더' 기획 아동을 지속하였으나 참여 아동의</li> </ul>

	<p>일정이 빠듯하고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당초 기획 대비 완수율이 낮았음. 보호자 자조모임은 임원진을 중심으로 보호자 활동 및 프로그램 총괄 활동의 방향을 점검해 나갔음. 실질적인 계획부터 실천에 있어 참여자의 목소리와 역할을 키워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향후 아동과 보호자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더욱 필요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기 꿈 멘토 평가를 바탕으로 진로직업소개 동아리 '하랑'과 꿈 메토의 역할이 중첩되는 의견이 있었음. 꿈 멘토는 참여 아동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경로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피드백도 확인함. 차 연도 활동 시 꿈 멘토와 전문 직업 멘토링단의 역할을 분리하고, 꿈 멘토가 아동의 외부 정기활동을 함께 계획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함.</li> <li>- 2022년에 이어 보호자 자조모임 생일 파티를 지속하였음. 연초까지는 생일 파티 준비 및 진행이 원활하였으나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담당자 주관의 생일파티가 이뤄지는 모습이 되었음. 관련하여 보호자 생일파티 지속을 차년도 총회에서 논의하여 여부에 부치도록 하고 보호자 자조모임 참여도 고취를 위한 다른 대안을 함께 준비하면 좋겠음.</li> <li>- 기존 가족특별활동(캠프)을 아동·보호자 논의를 통해 당일 나들이로 변경하였음. 아이들의 학업 일정이 증가함과 동시에 학원을 빼고 캠프를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등, 변수가 많이 발생하였음. 1박 2일 캠프 진행에 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는 가정도 있었으나 오히려 예산을 아끼고 압축적으로 친밀감 증진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나들이가 더 용이했다는 평이 있어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24년도 특별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음.</li> </ul>
<p>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연초 보호자·아동 총회를 진행, 비전원정대 활동 기획 아동 '꿈 리더' 선출 등을 진행함. 아동 꿈 리더 활동으로 연중 외부 기관 견학 방문 주제로 '노원수학 박물관' 견학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연세대학교 탐방을 아이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계획·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다만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꿈 멘토가 함께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 프로그램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완성도도 높이고자 하였음. 회의에 참여한 아동·꿈 멘토 피드백으로 "새로운 선생님들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어색해하지 않고 훨씬 빠른 일정을 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았다", "회의가 빨리 끝나서 신기하다. 저희(꿈 멘토)가 찾는 것보다 리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회의부터는 사전에 이야기 나눌 것들을 미리 공유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면 풍성해질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음.</li> <li>- 연초 보호자 자조모임 총회를 통해 2023년도 신규 임원진을 투표·선출하였음. 임원 회의를 통해 월별 보호자 생일 축하를 지속하고 6월에 예정된 국토대장정과 관련하여 아이들 응원을 준비·도모하는데 합의하여 연간 모임을 추진함. 생일 선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하였고 총무가 생일 편지 전달, 회장이 축하 자리 독려로 역할을 구분함. 그 외 임원진 식사 모임을 추진하며 작년도 임원을 '고문'으로 초빙하여 관계망이 끊어지지 않도록함.</li> </ul>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월드비전 파트너십 사업 재계약 및 4년 차 기관으로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이 두터워지고 있음. 학년이 올라가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각 꿈에 다양하게 접근하는 모습들이 점차 드러나는 아동도 보임. 정규 활동인 자아탐색 프로그램, 비전원정대 등을 통해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활동의 방향과 목적을 설계하고 꿈 멘토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였음. 진로직업소개 동아리 '하랑'과 실제 직업인으로서 삶과 미래에 관하여 탐구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음.</li> <li>- 연중 진행한 국토대장정으로 참여 아이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자기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추억을 심을 수 있었음. 코로나19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득이 일부 아동만 참여하여 참여·미참여 아동이 나뉘었으나 국토대장정을 준비하며 모두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이들의 학년이 올라가며 점차 일정 조율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연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유대감과 연대 의식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하겠음.</li> <li>- 가족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나들이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아이들과 가정, 협력하여 돕는 꿈 멘토 봉사자가 더욱 공고히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면 좋겠음. 당일치기 활동도 높은 만족도가 있으나 그 과정에 아이들과 부모님이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거들고자 함.</li> <li>- 2024년도 5년차 활동으로 굳혀지며, 프로그램 총괄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가정 담당 사례관리자들도 본 활동을 매개로 가정을 만나는 상황임. 당해연도만 참여하는 단기성 프로그램보다 장기적으로 참여하며 아동, 가정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 사례관리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매개로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는 사례관리 실무자 평가가 있음. 2024년도에는 참여 아동평가를 도입하여 실무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프로그램 참여에 더욱 의미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ul>
----	--

## 사진 활동 자료



자아탐색 프로그램 - 진로설계와 권리습관



비전원정대 - 아동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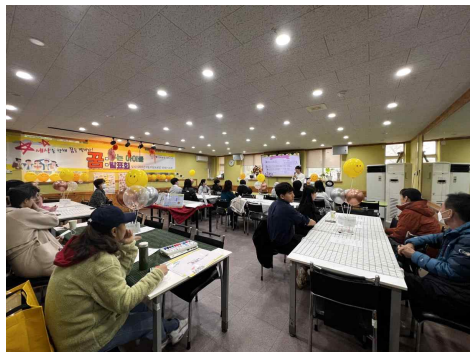
비전원정대 - 노원 수학문화관 탐방



비전원정대 - 진로·직업 컨설팅



비전원정대 - 연세대학교 견학



비전원정대 - 꿈 발표회

사진 활동 자료



보호자 자조모임 - 부모 총회



보호자 자조모임 - 임원 모임



보호자 자조모임 - 국토대장정 준비 모임



부모교육 - NVC 비폭력 대화 교육 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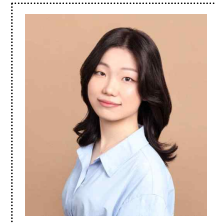


가족특별활동 - 파주 임진각



가족특별활동 - 파주 헤이리마을

◆ 사 업 명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 '해(儻)바라기



복지2팀 박민아 주임

목 적	가정 및 또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긍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움	
사업기간	사 업 비	지 원 처
2023년 5월 ~ 2023년 12월	40,013,085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사업의 필요성

가. 친밀한 가족관계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취감을 통해 스스로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가족은 구성원의 양육, 보호, 사회화, 정서적 발달은 물론 인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은 가족관계를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해나가기 때문에 가족이 기능을 잘하고 구성원 간 관계가 친밀할수록 아동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윤찬정, 2019). 가족기능이란, 육체적 생존을 안전하게 하는 기능과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적 결속을 통해 가족 개개인의 자아개념 형성과 자아 의식, 사회적 책임감 및 학습 등이 발달하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가족만의 문화나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가족은 아동이 경험하는 첫 번째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대인관계 태도를 습득하는 장이고 부모, 형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지각하고 성숙해갈 수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알아가고, 긍정적 소통이 확대되어 친밀한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나.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마음이며,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

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정서적인 확신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지식, 기술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급변하는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완고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으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아동들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성격적 특성이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학업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성취도가 높고 지적적으로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인지적 능력을 더 잘 활용한다.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잘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하여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우울과 같은 부적응 양상이 나타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학습되어질 수 있다는 우희정(1993)의 연구에서처럼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신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외 연구들에서는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로 낙천성, 장래성,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노은영, 2015).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교류되는 상태일 때, 자녀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며 부모를 신뢰하고 개방적으로 되어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가정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교류가 차단된 경우에는 자녀가 심리적으로 불편함과 혼란을 겪고 학교에서나 가정 밖의 사회 환경에서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이나 교류를 잘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김미경, 2018).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내 의사소통 교육 및 양육나눔의 기회를 마련하고, 가정의 욕구를 파악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고자 한다.

#### **다. 긍정적 또래 관계가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또래 관계란 비슷한 수준의 연령, 성별, 학년에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며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또래 관계 기술은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긍정적 관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아동들에게 소속감을 주며, 인지와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정선아, 2018). 다문화 아동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친구들과 다른 외모로 놀림과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며 놀이시간에 혼자 놀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울증이나 공격성과 같은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다문화 아동에게 문제해결 절차를 훈련하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심리 교육하고, 집단 토론, 역할 놀이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Shin,Ki.,&Oh, 2016). 이에 따라 아동들이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 경험 및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중합심리평가와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라.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은 크게 언어와 문화적 적응 문제, 경제생활, 자녀 양육과 교육, 친척·이웃과의 관계 및 편견으로 나타난다. 언어의 차이와 기후, 음식, 예절, 풍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문화적 차이의 적응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며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의 관습과 문화로 인한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며느리의 업무 과중, 시부모의 간섭 등은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들이다(이 두진, 2017). 또한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자녀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업부진 및 중퇴, 가치관 혼란,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어려움 등을 경험하면서 그들만의 또래 관계가 형성되거나 외형적인 모습에서 오는 거리감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주희영, 2012).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남윤주 외(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일반가족 자녀보다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였다. 유봉애 외(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원의 지지가 자녀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관계증진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마. 경험적 근거**

본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이루어진 심리상담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참여 가정별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은 1~2년 차에 참여가정 부모(부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고, 3~5년 차에는 친밀한 부부관계 및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와 자녀 양육방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녀들은 1~4년 차에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또래관계 형성 기술 및 긍정적 의사소통방식을 습득하였고, 5년 차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 방식을 도입해 자녀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아동별 개별상담, 가족요리활동 등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는 부모-자녀 간 협동심과 친밀한 소통의 경험을 확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밖에 SNS에서 참여자 간 소감 및 피드백을 주고받는 공유의 장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매년 말 평가회를 통해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차기년도 프로그램이 기획,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 캠핑, 농촌체험과 같은 가족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작년 처음 진행된 아동 독서활동모임은 각 가정별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1:1 한글 멘토링 및 여름방학 기간 4회기 소그룹 독서활동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체육대회 역시 가족 간의 협동을 도모하고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가족기능강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서울시 내 다문화가정 중 초·중·고 학생 수	19,195
위기대상	서울시 내 다문화가정 중 초등학교 학생 수	13,093
표적대상	중랑구 내 다문화가정 중 초등학교 학생 수	592
클라이언트수	표적대상 중 본 사업 참여희망 초등학교생	20명(15가정)

\* 2022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통계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 및 또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긍정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움	네트워크 강화	■ 사업홍보 및 참여자 추천 협조 요청	10명/3회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강화
		■ 실무자 방문상담	4명/2회	
	맞춤형 지원	■ 학습지 및 학원비 지원	15명/8회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학습 능력 및 심리·정서 발달 향상
		■ 아동종합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5명/15회	
		■ 1:1 국어학습 멘토링	5명/12회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 상담 및 자원연계	15명/수시	가족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친밀한 가족관계 및 참여자 간 지지관계 형성
		■ 부모 활동	20명/4회	
		■ 자녀 활동	20명/4회	
			■ 가족 활동	40명/7회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목표	프로그램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효과적 지원을 위 한 유관 기관 협력 관계 강화	네트워크 강화	- 대상: 본 사업 협력기관 및 실무자 - 방법: 협력기관 방문 또는 공문발송 - 내용: 사업홍보, 참여자 추천 협조요청	2~5월	박민아 주임, 협력기관 실무자	21명	3회
		- 대상: 본 사업 협력기관 실무자 - 방법: 방문 상담, 회의 - 내용: 참여자 관찰 결과 공유 및 사례 지원 논의	6~12월	박민아 주임, 협력기관 실무자	9명	7회
통합 복지 서비스 지 원을 통한 학습능력 및 심리정서 발달 향상	맞춤형 지원	- 대상: 본 사업 참여아동 - 방법: 학습지 및 학원 수강료 지원 - 내용: 개별 학습처 담당교사를 통한 모니터링, 학습수행능력 평가	6~12월	박민아 주임, 보조인력, 학습처 담당교사	15명	7회
		- 대상: 본 사업 참여아동 - 방법: 심리상담 전문기관 의뢰 - 내용: 아동 심리상태 점검, 가족관계 역동 파악 등	8~11월	박민아 주임, 협력기관 담당자	9명	84회
		- 대상: 본 사업 참여아동 중 5명 - 방법: 1:1 멘토링, 소그룹 프로그램 - 내용: 아동별 흥미에 따른 국어학습 지원, 멘토-멘티 야외활동, 소그룹 독후활동 프 로그램	3~12월	박민아 주임, 보조인력, 멘토, 강사	7명	66회
		- 대상: 본 사업 참여아동 가정 - 방법: 정기상담, 수시물품 지원 - 내용: 욕구파악, 자원연계, 임파워먼트	5~12월	박민아 주임	15명	25회

가족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친밀한 가족관계 및 참여자 간 지지관계 형성	가족 기능 강화 프로 그램	부모 활동	- 대상: 본 사업 참여가정 부모 - 방법: 전문강사 강의 및 적용, 나눔 - 내용: 가족 내 의사소통 관련 교육, 양육 나눔	9~10월	박민아 주임, 전문강사	19명	4회
		자녀 활동	- 대상: 본 사업 참여가정 아동 - 방법: 전체 및 그룹별 놀이활동 - 내용: 배려·존중·협동이 있는 놀이활동 계획, 진행, 소감 나눔	9~10월	박민아 주임,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25명	4회
		가족 활동	- 대상: 본 사업 참여가정 부모/자녀 - 방법: 가정별 또는 전체 모임 진행 - 내용: 오리엔테이션, 외부 나들이, 가족 캠프, 참여자 재능나눔활동, 가족체육대회, 송년모임	6~12월	박민아 주임,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47명	8회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시기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강화	- 네트워크 활동 3회 달성	- 결과보고	- 활동일지 - 결과보고서	4~5월
	- 협력기관 상담 및 회의 2회 달성	- 내부기안	- 활동일지 - 결과보고서	8, 12월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및 심리·정서 발달 향상	- 학습지원 참여자 60% 이상 학습수행 능력 '향상' 달성	- 학습처 담당교사 - 평가지	- 해당 기관 결과지 수령	12월
	- 아동종합심리평가/심리상담: 참여자 5점 만족도(상담 기관, 어려움 해결 정도 등) 평균 4점 이상 달성	- 결과보고 - 내부기안	- 만족도 설문 - 상담 기록지	12월
	- 1:1 국어학습 멘토링 멘티 5점 만족도(맞춤법, 표현력 등) 평균 4점 이상 달성, 참여자 60% 이상 국어학습능력 '향상'	- 결과보고 - 내부기안	- 활동일지 - 참여자 설문 조사 - 멘토평가서	12월
	- 상담 및 자원연계 5점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달성	- 상담기록지	- 참여자 설문 조사	12월

가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친밀한 가족관계 및 참여자 간 지지관계 형성	- 부모활동 5점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달성 - 참여자 60% 이상 양육효능감 '향상' 달성	- 만족도조사 - 척도검사	- 활동일지 - 설문조사 - 결과보고서	5월, 7월, 12월
	- 자녀활동 5점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달성 - 아동 60% 이상 자아탄력성 '향상' 달성	- 만족도조사 - 척도검사	- 활동일지 - 설문조사 - 결과보고서	5월, 7월, 12월
	- 가족활동 5점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달성 - 가족 및 참여자 간 관계망 평가	- 만족도조사 - 결과기안	- 설문조사 - 결과보고서	12월

#### 다. 담당인력구성

번호	이름	직위	담당역할
1	김영미	관장	사업기획 및 운영 총괄, 슈퍼바이징, 유관기관 소통 등 대외업무
2	김영례	부장	사업기획 및 운영 총괄, 슈퍼바이징, 유관기관 소통 등 대외업무
3	최영주	과장	사업기획 및 운영 슈퍼바이징
4	박민아	주임	사업기획 및 운영 실무 담당, 프로젝트 총괄 및 현장 관리


#### 라. 사업 일정

내용/기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네트 워크 강화	참여자 모집 및 홍보													
	네트워크 회의													
맞춤형 지원	학습지원													
	종합심리평가 및 심리 상담													
	1:1 국어학습 멘토링													
	사례관리 서비스													
가족 기능 강화PG	부모 활동													
	교육/나눔													
	자녀 활동													
	놀이활동													
	가족 활동	외부나들이												
		가족캠핑												
가족체육대회														
가족체육대회														
	참여재능나눔													
	O.T 및 송년모임													

## 5. 프로그램 평가

###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강화	- 네트워크 활동 3회 달성	- 2월 사업 공유 및 협업 논의를 위한 중랑구가족센터 방문, 4월 기관 학교협력사업설명회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추천 요청, 5월 유관기관 19곳에 참여자 추천 협조 공문 발송하며 네트워크 활동 3회 달성함. 이후에도 협력관계 유지하며 소통하였음.
	- 협력기관 상담 및 회의 2회 달성	- 상·하반기 참여아동 관찰사항을 10월 12곳, 24' 1월 10곳 총 2회 공문 발송함. 참여아동 관찰내용 공유를 계기로 올해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새롭게 배치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중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있음을 파악하게 됨. 이후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가정방문과 초기상담이 이루어졌고,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심리상담을 받던 아동이 학교 지원으로 상담을 차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었음. 본 프로그램에서는 졸업하나 학교 교육복지실과 연결되어 한부모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강서구로 이사 간 가정의 경우, 해당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점 감안하여 재학 초등학교에 사례 의뢰함. 참여아동은 6학년으로 졸업하나 동생이 1학년으로 입학 예정이라서 한부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끔 도움. 복지관 인근 주요 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몽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향도 논의함. 이와 같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함. - 사례지원 논의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를 8~12월 중 총 5회 진행함. 아동종합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의뢰한 컨소시엄 기관 자광아동가정상담원과는 아동별 상담사를 직접 만나 프로그램 내에서 관찰된 아동의 특성을 공유하고 놀이치료 개입 이후 아동의 변화, 향후 사업 진행 시 또는 가정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얻음. 언어 및 말 평가 추가 진행, 양육코칭 연계, 치료실 및 복지관 외 다른 현장(학교, 학원, 가정)에서의 모습 공유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원활히 협력할 수 있었음.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및 심리·정서 발달 향상	- 학습지원 참여자 60% 이상 학습수행능력 '향상' 달성	- 여름방학 모 고향 방문 등 개인사정이 있었던 2가정은 6회, 나머지 13가정은 7회 학습비를 지원함. 학습비 지원을 구실로 총 16곳의 학원·학습지 지원처 교사들과 참여아동 15명의 학습현황에 대해 소통함. 총 15명의 아동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정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원 전후 학업성취 점수를 0~100점 사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꾸준한 학습비 지원으로 참여아동 전원 학습수행능력 '향상'을 이룸. 50% 이상의 아동이 지원 전후 50점 이상 점수 향상을 보임. 다양한 정서적 경험과 승급심사 통과, 자신감 회복, 또래와의 협력적인 관계 맺기 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긍정 평가가 있었음. 경제적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p>못하다가 본 사업 학습지원을 계기로 처음 학원에 다니는 아동들도 있는데 새로운 경험 제공,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장 마련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p>																					
<p>- 아동종합심리평가/심리상담: 참여자 5점 만족도(상담 기관, 어려움 해결 정도 등) 평균 4점 이상 달성</p>	 <table border="1" data-bbox="569 382 1118 685"> <thead> <tr> <th>Category</th> <th>Count</th> <th>Percentage</th> </tr> </thead> <tbody> <tr> <td>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td> <td>3</td> <td>33.3%</td> </tr> <tr> <td>자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td> <td>6</td> <td>66.7%</td> </tr> <tr> <td>양육자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td> <td>2</td> <td>22.2%</td> </tr> <tr> <td>양육에 대한 정보, 기술을 배웠다.</td> <td>3</td> <td>33.3%</td> </tr> <tr> <td>필수 공공하거나 고민되었던 점이 해소되었다.</td> <td>1</td> <td>11.1%</td> </tr> <tr> <td>지역 내 기관 및 관련 사업들 사용하게 알게 되었다.</td> <td>1</td> <td>11.1%</td> </tr> </tbody> </table> <p>- 총 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 이어 재개입이 필요한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아동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 필요 정도에 맞춰 10~16회기의 심리상담이 진행함. 대인관계 내 불안과 긴장,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인식, 감정 조절, 힘의 욕구 발산 및 표현, 타인 조망 수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개입 등 아동별 개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짐.</p> <p>- 설문 결과, 내가 경험한 서비스(아동종합심리평가 또는 심리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8점, 의뢰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8점을 달성함. 서비스를 경험한 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정보 및 기술 습득 등이 뒤이었음.</p> <p>- 아동종합심리평가 결과를 통해 양육자는 자녀들의 학습능력, 인지능력, 사회성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의 해석상담 및 추가 양육코칭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음. 또한 양육자 본인의 심리적 외상, 양육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p>	Category	Count	Percentage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	3	33.3%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6	66.7%	양육자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2	22.2%	양육에 대한 정보, 기술을 배웠다.	3	33.3%	필수 공공하거나 고민되었던 점이 해소되었다.	1	11.1%	지역 내 기관 및 관련 사업들 사용하게 알게 되었다.	1	11.1%
Category	Count	Percentage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	3	33.3%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6	66.7%																				
양육자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2	22.2%																				
양육에 대한 정보, 기술을 배웠다.	3	33.3%																				
필수 공공하거나 고민되었던 점이 해소되었다.	1	11.1%																				
지역 내 기관 및 관련 사업들 사용하게 알게 되었다.	1	11.1%																				
<p>- 1:1 국어학습멘토링 멘티 5점 만족도(맞춤법, 표현력 등) 평균 4점 이상 달성, 참여자 60% 이상 국어학습능력 '향상'</p>	<p>- 멘티 가정 만족도 설문 결과, 참여아동의 국어 능력 향상(어휘 습득, 자기표현 향상, 읽기 능력 강화 등)과 멘토의 정서적 지지 제공 측면에서 5점 만점에 평균 5점의 만족도 달성함.</p> <p>- 참여아동 100% 전원 국어학습능력 '향상' 달성함. 멘토 평가 결과 상반기 멘토링 후 멘티의 맞춤법 실력은 평균 6점에서 평균 7.5점으로, 한국어 표현 실력은 평균 6.5점에서 평균 7.5점으로 향상되었음. 하반기에는 멘티의 맞춤법 실력이 평균 6점에서 평균 8점으로, 한국어 표현 실력은 평균 7.5점에서 평균 8.5점으로 향상되었음. 멘티 아동과 라포가 잘 형성되어 회기별로 멘티의 욕구 및 선호를 반영한 국어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멘토와 멘티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 속에서 익힐 수 있는 언어표현, 정서적 반응 등을 연습할 수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및 자원 연계 5점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복지관 자원연계서비스에 대하여 모두 평균 5점 만점의 만족도를 달성함. 가정 변화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사항을 기록하며 가정 지원하였으며, 욕구에 따른 후원금·품을 총 48회 연계함.</li> </ul>																																																															
<p>가족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친밀한 가족관계 및 참여자 간 지지관계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활동 5점 만족도 평균 4점 이상 달성</li> <li>- 참여자 60% 이상 양육효능감 '향상' 달성</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부모 양육효능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류*</th> <th>조*아</th> <th>박**</th> <th>나*거</th> <th>김*연</th> <th>홍*</th> <th>차*</th> <th>김*</th> <th>김*영</th> <th>김*영**</th> <th>조*연</th> <th>소*호</th> <th>이*호***</th> <th>주*민</th> <th>박*수</th> <th>김*수</th> <th>김*우</th> <th>이*민</th> <th>김*수</th> <th>정*우**</th> </tr> </thead> <tbody> <tr> <td>■사전</td> <td>51</td> <td>43</td> <td>61</td> <td>51</td> <td>62</td> <td>59</td> <td>55</td> <td>63</td> <td>57</td> <td>70</td> <td>60</td> <td>50</td> <td>65</td> <td>54</td> <td>56</td> <td>46</td> <td>56</td> <td>57</td> <td>50</td> <td>51</td> </tr> <tr> <td>■사후</td> <td>72</td> <td>46</td> <td>50</td> <td>62</td> <td>70</td> <td>76</td> <td>51</td> <td>57</td> <td>67</td> <td>66</td> <td>57</td> <td>48</td> <td>63</td> <td>62</td> <td>65</td> <td>47</td> <td>57</td> <td>51</td> <td>63</td> <td>63</td> </tr> </tbody>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사전·사후척도검사를 진행함. 사전 사후 비교 결과, 응답자 20명 중 9명(45.0%)이 부모 양육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7명(35.0%)이 1~4점 차이로 '유지', 4명(20.0%)이 '저하'로 나타났음.</li> <li>- 작년 아내와 사별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류*님의 양육효능감 향상 정도가 21점으로 가장 컸으며, 긍정적인 변화 이후 3년 기참여로 졸업하게 되어 의미 있는 결과였음. 자녀가 6학년으로 내년 중학교 진학하게 되어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된 2년 차 임*님과 1년 차 김*수님, 정*우**님도 각각 17점, 13점, 12점 향상됨. 특히 김*수님과 정*우**님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 폭이 컸으며 부모교육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임. 또한 작년 남편과 사별하고 심리적 어려움 있었던 나*거님도 당시 양육효능감 저하되었다가 올해 11점 향상되어 졸업함.</li> <li>-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온 경우는 주로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자녀 심리상담이 연계되었던 가정이었음. 그 밖에 자녀 사춘기 돌입, 양육자 건강상태 저하 등의 이슈가 척도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가정에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음.</li> <li>- 교육 주제(내용), 강사, 교육 준비 등에 5점 만점에 평균 5점 만족 달성함. 부모교육을 통해 내 자녀의 특성을 먼저 알고 못한 것보다 잘한 것 칭찬하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역할 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자녀와의 거리가 좁혀졌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다.', '아이와 협의할 수 있다' 등 양육자들이 체감한 교육의 효과를 보고함.</li> </ul>		류*	조*아	박**	나*거	김*연	홍*	차*	김*	김*영	김*영**	조*연	소*호	이*호***	주*민	박*수	김*수	김*우	이*민	김*수	정*우**	■사전	51	43	61	51	62	59	55	63	57	70	60	50	65	54	56	46	56	57	50	51	■사후	72	46	50	62	70	76	51	57	67	66	57	48	63	62	65	47	57	51	63	63
	류*	조*아	박**	나*거	김*연	홍*	차*	김*	김*영	김*영**	조*연	소*호	이*호***	주*민	박*수	김*수	김*우	이*민	김*수	정*우**																																													
■사전	51	43	61	51	62	59	55	63	57	70	60	50	65	54	56	46	56	57	50	51																																													
■사후	72	46	50	62	70	76	51	57	67	66	57	48	63	62	65	47	57	51	63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활동 5점 만족도 평균 4 점 이상 달성</li> <li>- 아동 60% 이상 자아탄력성 '향상' 달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 자아탄력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head> <tr> <th>아이명</th> <th>사전</th> <th>사후</th> </tr> </thead> <tbody> <tr><td>류*은</td><td>112</td><td>128</td></tr> <tr><td>김*정</td><td>88</td><td>85</td></tr> <tr><td>김*영</td><td>106</td><td>123</td></tr> <tr><td>김*아</td><td>88</td><td>87</td></tr> <tr><td>김*정</td><td>113</td><td>102</td></tr> <tr><td>신*진</td><td>131</td><td>128</td></tr> <tr><td>신*성</td><td>132</td><td>131</td></tr> <tr><td>황*우</td><td>117</td><td>118</td></tr> <tr><td>황*</td><td>124</td><td>119</td></tr> <tr><td>박*민</td><td>115</td><td>121</td></tr> <tr><td>김*정</td><td>138</td><td>125</td></tr> <tr><td>김*정</td><td>118</td><td>104</td></tr> <tr><td>박*진</td><td>107</td><td>97</td></tr> <tr><td>조*정</td><td>102</td><td>101</td></tr> <tr><td>조*</td><td>102</td><td>108</td></tr> <tr><td>김*현</td><td>91</td><td>134</td></tr> <tr><td>박*진</td><td>100</td><td>99</td></tr> <tr><td>박*진</td><td>101</td><td>108</td></tr> <tr><td>박*진</td><td>101</td><td>96</td></tr> <tr><td>김*나</td><td>110</td><td>106</td></tr> <tr><td>황*서</td><td>113</td><td>105</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사전·사후척도검사를 진행함. 사전 사후 비교 결과, 응답자 21명 중 7명(33.3%)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6명(28.6%)이 1~4점 차이로 '유지', 8명(38.1%)이 '저하'로 나타났음.</li> <li>- 자아탄력성이 향상된 아동은 가정 또는 학교생활이 이전보다 안정되는 환경의 변화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임. 2~3년 차 참여아동 뿐만 아니라 1년 차 참여아동, 특히 심리상담이 연계되었던 김*현 아동이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영역에서 10점 이상 큰 폭으로 향상됨. 유지 및 저하된 아동 중에는 주로 사춘기를 겪는 고학년이 많았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대인관계 및 호기심은 향상되었으나 낙관성, 감정통제, 활력성 부분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음.</li> <li>- 참여아동 설문 결과 아동놀이활동 만족도는 평균 4.75점 달성함.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구 등 놀이를 선정하고 심판, 해바라기 도우미 등 역할 부여, 스티커판 운영, 고마워카드 전달 및 발표, 간식 순서 정하기 등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던 결과라고 사료됨.</li> </ul>	아이명	사전	사후	류*은	112	128	김*정	88	85	김*영	106	123	김*아	88	87	김*정	113	102	신*진	131	128	신*성	132	131	황*우	117	118	황*	124	119	박*민	115	121	김*정	138	125	김*정	118	104	박*진	107	97	조*정	102	101	조*	102	108	김*현	91	134	박*진	100	99	박*진	101	108	박*진	101	96	김*나	110	106	황*서	113	105
아이명	사전	사후																																																																		
류*은	112	128																																																																		
김*정	88	85																																																																		
김*영	106	123																																																																		
김*아	88	87																																																																		
김*정	113	102																																																																		
신*진	131	128																																																																		
신*성	132	131																																																																		
황*우	117	118																																																																		
황*	124	119																																																																		
박*민	115	121																																																																		
김*정	138	125																																																																		
김*정	118	104																																																																		
박*진	107	97																																																																		
조*정	102	101																																																																		
조*	102	108																																																																		
김*현	91	134																																																																		
박*진	100	99																																																																		
박*진	101	108																																																																		
박*진	101	96																																																																		
김*나	110	106																																																																		
황*서	113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활동 5점 만족도 평균 4 점 이상 달성</li> <li>- 가족 및 참여자 간 관계망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활동 만족도 설문 결과, 가족 외부나들이-봉화산 숲체험 4.97점, 가족 외부나들이-서울중로여행 5점, 참여자 부스운영 재능나눔활동 '해.파.리' 5점, 가족별 캠핑 나들이 4.94점, 가족체육대회 5점, 참여자 재능나눔활동 '해.쿠.클래스' 4.97점, 송년모임 4.98점 달성함.</li> <li>-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 때에는 실내공간에서 제한된 활동만 가능했다면, 2회기에는 봉화산 야외 나들이로 숲체험을 하면서 여러 양육자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었음. 특히 햇님밭줄놀이로 양육자들이 둥글게 원을 그려 밭줄을 잡고 아이들을 한 명씩 가운데에 앉혀 들어 올리는 활동을 통해 내 아이, 다른 가족 아이라는 구분 없이 모든 참여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음.</li> <li>- 서울중로여행은 가족들과 외부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중랑구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인 가족도 많아서 서울 시내를 돌아보는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감. 전통공예 체험을 하며 자녀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고 작품을 보며 칭찬하는 모습,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며 서로 돕거나 번역기를 사용해 서라도 아이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려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가족들과 정동길을 걸으며 기분 전환과 역사 공부</li> </ul>																																																																		

		<p>를 하며 돈독해짐. 또한 장소 이동 시에 유모차를 가지고 온 가족을 챙기며 양육자 간 공감과 지지가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부스운영 재능나눔활동 '해.파.리'는 세 가족이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재능나눔 주제를 정하고 기획부터 준비·진행·평가까지 이루어본 활동임. 재능을 나누는 인플루언서 가족은 각자의 강점을 뽐내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알려주는 경험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고 가족이 부스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었음. 네일아트, 키링 만들기 등을 함께 하면서 양육자 간 대화하며 친해지고, 아이들은 출넘기와 종이접기, 춤, 노래를 알려줬던 친구로 얼굴을 기억하며 알아갈 수 있었음.</li> <li>- 가족별 캠핑 나들이는 가족미션 수행을 통해 부모-자녀 간 관계를 돕고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음. 신규 참여가족을 포함하여 서로 잘 모르던 가족과 가족이 같은 일자에 캠핑을 떠나면서 오가는 경춘선 열차 이동, 바비큐 파티, 불멍, 마시멜로우 구워먹기, 캐치볼, 서로 마사지 해주기, 동갑내기 친구 찾기 등 역동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캠핑에서 맺어진 관계가 부모교육이나 체육대회, 송년모임 등 이후 진행된 회기에서 서로를 챙기고 안부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li> <li>- 가족체육대회는 부모님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놀며 가족이 하나가 되는 기회였음. 몸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활동이 일상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웃음꽃이 피고 체육대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에게 색다른 추억이 되었음. 화합을 잘 이루었던 MVP가족과 사랑가득상, 응원상 등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였음.</li> <li>- 참여자 재능나눔활동 '해.쿠.클래스'는 요리강사로 나선 가족이 직접 활동명을 짓고 앞치마, 위생 마스크, 기타 요리 도구 등을 챙겨와 두 가지 요리를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던 활동으로, 참여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요리를 해보며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활동이었음. 2022년 아내와 사별하고 요리가 서툴렀던 아버님이 참여자 재능나눔으로 진행되는 요리활동에서 다른 가족들의 조언과 응원으로 열심히 조리법을 배워 이제는 레시피만 보고도 아들과 함께 파스타를 만들 수 있게 된 변화도 있었음.</li> <li>- 송년모임에서는 마크라메 실로 오너먼트를 만드는 것이 다소 난이도가 높아 가족 간 협동이 요구되는 활동이었음. 가정으로 돌아가 크리스마스 리스를 완성하여 어두운 공간에서 라이트를 켜보는 점등 인증샷이 가족 간 대화의 소재가 되었음. 또한 연말 가족 케이크 만들기 미션에서 가족 별로 자유롭게 케익을 꾸미고 카드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며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고, 내년에 더 행복하게 지내자며 다짐하는 가족들이 많았음.</li> </ul>
--	--	---

## 나.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횟수)	평가결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 공문 발송 및 방문</li> <li>- 협력기관 실무자 참여자 추천 요청</li> <li>- 중앙구가족센터 사업홍보</li> <li>- 생각나무BB센터 및 중앙마을넷 사업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곳의 협력기관 실무자들에게 사업안내 및 참여자 추천 요청 공문을 5월 1회 발송함. 특히 기관 학교협력 사업설명회에서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협력을 공고히 다진 결과, 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가정을 추천받게 되었음. 이후 개별 접수상담을 통해 참여자 15가정 모집 완료할 수 있었음.</li> <li>- 유관기관으로부터 신규 참여자 추천 총 5건을 받았으며 이중 4가정이 본 프로그램 참여함. 기존 참여자의 연속 참여를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li> <li>- 2023년에는 생각나무BB센터에서 특별한 추천이 이루어지는 않았음. 기관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차원에서 중앙마을넷에 사업을 홍보할 수는 있겠으나, 집단프로그램 특성상 15가정 이상 진행이 어려운 점 있어서 대규모로 모인 곳에 홍보하지 않게 됨. 참여자 모집 외 다른 구실로 홍보할 수 있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게시</li> <li>- 카드뉴스 또는 소식지 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홈페이지에 참여자 모집 홍보지를 올리고,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총 11회 게시함.</li> <li>- 카드뉴스를 2회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채널, 페이스북에 홍보함. 하반기 소식지 93호에 참여자 재능나눔활동 내용을 담아 게재함.</li> </ul>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사소통 관련 부모 프로그램 강사</li> <li>- 1:1 국어학습 멘토링 소그룹 프로그램</li> <li>- 가족체육대회 진행 M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강사 1명, 아동 그림책 독후활동 프로그램 강사 1명, 레크레이션 MC 1명, 송년모임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체험 강사 1명으로 총 4명의 전문인력을 초빙함. 더욱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소시엄 기관 실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치료사와 상담심리사가 연계되어 아동의 특성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입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족활동 진행</li> <li>- 1:1 국어학습 멘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가 총 3명 모집되어 자녀놀이활동과 가족활동 시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였음. 봉사자 개인 일정으로 1명만 활동하는 회기도 있었음. 남녀를 섞어 4명이 모집되면 프로그램 진행도 수월하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음.</li> <li>- 1:1 국어학습 멘토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연계되어 장기간 진행됨. 정규 수업에서 요구하는 10회기 이후에도 활동해주어 멘티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관계 맺는 연습과 더불어 한글 맞춤법을 학습할 수 있었음.</li> </ul>

<p>자원연계</p>	<p>기타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지원 (학습처 /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li> <li>- 명절물품 또는 겨울철 김장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전문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학습지 지부 등 총 16곳의 학습처와 협력하며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습능력 향상 정도를 모니터링함.</li> <li>- 자광아동가정상담원과 협력하여 총 8명이 아동종합심리평가를 진행하고 총 6명이 개인별 특성과 개입 필요 정도에 따라 10~16회기 내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음. 중간점검 사례회의 및 참여자 개별 소통을 통해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연계된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였음. 의뢰기관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는 4.78점으로 높았음.</li> <li>- 관내 청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전/사후 양육효능감 척도를 베트남, 필리핀어로 번역함. 필리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언어표현의 차이가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두 나라 모두 번역자료가 있더라도 설문 시 구두로 추가설명은 불가피하였음.</li> <li>- 저소득가정이 대부분인 참여자 총 15가정에 생필품, 학용품, 김장김치 등을 지원하여 가계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li> </ul>
-------------	---------------	--	---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p>진행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가 6월 초 입금되어 6월부터 사업 시작함. 4월에 있었던 학교협력사업 설명회 이후 본 프로그램 관련 문의 및 추천이 곧바로 이어졌는데 사업 시작 시기가 늦춰지면서 추천 및 의뢰에 가속도가 붙기는 어려웠음. 당해연도 사업 진행계획, 후원금 입금 시기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대비하고 사업 계획해나가는 것이 좋겠음.</li> <li>- 가족 캠핑나들이의 경우 9월 말부터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하고 10~11월 중 참여함. 대부분 주말만 가능한 가정들이라서 올해는 다행히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말을 활용하였음. 일자 선택 옵션을 더 다양하게 하거나 추워지기 전에 다녀올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이 필요하겠음.</li> <li>- 아동종합심리평가 연계의 경우 참여가정에서 대부분 여름방학에 진행하기를 희망함. 상반기 각 가정 특성 파악 후 하반기 필요한 가정에 심리상담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기관과 사전 협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음.</li> </ul>
<p>프로그램 내용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 면목동 권역 외 소재 초등학교 담당자와도 참여아동 관찰사항 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계속해서 사례 논의 및 추천 요청 이어가면 좋겠음.</li> <li>- 맞춤형 지원 : 5월부터 8회 학습비 지원을 계획했던 것을 6월부터 7회 지원 하되 지원금액을 최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5월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진행함. 고학년의 경우 특히 학원비 부담이 큰데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저소득 참여가정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었음. 다만 일부라도 참여가정에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본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끝났을 때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지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활동 : 스마트폰 관련 우리 가족의 약속을 세워보는 실습 위주의 활동이 진행되었을 때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음. 양육나눔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좋아서 차년도에도 양육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실습, 질의응답 위주의 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음. 또한 양육자 간 소통과 교류의 욕구가 큰 점 발견되어, 희망자에 한해 부모동아리를 구성하여 소통을 돕고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음.</li> <li>- 자녀활동 : 피구로 대표되는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가 항상 높음. 이 점 고려하여 활동 계획 필요하겠으며, 역할 부여 등으로 또래관계 내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과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용 구성하고자 함.</li> <li>- 가족활동 : 가족 외부나들이를 1회 추가하여 진행함.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관내 가족 체험이 가능한 곳을 찾아 가족 간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음.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한 공간 내에서 가족들의 역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캠핑 나들이와 부모교육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이후 가족체육대회 등이 이어지면서 부모님이 먼저 친해지자 아이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음. 다문화가족 간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최대한 마련하여, 소통하며 교류하는 빈도가 늘어나도록 지원하고자 함.</li> <li>- 전년도 참여자가 강사가 되는 가족요리활동에서 주제의 범위를 넓혀 참여자 재능나눔활동으로 진행해보니, 더욱 다양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재능나눔 가족뿐만 아니라 참여가족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차기년도에는 부모동아리를 구성하여 재능나눔활동을 기획해보며 양육자 간 소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평가 결과 맞춤형 지원과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게 나타났음. 사전 사후 척도검사에서 '부모 양육효능감'보다 '아동 자아탄력성' 향상 정도가 다소 낮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가 많았음. 이에 또래 친구와 관계 맺는 연습과 경험을 더할 수 있도록 차기년도 사업 내용 구성하고자 함.</li> <li>- 참여자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및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활동 안내 및 사진 공유, 소감 나눔 주고받을 수 있었음. 차기년도에는 참여자 간 격려와 지지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하고자 함.</li> <li>- 그 외 가정별 긍정적 변화 결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록 및 홍보에 힘쓰고자 하며, 관내 유관기관 협력과 참여자의 욕구 반영으로 본 사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li> </ul>

■ 활동사진 자료



협력기관 네트워크 회의



학습비 지원



1:1 국어학습 멘토링



소그룹 그림책 독후활동 프로그램



야외 나들이 - 봉화산 숲체험



야외 나들이 - 서울종로여행

■ 활동사진 자료



참여자 재능나눔활동 '해.파.리'



아동놀이활동



가족캠핑 나들이



가족체육대회



참여자 재능나눔활동 '해.쿠.클래스'



송년모임 - 가족미션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상'



복지3팀 문효성 주임

<b>목 적</b>	발달장애인의 개별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진로설계를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을 도움	
<b>사업기간</b>	<b>사 업 비</b>	<b>지 원 처</b>
2023년 1월 ~ 2023년 10월	12,658,800원	State street bank

1. 사업의 필요성

가. 발달장애인 취업의 어려움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기술의 제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부족, 지적장애, 건강장애 등의 특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1)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52.9%로 2021년과 동일하다. 또한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업준비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 계획이 없어짐'이 55.1%로 가장 많으며,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이 7.0%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체 임금 근로자 651,897명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35.1%인 228,814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4.9%인 423,083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늘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부모와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 부모 모두, 자녀의 안정적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다.

나. 직업훈련 경험의 중요성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수요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진입하기 힘들고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과 제한된 직종에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성인기로의 전환을 앞둔 장애학생들이 재학 중에 실제 직업현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

1)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p.12, p.163, p.214  
 2) 박은영(2015). 청년기 지적장애인의 고용유지 결정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5(4). p.525-523

는 경험은 고용에 유리하다(박승희 외 역, 2011). 발달장애인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력 기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취업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설령, 취업이 되었다더라도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업현장에서 훈련을 통해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다. 진로준비 필요성

직업은 한 개인이 살아가며 요구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토양을 제공한다. 장애인에게도 역시 직업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김동일 외, 2014; 변용찬 외 2004). 1) 특히 청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전환이 발생하며 독립된 성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취약해지면서 일상적으로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로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이나 자신과 관련 없는 전공으로 진학을 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졸업 후에 단순히 진학과 취업에 국한하여 진로를 선택하기보다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과 연결시켜 훈련해야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진로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라. 중랑구 장애인 복지관 현황

중랑구 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79명으로 서울시에서 5번째로 많으나 장애인복지관은 1곳뿐이고 면목동에는 없어 전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9년도 중랑구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돕는 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복지관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 마. 경험적 근거

본 기관에서는 2010년부터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발달장애인 및 부모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몇 년간 사회성 역량강화의 목적을 가지고 일상생활훈련 및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청소방법, 체크카드 활용한 용돈관리,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이동 등 일상생활 기술이 향상되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룹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는

---

1) 김지수, 박승희 (2015). 발달장애학생의 고용전환 지원을 위한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관련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와 고용, 25(3), p.74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었고,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예절과 능력을 갖추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복지관에서 2019년도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면목 4동, 7동, 3·8동 이음가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할만한 업체를 방문하여 훈련처로 협조 요청하였다. 협조에 응한 지역 내 상점 및 기관과 협약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 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개별상황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변화 및 성장의 폭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직업의 기본적인 태도와 기술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경험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 참여자들의 욕구에 따라 카페, 사무업무(문서작업 및 복사 등)를 훈련할 수 있는 사업체를 연계할 것이며,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특성상 상·하반기를 나누지 않고 1년동안 한 곳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욕구에 따라 관계형성활동과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외부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중랑구 등록 장애인 수	20,279*
위기대상	일반대상 중 지적·자폐 장애인 수	1,621**
표적대상	위기대상 중 18-25세 지적·자폐장애인 수	312***
클라이언트수	표적대상 중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자	10

\* , \*\* 2023년 서울열린데이터(2023년 5월 기준)

\*\*\* 2022년 보건복지부 누리집 장애인 등록 현황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발달장애인의 개별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진로설계를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을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amp;평가회 20명/2회</li> <li>- 직업기초교육 10명/2회</li> <li>- 사전직무훈련 10명/8회</li> <li>- 직업훈련 10명/16회</li> <li>- 선배 취업현장 견학 및 외부활동 10명/2회</li> </ul> </li> </ul>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 기본태도 및 직무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활동 10명/2회</li> <li>- 부모 진로교육 10명/2회</li> <li>- 직무지도원 교육 6명/1회</li> </ul> </li> </ul>	개별 진로설계를 설정하여 취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훈련처 발굴·관리</li> <li>- 사업 홍보 및 훈련처 요청</li> <li>- 업무협약서 교환</li> <li>- 중간 모니터링 · 평가</li> </ul>	12처/1회 8처/1회 8처/2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훈련이 가능한 훈련처 발굴 및 지원
--	--	--------------------------	-------------------------------------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목표	프로그램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직업 훈련을 통한 직업기본 태도 및 직무능력 향상	직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발달장애인 및 부모</li> <li>- 방법: 모임 및 발표</li> <li>- 내용: 사업 OT 및 종결 평가회</li> </ul>	2월, 11월	윤석호 과장,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직무지도원 6명	발달 장애인 10명, 부모 10명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발달장애인</li> <li>- 방법: 강의 및 실습</li> <li>- 내용: 직업 기본 예절익히기, 레크레이션 진행</li> </ul>	2월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직무지도원 6명	발달 장애인 10명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발달장애인</li> <li>- 방법: 강의 및 실습</li> <li>- 내용: 각 업체별 사전 직무 훈련, 업체 사전방문 연습</li> </ul>	3월~ 4월, 8월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직무지도원 6명	발달 장애인 10명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발달장애인</li> <li>- 방법: 사업장 연계 및 훈련</li> <li>- 내용: 사업장에서 직업훈련 진행, 직무지도원 배치</li> </ul>	4월~ 6월, 8월~ 10월	사업주, 김은별 we'r, 직무지도원 6명	발달 장애인 10명	1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발달장애인</li> <li>- 방법: 조별 논의 및 외부 활동</li> <li>- 내용: 선배 직업 현장 탐방, 관계 형성을 위한 회부활동 진행</li> </ul>	3월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직무지도원 6명	발달 장애인 10명	2회
개별 진로 설계를 설정하여 취업 준비	진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참여자 부모</li> <li>- 방법: 교육</li> <li>- 내용: 부모활동을 통한 관계형성 및 정보공유</li> </ul>	3월, 9월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외부강사 1명	부모 10명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직무지도원</li> <li>- 방법: 교육 및 논의</li> <li>- 내용: 직업훈련 전 직무지도원 교육, 직업훈련 준비</li> </ul>	2월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외부강사 1명	직무지도원 6명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참여자 부모</li> <li>- 방법: 상담 및 교육</li> <li>- 내용: 참여자 특성에 맞는 진로 상담 및 교육</li> </ul>	4월, 8월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외부강사 1명	부모 10명	2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훈련 가능한 훈련처 발굴 지원	직업 훈련처	직업 훈련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지역사회 사업장 및 기관</li> <li>- 방법: 방문 및 홍보</li> <li>- 내용: 사업 소개 및 협력 요청</li> </ul>	연중	윤석호 과장,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훈련처 2처	2회
		직업 훈련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직업훈련처</li> <li>- 방법: 방문 및 만족도 조사 실시</li> <li>- 내용: 중간 모니터링, 평가</li> </ul>	4월~10월	문효성 주임 김은별 we'r	훈련처 8곳	4회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시기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기본태도 및 직무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70%이상 훈련 참석</li> <li>- 직무지도원 및 사업주 평가를 통해 6명 이상 점수향상</li> <li>- 기본 직무지도서 제작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li> <li>- 사업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부</li> <li>- 직업훈련 평가 (자체양식)</li> <li>- 직무지도서 (자체양식)</li> </ul>	6월, 10월
개별 진로설계를 설정하여 취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만족도 3.5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li> <li>- 사업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 조사</li> </ul>	2월~10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훈련이 가능한 훈련처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훈련처 2처 발굴</li> <li>- 업무협약서 교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약서</li> </ul>	4월

#### 다. 담당인력구성

번호	이름	직위	담당역할
1	김영미	관장	슈퍼비전, 업무협약식
2	김영례	부장	슈퍼비전, 대상자 선정, 업무협약식
3	윤석호	팀장	슈퍼비전, 훈련처 발굴, 대상자 선정, 오리엔테이션 평가회 지원
4	문효성	주임	사업전담 진행
5	김은별	사회복지사	사업전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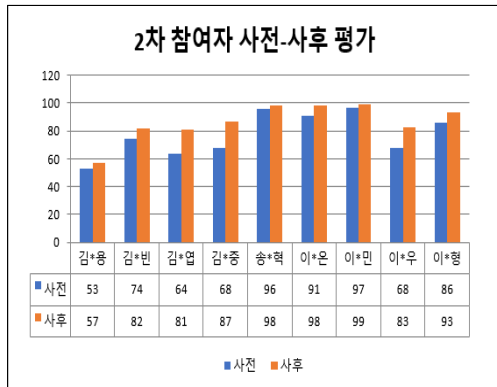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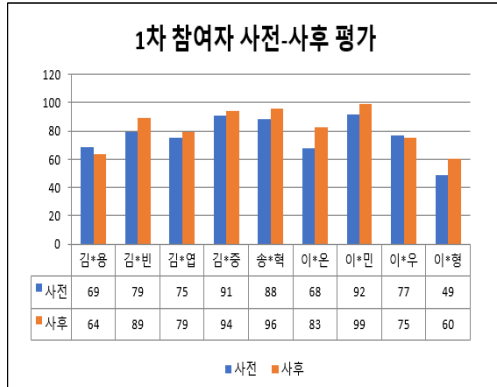
## 라. 사업 일정

내용/기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참여자모집											
오리엔테이션&평가회											
직업기초교육											
사전직무훈련											
직업훈련											
선배 취업 현장 견학											
부모활동											
직무지도원교육											
진로교육											
사업홍보 및 훈련처 요청											
업무협약서 교환											
훈련처 모니터링 및 평가											

## 5. 프로그램 평가

###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기본태도 및 직무능력 향상	- 참여자 70% 이상 훈련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상 어려움으로 중간에 그만둔 1명을 제외한 참여자 9명은 상·하반기 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여 훈련을 진행, 총 90% 목표 달성하였음.</li> <li>- 직업훈련을 통해 사장님 및 직무지도원과 소통하며 직장생활 예절을 익힐 수 있었고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 출퇴근 방법, 위생개념 등 기본 소양을 익히게 되었음.</li> <li>- 참여자들은 1차 직업훈련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업무의 직무능력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음. 또한 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편의점, 카페, 아이스크림·꽃집, 떡집에서 근무하며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마을의 직업 현장에 대해 알 수 있었음.</li> </ul>
	- 직무지도원 및 사업주 평가를 통해 6명 이상 점수 향상	- 1차, 2차 별 직업훈련을 마치고 4가지 측면(작업, 근로습관, 사회성·대인관계, 근로에 대한 이해)에서 담당 직무지도원이 사전·사후 평가 진행하였음.



- 1차 직업훈련 사전-사후 평가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했던 김대용 참여자는 직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고 이선우 참여자의 경우에는 업무를 습득하는 속도가 더더 아쉬움이 있었음. 그러나 2차 직업훈련 사전-사후 평가에선 모두 점수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참여자가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직무지도원과 사업주 평가를 통해 참여자의 강점과 보완점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알려주었던 참여자의 강점은 최종평가회에서 부모에게도 공유하였음.

- 기본 직무지도서 제작
- 직무지도원이 훈련, 평가회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직무지도원의 역량이 참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이에 직무지도원 간 역량에 따른 지도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직무지도서를 제작 후 공유하였음.
- 직무지도서의 내용으로 사업 안내, 지도방법, 노하우 등을 포함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어 직무지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p>- 개별 진로설계를 설정하여 취업준비</p>	<p>- 프로그램 만족도 3.5점 이상</p>	<p>-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에서 총 4.55점으로 목표 달성함. 참여자들은 만족도 평가에서 좋았던 활동, 어려웠던 활동, 개별목표 등을 말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부분에 대해 직접 적어보았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정리가 어려웠는데 점차 잘하게 되었다.          - 음료를 제조할 수 있다.          - 처음보다 대답을 잘하게 되었다.          - 떡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게 됐고 떡 담기가 재밌었고 인사도 조금 더 잘하게 됐다. 등</p> </div>
<p>-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훈련이 가능한 훈련처 발굴 및 지원</p>	<p>- 신규 훈련처 2처 발굴          - 업무협약서 교환</p>	<p>- 담당자는 지역사회 상점을 방문하여 상봉1동 새마을문고 1처 발굴하였고, 상반기에 참여자를 배치하여 직업훈련 진행하였음.          - 마을 상점, 기관 등 협력업체 8처를 방문해 업무협약 체결하였음. 이를 통해 사업주는 직업훈련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였음.          - 참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업주의 욕구에 따라 사전방문에서 참여자 특성, 관계형성 방법 등을 전달하며 서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음.          - 사업 마무리 후 줄임식 영상, 감사선물, 참여자들이 작성한 편지를 사업주들에게 전달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본 사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장에 부딪힘을 느끼며 내년도에도 훈련처로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였음.</p>

**\*참여자 개별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평기(변화) 기록**

이름	질적 변화 내용
김*용	<p>- 1차 안방다방, 2차 조은꽃 아이스크림에서 훈련함. 김*용 참여자의 강점은 업무를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기억력이 좋음. 에스프레소 추출, 음료 준비 과정, 상품 진열 등 한 번 알려주면 바로 따라할 수 있고 꼼꼼하게 함.          - 보완점으로는 직업훈련에 대한 의지가 약한 편임. 예를 들어 업무를 지시하면 귀찮다는 말을 한다거나 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않아 소통이 어렵기도 함. 사업주와 담당 직무지도원이 꾸준히 지도한 이후에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마지막 회기에는 스스로 해야 할 업무들을 미리 해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p>
김*빈	<p>- 1차 CU, 2차 슬기로운카페에서 훈련함. 업무에 기복이 없고 성실하고 빠르다는 점이 강점임. 슬기로운카페 사업주는 지금까지 했던 참여자 중 가장 빠르고 잘한다고 함. 또한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킴. 직업훈련하면서 지각한 적이 없고,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다시 업무 시작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추는다고 함. 그리고 핸드폰 시계를 초단위로 5,4,3,2,1을 세며 바로 근무에 투입한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점으로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처음 1시간은 정말 열심히 수행하나 나중의 1시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음.</li> </ul>
김*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빈스로드, 2차 면목2동 새마을문고에서 훈련함.</li> <li>- 참여자는 업무를 습득하는 속도에는 느린 편이나 강점으로 지지해주면 적극적인 자세로 끝까지 노력한다고 함. 이에 사업주는 속도는 느리나 지금까지 했던 참여자 중 가장 긍정적으로 바뀌고 열심히 노력하는 참여자라고 함. 또한 기존에 빈스로드에서 훈련할 때 하지 못했던 우유 스팀, 스스로 출퇴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음.</li> </ul>
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커피북는꾼, 2차 시루원떡집에서 훈련함.</li> <li>- 김*중 참여자의 강점은 꼼꼼하고 차분하며 성실하다는 것임. 음료를 흘리는 실수를 한 적이 없고 음료제조를 제일 재밌게 했다고 함. 사회경험 뿐 아니라 카페업무도 처음이었는데 8회기 동안 카페 업무를 빠르게 습득해서 능숙하게 되었음. 보여주면 바로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직무능력도 우수함.</li> <li>- 보완점으로는 손님을 응대하고 인사하는 업무는 어려워함.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어 실행하지 않고 직무지도원이나 사업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함.</li> </ul>
송*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안방다방, 2차 면목2동 새마을문고에서 훈련함.</li> <li>- 송*혁 참여자는 한 번 배우면 잊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능력이 점차 발전되는 모습을 보임. 또한 카페, 도서관 업무 중 어려울 수 있는 레시피 암기, 기호를 알며 책 찾기 등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함.</li> <li>- 1차에서 조용한 성격으로 손님 응대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차에선 조금씩 적응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많이 말하는 등 많이 발전하였음.</li> </ul>
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슬기로운카페, 2차 시루원떡집에서 훈련함.</li> <li>- 이*운 참여자의 강점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밝은 모습을 보임. 또한 처음에는 인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발전하여 이제는 손님 응대를 어려워하지 않음.</li> <li>- 카페 업무에 흥미를 갖고 업무를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 가정에서도 연습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카페 바리스타에 관한 2024년도 희망 일자리를 신청함.</li> </ul>
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빈스로드, 2차 CU에서 훈련함.</li> <li>- 이*민 참여자의 강점은 적극적인 자세임. 훈련 소감에 대해서도 “훈련을 더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참여했음.</li> <li>- 처음에는 말주변이 적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걱정이 있었는데 점차 개선되어 말도 많고 다른 참여자와도 원활히 관계를 형성하였음. 또한 적응 이후에는 손님 응대에도 어려움이 없었음.</li> </ul>
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상봉1동 새마을문고, 2차 면목2동 새마을문고에서 훈련함.</li> <li>- 이*우 참여자는 수행 속도가 다소 느려 어려움이 있었음. 다만 장점으로 사교성이 좋아 직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음. 또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직무능력에서도 점차 발전된 모습을 보였음.</li> <li>- 1차 때 준비물을 안 챙겨오는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2차 때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직무지도원에게 곧바로 말해주었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2차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li> </ul>

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차 모두 CU에서 훈련함.</li> <li>- 이*형 참여자는 자신있거나 좋아하는 업무에는 확실하게 표현하고 망설임이 없음. 일 자체에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며 내년에도 CU에서 배워보고 싶다고 함.</li> <li>- 1차, 2차 모두 직무능력이 뛰어난 동료참여자와 함께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자신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li> <li>- 보완점으로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소극적인 태도가 되어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함. 다만 점차 발전하여 느리더라도 맡은 일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음.</li> </ul>
-----	---

#### 나.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횟수)	평가결과
홍보	대상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급 운영 고등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 추천 요청</li> <li>- 장애 통합부모회 단체 및 기관에 홍보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 참여자 모집을 위해 송곡여고, 휘봉고, 광진학교, 면목고 특수반 선생님과 소통해 방문하였음.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를 요청하여 5명의 참여자가 신청하게 되었음.</li> <li>- 정보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가정 특성상 학교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이에 2024년은 조금 더 많은 학교에 방문 홍보할 예정임.</li> <li>- 중랑구 장애인 통합부모회,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 가족지원센터에 홍보 요청하였음.</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홈페이지 진행내용 및 소식지 업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내용 기관 홈페이지에 8회 업로드 하였고 소식지 2회 발행, 카드뉴스 2회, 유튜브 1회 발행하여 사업 홍보하였음.</li> </ul>
	직업 훈련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홍보를 통한 직업 훈련처 협조 요청 및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 마을 상점, 기관 등 협력업체 8곳 협약 체결함.</li> <li>- 사업 홍보를 통해 협력업체 1곳을 신규 발굴하였고, 상반기에 참여자 연계하여 진행함.</li> </ul>
전문 인력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분야 강사 섭외, 부모교육 실무자 교육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상담 전문기관 공공선연구소 대표가 직무지도원 교육 1회, 부모교육 2회 진행하였음. 사전에 강사에게 각 사례와 부모들의 고민을 전달하여 이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음.</li> </ul>
	자원 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MS, 기관 실습, 학교 홍보를 통해 대학생 멘토 자원봉사자 모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 VMS, 학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여 모집하였음. 직무지도원 중 불성실한 활동으로 중도 탈락한 직무지도원이 있어 아쉬움이 있으나 다른 직무지도원이 공백을 메워 큰 어려움이 없었음.</li> </ul>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사업주, 직무지도원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발달장애인 특성상 반복연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대</li> </ul>

	<p>한 빠지지 않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후년도 사업 홍보 시 학교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에 진행하면 좋겠음.</li> </ul>
프로그램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홍보를 진행한 3곳의 학교에서 추천받아 5명의 참여자가 신규 접수하였음. 이처럼 정보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가정 특성상 학교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2024년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에 방문 홍보가 필요하겠음.</li> <li>- 기초직업훈련 진행 시 참여자와 직무지도원의 라포형성 활동을 진행하여 관계를 쌓을 수 있었음. 또한 직무지도원이 참여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추후 사전직무훈련 계획에 도움이 되었음.</li> <li>- 사전직무훈련에는 각 사업장의 업무 연습만이 아닌 사업장 직접 방문, 출/퇴근 방법 등을 훈련하였음. 이를 통해 처음에는 활동 보조가 필요했지만 직접 출근이 가능하게 된 큰 성과를 이룬 참여자도 있었음. 추후 진행 시에도 사업장으로 직접 출/퇴근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li> <li>- 직업훈련 2~4회차에 사업장 방문하여 중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이를 통해 현재 어려움(참여자, 사업주, 직무지도원)은 없는지 파악하였고, 이후 중점적으로 훈련할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특히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흩어져 교류가 적었던 직무지도원들은 각자의 어려움과 지도방법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직업훈련 초기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li> <li>- 평가회는 참여자, 직무지도원, 부모 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참여자 간 어색함 없이 교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사회적 관계가 좁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내년에도 참여자 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음.</li> </ul>
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도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면목 4동, 7동, 3·8동 이음가게를 중심으로 훈련을 홍보하였고, 협조에 응한 지역 내 상점 및 기관과 협약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음. 처음에 사업주들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사전방문을 통해 참여자의 특성, 관계 형성 방법 등을 미리 공유하여 발달장애인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음. 이러한 과정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사업주가 발달장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고, 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이 배울 수 있는 마을의 공간이 되었음. 사업주들은 훈련 과정 속에서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확인하며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화되었음. 그리고 이 과정을 본 다른 사업장의 문의와 마을활동을 진행하며 관계가 생기는 업체 등 마을의 협력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더 많이 발굴하고, 발굴을 통해서 참여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면 좋겠음.</li> </ul>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들은 사전직무훈련과 직업훈련을 통해 기본소양과 직무능력을 향상하였음. 훈련을 통해 참여자의 강점을 알 수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을 배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었음. 그리고 1:1 직무지도원 배치와 평소 쉽게 접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훈련은 발달장애인들의 적응을 도왔으며 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음. 참여자는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직업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었음.</li> <li>- 직무지도원이 훈련, 평가회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직</li> </ul>

	<p>무지도원의 역량이 참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이에 직무지도원 간 역량에 따른 지도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직무지도서를 제작 후 공유하였음. 기본 직무지도서의 내용으로 사업 안내, 지도방법, 노하우 등을 포함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어 직무지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취업문제, 자립에 의견이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상 취업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중량구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다녀온 후 관련 내용을 부모들에게 공유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음.</li> <li>- 마을의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공통적으로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을 보고 프로그램의 의의를 확인하였음. 발달장애인의 취업문제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가는 과정에서 의의가 있었음. 또한 지역주민들 역시 발달장애인이 훈련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장애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음. '비상'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기에 지역사회 상점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지속하고자 함.</li> </ul>
--	--

## 사진 활동 자료



오리엔테이션



기초직업훈련



선배직업현장탐방(히즈빈스)



선배직업현장탐방(동안제일복지센터)



직무지도원 교육



부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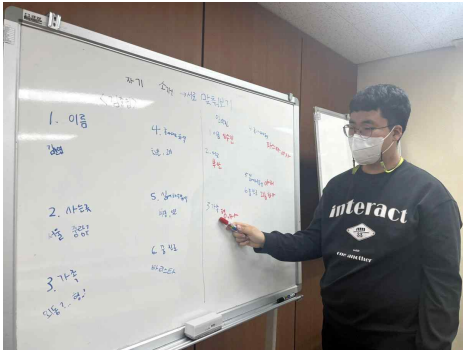
## 사진 활동 자료



업무협약식(빈스로드)



업무협약식(슬기로운카페)



사전직무훈련(자기소개)



사전직무훈련(물품 확인하기, 수 세기)



직업훈련(커피볶는꾼)



직업훈련(상봉1동 새마을문고)

사진 활동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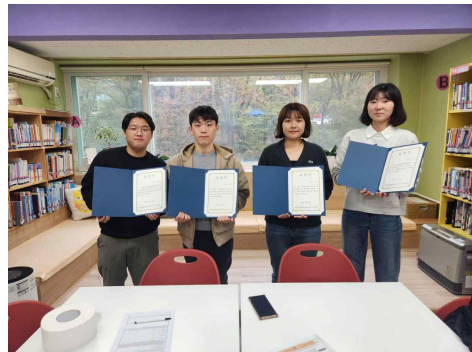
직업훈련(CU중량그랑데점)



직업훈련(슬기로운카페)



부모 평가회



직무지도원 평가회



평가회



단체사진

◆ 사 업 명 :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가족애재발견'



복지2팀 이지희 사회복지사

목 적	가족관계증진활동을 통한 참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사업기간	사 업 비	지 원 처
2023년 2월 ~ 2023년 12월	8,180,000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1. 사업의 필요성

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up>1)</sup>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의 첫 단계이자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계속되는 다음 단계의 학교생활 및 이후 성인기의 사회생활 적응과 자아성취도 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요인인 가족건강성이었고,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는 건강한 가족환경에서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할 때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가족 건강성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K. Kim and E. Choi(2010)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곧 가정의 건강에서 비롯되기에 가족의 강점과 성장 및 긍정적인 부분의 탐색이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렇듯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초등학교생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지원과 안정을 얻고, 가족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학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도 또래나 교사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유지함과 아울러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았다. 또한,

1) 초등학교생의 가족여가활동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3.7 남현주)

이들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을 이미 가정에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도 바람직하게 극복해나간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적인 접근을 통해 가족건강성을 높여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자 한다.

## 2) 자아 존중감<sup>1)</sup>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은 자아존중감이다. E. Kang(2009), K. Park(2011), J. Bang(2008)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며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한다(E. Lee & T. Yeo, 2013; S. Park & C. Yoon, 2013; K. Park, 2011; E. Park, 2010; E. Kang, 2009; J. Bang, 2008).

### 나.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통한 가족응집력 향상

가족 단위의 여가는 활동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증진되므로 가족의 안정성 및 결속력이 증가한다(홍성화, 2003). 또한 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도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여가활동을 가족이 함께 계획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가족원 간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원 간 친밀감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들고자 한다.

### 다. 신체활동을 통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sup>2)</sup>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학생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한다. 여가활동 중에서 스포츠 활동과 자존감 수준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정서적·신체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아동들의 경우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에 참여할 경우, 성인들보다 자존감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을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 및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한다면 자존감 수준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2023년에는 단체 문화활동 계획 시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여 참여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라.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교육복지사업의 네트워크는 학교 내 전문가의 역량,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식과 협력,

---

1)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를 의미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치 있게 느끼고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여겨 무슨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특성이다.

2)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3.7 남현주)

학교와 지역사회가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에 학생 변화라는 성과로 나타난다. 교육복지 네트워크 분석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복지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학교는 네트워크 당사자들의 관계, 협력, 담당자들의 역량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sup>1)</sup>

동부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11년간 진행했던 교육복지협력사업을 통해 본 기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학교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참여아동의 현황을 담임교사 및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공유하고, 단체 프로그램에 지전가가 참석하여 참여아동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아동이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마. 중랑구 지역환경적 특성

중랑구 내 수급자 수는 19,240가구(27,154명)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저소득·한부모 가족도 2,087가구, 4,909명으로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이다. 특히 중랑구 내 16개 동 중 면목동 4개 동(면목3-8동, 4동, 5동, 7동)에만 4,157세대(5,727명)의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으로 중랑구 내에서 더 열악한 지역이다.<sup>2)</sup> 중랑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박탈 지수는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중랑구 내 경제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면목동은 특히 여가문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른 동보다 적은 편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 여가문화활동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한 문화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 바. 경험적 근거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가족관계증진을 위해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저소득가정으로 참여 가정의 폭을 넓히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더불어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음악줄넘기, 미술치료, 감성코칭, 칼림바 연주 등 다양한 콘텐츠로 참여가족의 의사소통기능 향상과 가족관계증진을 도모하였다. 2021년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접촉 대면, 가정별 활동 방식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윤철수, 유기웅(2013) 교육복지 네트워크의 어려움과 개선에 관한 연구

2) 서울열린데이터

3) 제4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에는 가족문화활동을 통해 참여아동의 강점을 발굴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참여아동의 적극성 향상 및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기능 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이후 2023년에도 가족별 활동을 통해 개별 가정 내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단체 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 및 가족의 역동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또한 지전가 및 담임교사를 통한 학교생활관찰내용을 기반으로 참여가정과 함께 프로그램 내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참여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중랑구 인구 수	391,110*
위기대상	중랑구 내 저소득·한부모가족	4,909**
표적대상	면목동 지역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정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족	500***
클라이언트수	지정학교 및 지역기관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아동 가족	30

\* 2022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2021년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 추정치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가족관계증진활동을 통한 참여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기관 네트워크 활동 (학교별 찾아가는 간담회, 실무자 간담회)</li> </ul>	180명/20명/9회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활동 (단체, 가족별)</li> </ul>	208명/26명/8회	가족 건강성 및 참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교육</li> </ul>	52명/26명/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심리상담</li> </ul>	20명/2명/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 및 연계지원</li> </ul>	5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마을활동</li> </ul>	26명/26명/1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망 확장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 목표	프로그램	활동(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교육복지 네트워크 협력관계 강화 및 활용	■ 협력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협력기관 네트워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면목동 지역 내 협력기관 및 초등학교 8개교(중랑교육복지센터, 면남초·면동초·면목초·면일초·면중초·중곡초·중랑초·중목초)</li> <li>- 방법: 학교별 찾아가는 간담회,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참석, 교육복지협력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li> <li>- 내용: 참여자모집 협조 요청, 아동 사례 및 변화 공유, 개입방법 논의, 지역사회 교육복지 현안 파악</li> </ul>	2월 ~ 12월	김영미 관장, 이지희 사회복 지사	실무자 42명	22회	
가족건강성 및 참여아동의 자존감 향상	■ 가족관계증진활동						
	문화 활동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프로그램 참여 7가정</li> <li>- 방법: 단체 문화활동 및 체험</li> <li>- 내용: 문화활동 진행, 모니터링 및 평가</li> </ul>	5월 ~ 12월	이지희 사회복 지사, 외부강사	7가정 30명	9회
		가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프로그램 참여 7가정</li> <li>- 방법: 가족별 문화활동 및 체험</li> <li>- 내용: 가족별 문화활동 계획, 진행, 평가</li> </ul>	12월	이지희 사회복 지사		
	■ 교육 및 상담 지원						
	의사소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프로그램 참여 7가정</li> <li>- 방법: 강의, 역할극</li> <li>- 내용: 부모-자녀 의사소통교육, 가족별 미션</li> </ul>	6월	이지희 사회복 지사, 외부강사	5가정 13명	2회	
전문 심리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1가정</li> <li>- 방법: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지원</li> <li>- 내용: 아동·부모 개인상담, 부모·자녀 상호 작용 검사 및 해석상담</li> </ul>	9월 ~ 12월	이지희 사회복 지사, 전문상담사	1가정 3명	18회		
상담 및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프로그램 참여 7가정</li> <li>- 방법: 가족별 상담, 지원연계</li> <li>- 내용: 가족별 현황파악, 아동별 성장목표 설정, 변화사항 관찰, 자원연계 등</li> </ul>	4월 ~ 12월	이지희 사회복 지사	7가정 30명	38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망 확장	■ 가족마을활동						
가족 마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프로그램 참여 7가정</li> <li>- 방법: 참여가정의 마을활동 지원</li> <li>- 내용: 가족요리활동 및 지역사회 고마운 이웃에게 마음 전하기, 소감나누기</li> </ul>	11월	이지희 사회복 지사, 외부강사	7가정 21명	1회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시기
교육복지 네트워크 협력관계 강화 및 활용	- 학교별 간담회 실시	- 네트워크회의록 - 활동 공유자료	- 담당자 기록/보고	2월 ~ 12월
가족 건강성 및 참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 활동 소감 및 의견 제시 - 가족건강성 사전대비 사후 점수 증가 - 자아존중감 사전대비 사후 점수 증가 - 의사소통교육 참여율 80% 이상	- 활동일지 - 가족건강성 사전대비 사후 점수 - 가족건강성 척도 내 가족 간의 의사소통 경향 문항 점수 -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점수 - 상담일지	- 담당자 기록/보고 - 가족 건강성·자아존중감 설문지 사전/사후검사 실시	5월 ~ 12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망 확장	- 지역사회 내 마을활동 실시 - 마을활동을 통한 성취감 향상	- 활동일지	- 담당자 기록/보고	11월

#### 다. 담당인력구성

번호	이름	직위	담당역할
1	김영미	관장	슈퍼비전
2	김영례	부장	슈퍼비전
3	최영주	과장	슈퍼비전, 사업지원 및 점검
4	이지희	사회복지사	사업 전담 진행

#### 라. 사업 일정

내용/기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 및 모집												
협력기관 네트워크 활동												
문화활동	단체 활동											
	가족별 활동											
의사소통교육												
전문심리상담												
상담 및 자원연계												
가족 마을활동												

## 5. 프로그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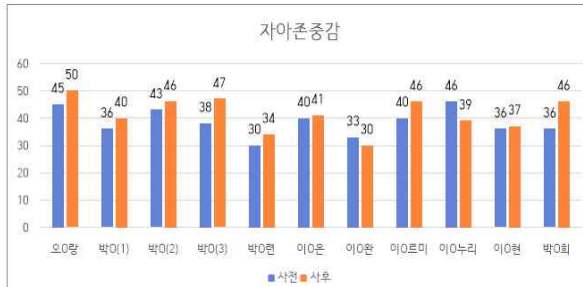
###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p>교육복지 네트워크 협력관계 강화 및 활용</p>	<p>학교별 간담회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사업 시작 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사업 총평 및 2023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단체문화활동 진행 시 참가가정 모니터링을 위한 지전가 협조 일정을 조율하여 요청할 수 있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중목초등학교 및 서울중곡초등학교 지전가와 함께하여 활동 당일 해당 학교 아동 가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였으며, 활동 내용에 대해 가족별 특성에 맞게 상을 부여하는 것이 의미있게 느껴졌다는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었음.</li> <li>-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복지부장과 협력할 수 있었음. 해당 학교 학생의 참여 내용, 가정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에서 관찰되는 모습 및 담임교사의 의견 공유를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와 복지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li> <li>- 지전가와 사전 논의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었음. 상담 종결 이후, 해당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전문심리상담사, 담당자가 함께하는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상담 종결 이후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음. 따라서 프로그램 종결 이후의 연속적인 아동 지원 방법에 대해 학교와 기관이 협력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li> <li>- 아동별로 스스로 설정한 성장목표에 대해 학교별 담임교사와 공유하여 해당 아동이 가정과 복지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공유할 수 있었음. 이 과정에서 성장목표에 대한 아동의 모습을 담임교사가 꾸준히 유의깊게 관찰하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복지부장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었음.</li> </ul>
<p>가족 건강성 및 참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p>	<p>활동 소감 및 의견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진행 초반, 참여 아동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각자의 성장목표를 자신이 직접 설정하는 시간을 가짐. 해당 과정을 통해 아동과 학교/가정에서 '걱정되는 것', '잘하고 있는 것', '되고싶은 모습(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내용을 양육자와 공유하여 아동이 성장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11월에 아동이 직접 자신의 성장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하며 과정적인 부분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왔음. 또한 학교생활관찰평가 설문지를 통해 성장목표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을 7월, 12월에 걸쳐 두 번 수렴함. 대부분의 아동이 학기 말이 되며 학교생활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함. 따라서 가정 및 복지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의 모습과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 학기 초, 학기 말에 비교되는 학교에서의 모습을 대조하며 참</li> </ul>

여아동의 교육력 및 학교생활적응력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었음.



- 모든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건강성 척도 검사 결과, 평균 154점에서 164점으로 참여자 모두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음. 대부분의 양육자가 5점 이상의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가장 증가세가 큰 양육자는 26점이나 상승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가족의사소통능력 부분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임. 척도검사 결과를 토대로 양육자들이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참여아동 11명 모두 사전사후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38.5점에서 41.5점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대부분의 아동이 4점 이상의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가장 증가세가 큰 아동은 10점이나 상승하였음. 참여아동이 가족별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었으며, 단체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와 소통하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가족별 상 수여 및 미션 진행을 통해 성취감을 얻은 부분, 아동별 성장목표 설명 및 자가평가를 통해 스스로 지지했던 과정이 자아존중감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분석함.
- 의사소통교육은 계획대비 41.1%의 참여율을 보임. 4인 가족 기준 7가정을 대상으로 활동을 계획하였지만 참여가정 대부분의 가구원 수가 4인 이하의 가정인 점, 참여 포기 가정으로 인해 1가정을 추가 선발하여 신규 참여 가정이 의사소통교육 2회기 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점이 계획 대비 참여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의사소통교육 미션

		<p>을 통해 가족별로 작성한 시간표에서 한가지 활동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오는 미션을 하였음. 계획대로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도 있었으나, 다시 한번 도전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건강한 상호작용을 확인함.</p>																																				
	<p>가족건강성 사 전대비 사후 점 수 증가</p>	<p>- 가족요리활동을 진행한 후 완성한 음식을 평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이웃에게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함. “우리 할머니가 아팠을 때, 미역국을 나눠주신 윗집 할머니께 김밥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우리집에 떡을 나누어 주셨던 이웃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등 고마웠던 이웃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모두가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주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음.</p>																																				
	<p>자아존중감 사 전대비 사후 점 수 증가</p>	<div data-bbox="554 681 1168 1049" data-label="Figure"> <table border="1"> <caption>자아존중감 점수 변화</caption> <thead> <tr> <th>아이명</th> <th>사전 (Before)</th> <th>사후 (After)</th> </tr> </thead> <tbody> <tr><td>오0랑</td><td>45</td><td>50</td></tr> <tr><td>박이(1)</td><td>36</td><td>40</td></tr> <tr><td>박이(2)</td><td>43</td><td>46</td></tr> <tr><td>박이(3)</td><td>38</td><td>47</td></tr> <tr><td>박이현</td><td>30</td><td>34</td></tr> <tr><td>이0은</td><td>40</td><td>41</td></tr> <tr><td>이0원</td><td>33</td><td>30</td></tr> <tr><td>이0르미</td><td>40</td><td>46</td></tr> <tr><td>이0누리</td><td>46</td><td>39</td></tr> <tr><td>이0현</td><td>36</td><td>37</td></tr> <tr><td>박0희</td><td>36</td><td>46</td></tr> </tbody> </table> </div> <p>- 참여아동 11명 모두 사전사후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38.5점에서 41.5점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대부분의 아동이 4점 이상의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가장 증가세가 큰 아동은 10점이나 상승하였음. 참여아동이 가족별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었으며, 단체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와 소통하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가족별 상 수여 및 미션 진행을 통해 성취감을 얻은 부분, 아동별 성장목표 설명 및 자가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지지했던 과정이 자아존중감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분석함.</p> <p>- 사업 진행 초반, 참여 아동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각자의 성장목표를 자신이 직접 설정하는 시간을 가짐. 해당 과정을 통해 아동과 학교/가정에서 ‘걱정되는 것’, ‘잘하고 있는 것’, ‘되고싶은 모습(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내용을 양육자와 공유하여 아동이 성장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11월에 아동이 직접 자신의 성장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하며 과정적인 부분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왔음. 또한 학</p>	아이명	사전 (Before)	사후 (After)	오0랑	45	50	박이(1)	36	40	박이(2)	43	46	박이(3)	38	47	박이현	30	34	이0은	40	41	이0원	33	30	이0르미	40	46	이0누리	46	39	이0현	36	37	박0희	36	46
아이명	사전 (Before)	사후 (After)																																				
오0랑	45	50																																				
박이(1)	36	40																																				
박이(2)	43	46																																				
박이(3)	38	47																																				
박이현	30	34																																				
이0은	40	41																																				
이0원	33	30																																				
이0르미	40	46																																				
이0누리	46	39																																				
이0현	36	37																																				
박0희	36	46																																				

		<p>교생활관찰평가 설문지를 통해 성장목표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을 7월, 12월에 걸쳐 두 번 수렴함. 대부분의 아동이 학기 말이 되며 학교생활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함. 따라서 가정 및 복지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의 모습과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 학기 초, 학기 말에 비교되는 학교에서의 모습을 대조하며 참여아동의 교육력 및 학교생활적응력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었음.</p>
	<p>의사소통교육 참여율 80% 이상</p>	<p>- 의사소통교육은 계획대비 41.1%의 참여율을 보임. 4인 가족 기준 7가정을 대상으로 활동을 계획하였지만 참여가정 대부분의 가구원 수가 4인이하의 가정인 점, 참여포기가정으로 인해 1가정을 선별하여 신규참여가정이 의사소통교육 2회기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점이 계획 대비 참여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의사소통교육 미션을 통해 가족별로 작성한 시간표에서 한가지 활동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오는 미션을 하였음. 계획대로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도 있었으나, 다시 한번 도전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건 강한 상호작용을 확인함.</p>
<p>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망 확장</p>	<p>지역사회 내 마을활동 실시</p>	<p>- 가족요리활동을 진행한 후 완성한 음식을 평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이웃에게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함. “우리 할머니가 아팠을 때 미역국을 나눠주신 윗집 할머니께 김밥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우리집에 떡을 나누어 주셨던 이웃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등 고맷던 이웃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모두가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주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음.</p>
	<p>마을활동을 통한 성취감 향상</p>	<p>- 참여아동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평소에 고맷던 이웃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하여 활동을 진행함. 이후 미션 진행 소감을 통해 “평소에 반찬을 받기만 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음식을 받은 이웃이 기뻐해서 저도 기뻐했어요!”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p>

## 나.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횟수)	평가결과
홍보	대상자 모집	- 참여가정 모집을 위해 권역 내 학교 및 지역기관에 참여자 추천 협조 공문 발송	- 사업 시작 전, 찾아가는 학교별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 모집을 위한 e-알리미 발송 협조를 6개교에 요청하여 신규 참여자 1가정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었음. 또한 면동초등학교 및 면일초등학교 지전가를 통해 4가정을 추천받고 심사회의를 통해 1가정을 선발하였음. 이후 참여학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다짐.
	프로그람	- 본 복지관 홈페이지 업로드 - 복지관 소식지 게시 및 배포	- 복지관 홈페이지 2회 업로드 및 소식지 1회 게시를 통해 가족애발견 의사소통교육 및 단체문화활동을 공유 할 수 있었음. 의사소통 교육 가족별 미션을 통해 참여가족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단체문화활동을 통해 가족로봇스포츠를 즐겼음을 공유함.
전문인력	강사	- 의사소통 교육 강사 섭외 및 강의 진행	- 의사소통 교육 강사를 섭외하여 '물고기 가족화 그리기',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 'six by six게임', '감정피자 만들기'활동을 진행함. 아이/양육자가 각각 가족의 모습과 역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다양한 감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음. 또한 2회기 교육 마무리 이후 관찰된 참여가정의 모습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전문강사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음.
	자원봉사자	- 온라인 모집을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 단체 문화활동 보조 봉사자를 모집하여 총 5회기 단체활동을 지원하였음. 매회기 활동 이후 평가회를 진행하여 봉사자의 참여가정 모니터링 내용 및 활동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었음.
교육복지네트워크실무자	교육복지네트워크실무자	- 교육복지조정자 및 참여 아동 학교 지전가와의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간담회 활성화 - 참여아동 학교 지전가와의 협력을 통한 참여아동 모니터링 다각화	- 찾아가는 간담회 13회 진행 시, 교육복지조정자를 7회 동원하여 함께 참여 아동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서울중곡초등학교, 서울중목초등학교 지전가의 협조를 요청하여 단체 문화활동 1회기에서 참여가정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음. 또한 참여가족별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했던 것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이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음.
	자원연계	전문심리상담	- 자광아동가정상담원에 1가정을 연계하여 아동 상담 10회기, 부모-자녀 상호작용검사 2회기, 해석상담 2회기, 양육자 상담 4회기를 진행하였음. - 양육자 상담, 아동 상담을 병행하여 아동 뿐 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지원하였음. 아동의 어려움에 대해 모든 가족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양육자

		도 스스로를 인식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또한 상담 종결 이후, 해당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전문심리상담사, 담당자가 함께하는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상담 종결 이후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음.
기타	- 참여가정의 욕구별 수시 후원물품 38회 지원	- 참여가정 별 가족상담을 통해 활동 피드백과 필요한 수시후원물품을 제공할 수 있었음. - 총 38회, 1,552,945원의 지원이 가능했음.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는 단체 문화활동 및 가족별 문화활동 활동 기간을 4월~12월로 계획했으나, 교육복지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일정이 늦어져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예산 증액을 통해 가족별 문화활동을 1회기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었음. 차기 사업 진행 시에도 교육복지협력사업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음.</li> </ul>
프로그램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사업 내용에 대한 동부교육지원청 피드백을 반영하여 단체 문화활동과 가족별 문화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가족별 활동을 통해 가정 내 유대감을 증진시켰으며, 단체 활동을 통한 가족 역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음. 또한 참여가정 소감을 통해 단체 문화활동에서 다른 가정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차기 사업 진행 시에도 단체 활동과 가족별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겠음.</li> <li>- 기존에는 2가정에게 10회기씩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단기적인 상담 지원에 욕구가 있는 가정이 없어 1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18회기 지원하였음. 2024년 사업 진행 시에는 1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20회기를 계획하여 참여아동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음.</li> <li>- 상담 및 자원연계를 7가정에게 8회씩, 총 56회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교육복지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일정이 예년보다 늦어졌음. 오리엔테이션 이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가족별 4회 이상, 총 38회 지원할 수 있었음. 차기 사업 진행 시 교육복지협력사업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음.</li> <li>- 가족별 문화활동을 통해 가족별 욕구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거들었음. 가족구성원끼리 활동을 논의하여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가족회의 과정에서 가족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체 문화활동을 통해 활동과정에서 관찰되는 가정의 역동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별 특성에 맞게 참여가정을 지원할 수 있었음. 또한 단체 문화활동 진행과정에 대한 참여아동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아동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노력하였음. 아동별 성장 목표를 설정하여 각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거들었으며, 가족별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였음.</li> </ul>

<p>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p>	<p>- 가족마을활동을 통해 참여가정이 직접 만든 음식과 편지를 전달. 평소 고마움을 느꼈던 이웃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음. 각자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음식과 편지를 이웃에게 전달한 후, 이웃이 다시 고마운 마음을 전해 참여아동이 뿌듯함을 느꼈다는 긍정적인 소감도 확인할 수 있었음.</p>
<p>총평</p>	<p>- 2024년에는 아동별 성장 목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족별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기대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전문심리상담 연계의 경우,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아동 가정의 현황을 공유하며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음. 그러나 장기적인 상담 지원에 대한 참여가정의 욕구를 확인하여 차기 사업 진행 시에는 1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20 회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겠음.</p>

■ 활동사진 자료



단체 문화활동 O.T



의사소통교육



단체 문화활동 ①



단체 문화활동 ②



단체 문화활동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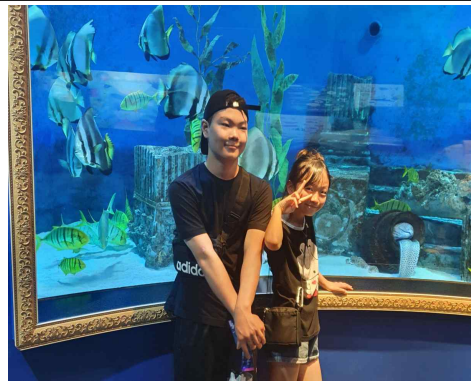


마을활동

■ 활동사진 자료



평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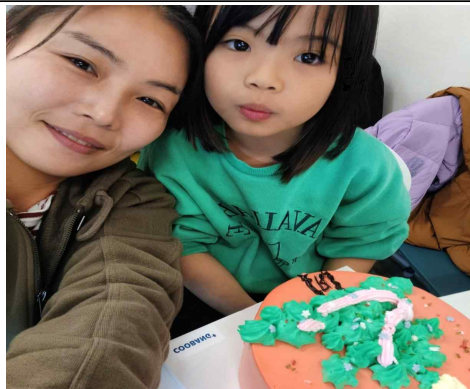
가족별 문화활동 ①



가족별 문화활동 ②



가족별 문화활동 ③



가족별 문화활동 ④



아동별 성장목표 설정·평가

◆ 사 업 명 : 아동 놀이공간 활성화사업 '열면놀이터'



복지3팀 강예정 대리

목 적	학령후기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신체·정서적 성장기를 건강하게 보내도록 도움		
사업기간	사 업 비	지 원 처	
2023년 1월 ~ 12월	2,168,080원	후원금	

1. 사업의 필요성

가. 지역사회의 열악한 놀이 공간 실태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중랑구 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실내놀이카페를 포함한 놀이제공 영업소가 7개에 불과하며, 면목동 내 위치한 놀이시설은 단 한 개뿐이다.<sup>1)</sup> 놀이시설은 주 이용대상에 따른 나이 제한이 있는데 육아지원센터 내 놀이방이나 장난감도서관 등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이고, 지역 내 키즈카페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이용 제한이 있다. 청소년시설은 학령후기 아동의 이용제한은 없으나 구성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 청소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외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대부분이 유료 이용이다 보니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중랑구의 학령후기 아동들은 마음껏 놀 기회조차 충분치 않다.

최근 몇 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들이 민·관 단체들의 노력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이들의 놀거리, 놀 공간 부족은 여전하다. 특히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놀이 공간은 놀이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데 기존의 놀이 공간은 주로 영·유아나 저학년 초등학생에 맞춰져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하는 9~12세의 학령후기 아동들은 자립적인 외부활동이 가능해지고 공간을 선택하여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부모와 함께 놀이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활동을

1) 행정안전부, 2022 서울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현황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나. 아동 놀이권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4대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는 ‘창의성, 사회성, 놀이계발을 위한 놀이혁신’<sup>1)</sup>이며, 하위목표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집중 지원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혁신적 놀이정책에 대한 지원을 펼칠 만큼 아동의 여가수준 향상 및 관계적 활동은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내 일부 공간을 아동참여를 통한 실내놀이터로 꾸며 놀이 공간 및 시간 확보를 하는 등 아동의 놀이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세에 앞서 공간을 조성한 열면놀이터는 현재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른 놀이혁신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운영위원의 주체적인 참여로 설치한 열면놀이터는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신뢰되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놀권리 보호 및 성장 발달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 다. 학령 후기 아동을 위한 놀이시간 확보



2022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으로 2013년과 비교해 2018년 ‘학원/과외’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40.6%에서 47.3%로 증가한 한편 집에서 숙제, 친구, 방과후학교, 돌봄기관, 신체활동이나 운동은 감소했다.<sup>2)</sup> 방과후 높은 비율의 아동·청소년이 사교육에 시간을 할애하며 놀이시간이 부족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아

1) 2019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  
 2) 통계청, 20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동의 놀이는 출생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언어·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지 영역에서의 발달이나 언어발달에만 치중하여 아동의 성장이 조화롭게 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과 학습시간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와 여가활동 시간은 매우 부족해졌다.<sup>1)</sup>

<2022년 열면놀이터 ‘그래!놀아동아리’ 평가회 결과>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 잡기가 더 어려워졌어요</li> <li>▪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해요</li> </ul>
평가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활동을 이유 삼아 시간을 맞추고 협동심을 배워요</li> <li>▪ 놀이터 활동 덕에 환경면으로 지원받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 좋아요</li> </ul>

2022년 열면놀이터에서 진행한 ‘그래!놀아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평가회를 진행한 결과 자녀의 놀이 및 또래와의 교우관계 형성 시간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놀이시간의 부족은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느끼고 있는 부분이였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관계 형성 기회 마련 및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꾸준한 놀이공간 제공이 필수적이다.

라. 경험적 근거

본 기관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이룹니다.”라는 미션 아래 지역사회 돌봄 강화와 지역밀착형 실천이라는 중·장기 사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그 중 ‘주민 참여 마을돌봄 강화’라는 하위목표를 세워 주민주도 활동, 지역에서의 관계망 형성, 서로 살피는 이웃관계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의 돌봄으로 균등한 성장의 기회가 주어 져야 하는 한부모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장 기간 지속하고 있으며, 중랑구 면목동 아동을 대상으로 주도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놀이지원, 참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의 아동·청소년 관련 진행 사업 현황>

운영 기간	프로그램 명	내용
2011년 ~ 현재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가족애발전'	대상: 한부모 및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녀 내용: 가족관계·의사소통 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캠프, 전문 상담 등
2016년	다문화가정	대상: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4) 김명순, [아동의 놀이할 권리를 위한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2018.5). 259호

~ 현재	자녀들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해바라기'	내용: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또래관계 증진·가족응집력 강화 활동, 가족캠프 등
2020년 ~ 현재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꿈디자이너'	대상: 중랑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11가정(11명) 내용: 아동 개별코칭, 자아탐색, 개별성장계획수립, 부모교육 등
2022년	플레이 코치 (면목4동)	내용: 지역 놀이터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안전한 놀이문화 확산
	오거리방범대 (면목7동)	내용: 아동의 지역축제 참여로 지역 내 연대의 경험 마련
	아동참여활동 (면목3·8동)	내용: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축제 기획
	열면놀이터 운영	내용: 놀이공간개방, 기획소모임 및 놀이축제 운영

2020년부터는 학령후기아동 전용 놀이공간을 구축하여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2020년 아동기획단 구성 및 아동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놀이공간의 조성, 2021년에는 아동운영위원 조직 및 주도적인 참여로 놀이이벤트의 기획 및 홍보활동, 2022년은 놀이동아리 지원을 통한 69명 아동 대상 놀이시간 및 자원의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3년에도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열면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의견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아동 자치 모임을 운영하고,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돌봄 강화를 위해 방과후 및 방학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외부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공간개방, 온/오프라인 홍보, 놀이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한 놀이공간을 알리고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에 힘쓰고자 한다.

## 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 근거	단위수(명)
일반대상	서울시 중랑구 면목 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거주 만 18세 미만 아동	8,167*
위기대상	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거주 만10세 이상 만12세 미만 아동	1,283*
표적대상	위기대상 중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아동 및 부모	385**
실 인원수	표적대상 중 본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동	100

\*중랑구청 2022년12월인구통계기준

\*\*위기 가구 중 30%

###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학령후기 아동이 주도로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신체·정서적 성장을 건강하게 보내도록 도움	■ 놀이 공간 운영	189명/288회	안전하고 즐거운 아동 전용 실내 놀이공간 활성화
	■ 지역사회 연계 공간개방	109명/10회	
	■ 지역사회 홍보활동	5회	
	■ 놀이 프로그램	118명/48회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 또래관계 증진
	■ 방학 배움터	32명/3회	
	■ 자치 소모임 ‘열면친구들’ 운영	17명/25회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감 향상 및 성취경험의 기회 제공
	■ 팝업 놀이이벤트	164명/6회	

### 4.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 가. 세부사업 진행현황

성과 목표	프로그램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안 전 하 고 즐 거 운 아 동 전용 실 내 놀이 공간 활 성화	놀이 공간 운영	<b>■ 놀이공간 운영(상시)</b> - 대상: 아동 또는 지역주민 - 방법: 놀이공간 상시 운영 - 내용: 신체놀이, E스포츠클, 노래방 등	1월~12월	강예정 대리, 자원봉사자, 공공복지서포터즈 3명	189명	288회
		<b>■ 지역사회 연계 공간개방</b> - 대상: 유관기관, 주민모임 - 방법: 단체신청 접수 - 내용: 공간개방 및 대여	2월~12월	강예정 대리	109명	10회
		<b>■ 지역사회 홍보활동</b> - 대상: 지역아동센터 및 중량구 내 유관기관, 인근 초등학교 - 방법: 홍보지, 현수막게시, 방문 안내 등 - 내용: 사업설명회,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홍보물 배포, 중량구 지역아동센터 대상 홍보	3월, 5월, 8월, 11월	강예정 대리	-	5회
다 양 한 놀 이 활 동 을 통 한 스트 레스 해 소 및	놀이 공간 활성화	<b>■ 놀이 프로그램</b> - 대상: 평일 열면놀이터 이용아동 - 방법: 놀이멘토 주도, 운영 및 기획 - 내용: 미술, 조립, 만들기 키트, 요리, 영화상영, 두뇌발달 등	3월~11월/주3회	강예정 대리, 놀이멘토	118명	48회

공정적 또래 관 계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 배움터(하계방학)</li> <li>- 대상: 하계방학 주 1회 참여 가능아동</li> <li>- 방법: 해당 분야 전문강사 섭외</li> <li>- 내용: 예체능, 놀이방법 등 특기교육 3개 배움터</li> </ul>	7월~8월/ 주1회	강예정 대리, 강사 3명	32명	3회
참여 활동으로 자신감 향상 및 성취 경험 기회 제공	아동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 소모임 '열면친구들' 운영</li> <li>- 대상: 초등4~6학년 아동 상·하반기 8명</li> <li>- 방법: 주도참여 희망 아동 선발</li> <li>- 내용: 놀이터 홍보 및 건의, 이벤트 기획 등</li> </ul>	2월~6월, 8월~12월	강예정 대리	17명	2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팝업 놀이이벤트</li> <li>- 대상: 놀이공간 참여 아동</li> <li>- 방법: 참여아동 의견 수렴</li> <li>- 내용: 놀이활동(소모임 논의로 주제결정)</li> </ul>	3월, 5월, 10월, 11월	강예정 대리, 자원봉사자	164명	6회

#### 나. 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시기
안전하고 즐거운 아동 전용 실내 놀이 공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이용인원 작년대비 30% 증가</li> <li>- 신규단체 공간개방 10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 이용 실적</li> <li>- 단체 접수건</li> </ul>	12월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인 또래 관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유의미한 스트레스 해소 경험</li> <li>- 주 이용 아동 대상 만족도조사 평균 4점 이상 만족도(5점척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li> <li>- 운영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정성 평가</li> <li>- 만족도 자체 평가</li> </ul>	11월
참여활동으로 자신감 향상 및 성취 경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 소모임 대상 자신감척도 평균 5점 만점에 0.5점 상승</li> <li>- 놀이이벤트 만족도 80%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li> <li>- 진행일지</li> <li>- 이용 아동 만족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정성 평가</li> <li>- 만족도 자체 평가</li> </ul>	6월 11월

## 다. 사업 일정

내용/기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놀이 공간 운영(상시)												
지역사회 연계(공간개방)												
지역사회 홍보활동												
놀이 프로그램												
방학 배움터												
자치 소모임 '열면친구들'												
팝업 놀이이벤트												

## 5. 프로그램 평가

### 가.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안전하고 즐거운 아동 전용 실내 놀이공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이용인원 작년 대비 30% 증가</li> <li>- 신규단체 공간개방 10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열면놀이터 이용 아동은 1,740명이었으며, 올해는 2,738명 이용하여 작년대비 150% 이상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음.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및 토요일에 상시 개방하였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방문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었음. 노인사회활동 어르신들이 주 4회 이상 청소를 진행하고, 아동 손 씻기 및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하여 방역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음. 4월부터 공공복지서포터즈의 상시 근무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음.</li> <li>- 팝업놀이이벤트, 방학배움터, EXID헤린과 함께하는 쿠키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놀이공간 홍보가 되어 신규이용자가 생기고, 이용자 활성화의 도움이 되었음.</li> <li>- 토요일 오전에는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저학년 부모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내년도에는 저학년을 위한 팝업놀이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함.</li> <li>- 신규 단체 방문도 10회 이상 109명의 아동이 방문하여 목표달성하였음. 월초 아파트,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놀이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및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협의회 등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복지관 단체방문으로 이어졌음. 또한 11월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꿈축제에 부스운영을 하면서 체험부스에 참여한</li> </ul>

		<p>학부모들에게 놀이터 공간을 홍보하였음. 단체 예약으로 개별적인 모임 2회, 청소년 센터 2회, 복지관 1회, 인근 초등학교 4회 신청하였음. 참여한 단체들은 저학년·고학년 모두 넓은 공간과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음. “아이들이 여기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놀 거리가 많아서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곳은 날씨에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무료로 생일 파티도 즐기고 놀이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었음. 유관기관의 담당자의 변경으로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다수 학부모들이 단체 대관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간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겠음.</p>																		
<p>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 및 긍정적 또래 관계 증진</p>	<p>- 놀이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유의미한 스트레스 해소 경험 - 주 이용 아동 대상 만족도조사 평균 4점 이상 만족도(5점척도)</p>	<p>- 학기 중에는 미니 북 만들기, 야광팔찌 만들기, 썬캐처 만들기, 영화 관람 등 놀이 프로그램을 월, 금, 토에 실시하였음. 월요일에는 아동 방문이 적어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토요일에 방문한 저학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음. 고학년들은 활동에 크게 흥미를 두지 않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선호도가 높았음. 따라서 기존 만들기 활동과 더불어 보드게임 활동을 추가 진행하였으며, 봉사자의 재량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활동을 진행하여 놀이활동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음. 하반기에는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보드게임을 구비하고, E-스포츠 방에서 닌텐도와 오락기를 진행할 경우 보드게임을 동시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캠핑카 2층을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였음. 참여한 아이들은 “재미있었다”, “새로운 보드게임을 배웠다” 등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음. 봉사자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여부에 따라 아동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음.</p> <p>- 하계방학 때 K-pop댄스, 고학년 보드게임, 저학년 보드게임, 놀이활동으로 4개의 방학 배움터를 진행하여 총 32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음. 4회기씩 진행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5점 만점 중 K-pop댄스는 4.83점, 보드게임 5점, 저학년 보드게임 4.75점, 놀이활동 4.85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p> <p>방학배움터 저학년 보드게임 활동은 어땠나요? 응답 47</p> <table border="1"> <thead> <tr> <th>만족도</th> <th>응답 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d>0%</td> </tr> <tr> <td>2</td> <td>0</td> <td>0%</td> </tr> <tr> <td>3</td> <td>0</td> <td>0%</td> </tr> <tr> <td>4</td> <td>1</td> <td>2%</td> </tr> <tr> <td>5</td> <td>3</td> <td>75%</td> </tr> </tbody> </table> <p>&lt;보드게임 저학년 만족도 조사&gt;</p>	만족도	응답 수	비율	1	0	0%	2	0	0%	3	0	0%	4	1	2%	5	3	75%
만족도	응답 수	비율																		
1	0	0%																		
2	0	0%																		
3	0	0%																		
4	1	2%																		
5	3	75%																		

		<p>방학배움터 고학년 보드게임 활동은 어땠나요? 응답 7개</p> <p>&lt;보드게임 고학년 만족도 조사&gt;</p> <p>방학배움터 놀이활동 활동은 어땠나요? 응답 7개</p> <p>&lt;놀이활동 만족도 조사&gt;</p> <p>방학배움터 K-pop 댄스 활동은 어땠나요? 응답 6개</p> <p>&lt;k-POP댄스 만족도 조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배우고 노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함께 참여한 친구들이 배움터를 매개로 서로 인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놀이 활동을 알려주는 등 또래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되었음.</li> <li>- EXID헤린과 함께하는 원데이 쿠킹클래스를 진행하였음. 요리도 만들고, 연예인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과 진로, 개인고민도 나누는 토크콘서트, 놀이활동을 진행하여 참여 아동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이벤트성으로 1회성 행사였지만 열면놀이터를 홍보하고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이었음.</li> </ul>
<p>참여활동으로 자신감 향상 및 성취 경험 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 소모임 대상 자존감척도 평균 5점 만점에 0.5점 상승</li> <li>- 놀이이벤트 만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면친구들’ 자치소모임에 참여한 아동은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는 7명을 모집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4명만 활동함. 아동들은 모임에 주체가 되어 팝업놀이이벤트를 계획, 준비, 홍보, 진행,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과정이 서툴더라도 경험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함.</li> </ul>

도 8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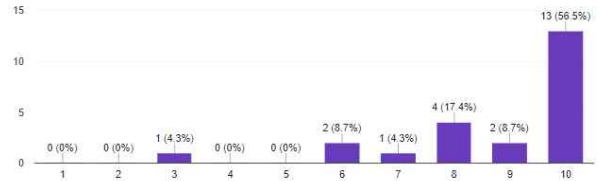
- 총 10명의 아동에게 사전-사후로 자존감 척도검사를 진행하였음. 상반기 6명 중 3명 하반기 4명 중 2명이 0.5점 이상 상승하였음. 가정 및 학교생활 등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소모임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양적 결과는 다소 확인이 어려웠음. 하지만 평가회 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소모임 참여의 의미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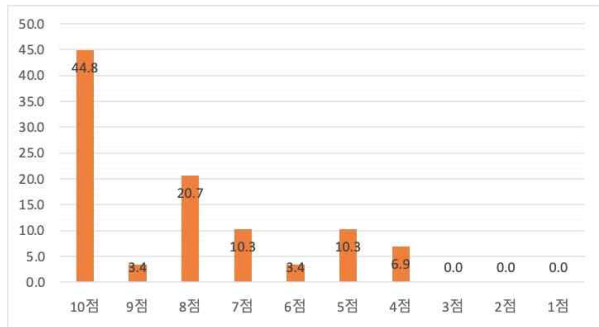
- 소모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잘 주장할 수 있다고 모두 응답하였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의견을 모으는 활동이니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열면친구들 활동하면서 어떨 때 자신감이 생겼는지 물어보았을 때 ‘내 의견이 뽐혔을 때’, ‘내가 진행할 때’, ‘친구들이 날 바라봐 줄 때’ 라고 응답하였음. 열면친구들 활동을 통해서 어떤점을 배웠는지 물어보았을 때 ‘행사를 진행하는 법을 배웠다.’,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다’, ‘사회성이 더 좋아졌다’, ‘진로(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라고 응답하였음.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주체성이 드러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 다른 친구들과의 협력 등 사회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
- 10월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꿈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열면친구들’ 이름으로 신청하였음. 부스 1개를 배정받아 환경을 주제로 커피박 키링 만들기 체험과 재활용 타구공 오목 놀이활동을 진행하였음. 한 참여아동은 “열심히 부스운영

을 해서 성취감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응대하고 부스를 운영한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 3월, 5월, 10월은 토요일에 팝업놀이이벤트를 진행하고, 11월에는 평일 팝업놀이이벤트를 진행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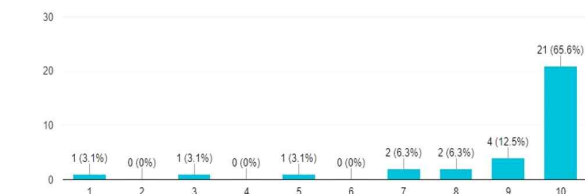
<3월 팝업놀이이벤트 만족도 결과> 86.9% 만족한다 응답.



<5월 팝업놀이이벤트 만족도 결과>79.2% 만족한다 응답.

오늘 이벤트는 어땠나요? 점수를 매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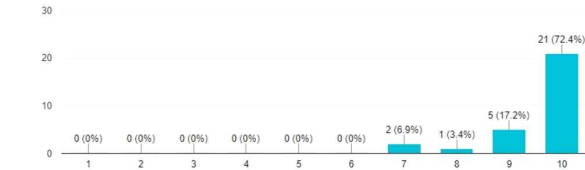
응답 32개



<10월 팝업놀이이벤트 만족도 결과> 90.7%만족한다 응답.

오늘 이벤트는 어땠나요? 점수를 매겨주세요.

응답 29개



<11월 팝업놀이이벤트 만족도 결과>99.9% 만족한다 응답.

- 놀이이벤트 만족도 결과에서 만족한다에 응답한 아동을 살펴보면 3월-86.9%, 5월-79.2%, 10월-90.7%, 11월

		<p>-99.9%로 5월을 제외하고 80%이상 만족한다는 응답을 확인하여 목표달성하였음.</p> <p>- 토요일 팝업놀이이벤트는 30명 이상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열면놀이터의 인기있는 행사로 자리잡혔음. 대다수 아이들이 이벤트에 '재미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면 이러한 놀이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원했음. 주말에 진행한 활동을 평일에도 진행하였으며 1개의 이벤트만 진행되다 보니 이벤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재미있다, 만족한다 등 반응에 아동 소모임 아동들이 부뒸해 하였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벤트는 내년에도 지속하고자 함.</p>
--	--	---

#### 나. 자원동원 평가

자원구분		내용(횟수)	평가결과
홍보	이용자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기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록 이용자 문자발송 등)</li> <li>- 오프라인(주민 만남, 주민소개,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li> <li>- 중랑복지센터, 중랑복지랑 홍보물 게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면놀이터를 기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록 이용자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열면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벤트를 홍보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놀이터를 알고, 이용하는 아동이 많아졌음.</li> <li>- 10월 청소년 축제에 많은 아동 및 청소년이 방문하여 부스에 참여한 아동 및 학부모에게 열면놀이터 공간을 홍보하였음.</li> <li>- 아동청소년 분과회이나 면목25동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협의회의 놀이터공간을 홍보하고 단체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함. 학교 모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센터, 복지관 등 10회 이상, 109명 방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li> <li>- 온라인/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홍보하여 열면놀이터 이용자율이 작년대비 증가하였음. 새학기가 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지고, 유관기관의 담당자 변경 때문에 재차 홍보가 필요해 보임. 놀이공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li> <li>- 중랑복지센터, 중랑마을넷 프로그램 홍보문 게시</li> <li>- 중곡초등학교, 면남초등학교 공간개방 및 연계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 아동 부모 협조</li> <li>- 놀이이벤트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진행 후에 홈페이지 5건, 소식지 1건 활동내용을 게재하고 지역사회에 공유하였음.</li> <li>- 프로그램 모집 시 게시판 활용, 마을넷 단독방, 중랑맘 카페 등을 활용하고, 기존참여자 문자 발송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를 수월하게 모집할 수 있었음.</li> <li>- 중곡초에 2회 공간개방하였으며 저학년 참여자들이 공간에서 노는 것에 만족도가 높아 한번 더 방문하게 되었음. 따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음. 신규 단체방문 중에 면목 2·5동에서 먼저 아동자치소모임과 함께 활동을 같이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었으며 내</li> </ul>

			<p>년에는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제안해봐도 좋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자치소모임 참여아동과 인근 놀이터를 방문하여 아동이 직접 이벤트를 홍보하고 참여아동을 모집하였음. 샘터공원, 오거리 공원을 주로 홍보하고, 남촌공원과 까치공원 등 총 3회 이상 홍보하였음. 또래가 홍보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음.</li> </ul>
전문인력	강사, 자원봉사자	- 주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대학교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자가 요일별로 1~2명씩 배정되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 안전관리, 아동 놀이활동, 놀이 공간 청소 및 소독, 이벤트 행사 보조 등을 맡아 원활히 진행되었음. 아동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는 아동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모습도 확인함. 내년에도 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함.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는 4회이상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의 오리엔테이션과 매뉴얼 대로 설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음.</li> <li>- 보드게임 '행복한 바오밥'과 '놀이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강사를 모집할 수 있었음. K-pop댄스는 유관기관의 소개로 프리랜서 강사를 모집하여 방학배움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음.</li> <li>- 열면놀이터 아동자치소모임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진행하였으나 혼자서 진행하기에 아이들의 충분한 의견조율 및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할 수 있는 봉사자가 있으면 좋겠음. 아동이 기획한 이벤트에도 함께 진행한다면 이벤트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되리라 사료됨.</li> </ul>
	기타 서비스	- 동별 주민, 단체의 이벤트 물품 지원 등	- 주민, 단체 이벤트 물품 지원은 없었음.
자원연계	서울시50+재단	- 보람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2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람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을 3명 연계 되어 안정적으로 열면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었음. 고정 근무 요일을 정하고, 나머지 요일은 돌아가면서 근무하여 토요일 근무가 1~2회 가능하였고. 전담인력이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었음. 열면놀이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에도 신청할 예정임. 전담인력 중 한 분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고, 방문하는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함께 활동을 하기로 하였음..</li> </ul>

## 6. 보완점 및 발전방향

구분	내용
진행일정	- 운영시간을 14:30~19:30으로 연중 운영하며, 여름방학때는 미리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1시간 일찍 연장해서 운영하고, 해가 짧아지는 겨울방학 때는 13:30~18:30로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방학에

	<p>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면친구들 소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있음. 참여를 원하는 아동들은 있으나 방과후 수업 및 학원 일정으로 시간 조율이 어렵고 불참하는 횟수가 늘어남.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가 필요하고, 아동과 요일 및 시간 조율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조율이 필요해 보임.</li> </ul>
<p>프로그램 내용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 열면놀이터의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기 전 상반기에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학교 및 유관기관에 열면놀이터 공간안내 및 단체신청 홍보로 공문발송하고, 온라인에서도 해시태그활용, 게시물 업로드 등 열면놀이터가 지역의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잘 인식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li> <li>- 아동소모임 자치모임으로 ‘열면친구들’ 소모임을 진행하였음. 아이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직접 팝업놀이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음. 이벤트를 통해 신규아동 확보에 용이하고, 놀이터의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팝업놀이이벤트를 상반기에 진행하고자 함. 또한 올해 새롭게 시도한 평일놀이이벤트는 만족도가 좋았으며 내년에는 참여아동이 진행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자 또는 보람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진행해도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사료됨. 소모임의 기획 활동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며, 열면놀이터 운영사항과 고민사항을 아이들과 논의하는 모임으로도 활용해도 좋겠음.</li> <li>- 방학 배움터는 놀이터 방문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다양한 배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어 내년에도 지속하고자 함.</li> <li>- 기존 놀이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활동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됨. 요일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 목, 금으로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해 보면 좋겠음.</li> </ul>
<p>기관 미션·비전·전략 (마을지향)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자치소모임은 아동이 주도하는 모임, 이벤트를 만들어가도록 진행하고 있음.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고, 듣고, 의논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의견 조율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모임이 되었음. 함께 이벤트를 준비해서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주도성, 주체성이 돋보였으며,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용되는 경험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임.</li> <li>- 이벤트, 놀이활동, 방학배움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모르는 아동 간의 관계형성을 시도하였음. 1회성 모임보다 배움터와 같이 4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 간에 관계 형성이 더 좋았음. 놀이라는 매개로 다양한 아이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아이들에게 열면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친구들과 관계맺고 놀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데 돕고자 함.</li> </ul>
<p>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면놀이터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정해진 운영시간에 상시 개방하고, 단체예약을 통해 아동, 학부모,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공간, 언제든지 오고 활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올해도 자원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아동의 주체성과 관계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함. 학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열면놀이터에 이용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li> </ul>

■ 활동사진 자료



아동자치소모임 '열면친구들' 오리엔테이션



아동자치소모임 '열면친구들' (회의)



아동자치소모임 '열면친구들' (홍보)



4월 팝업놀이이벤트



10월 팝업놀이이벤트



11월 팝업놀이이벤트

■ 활동사진 자료



팝업놀이이벤트(평가회)



올래 방학배움터(K-pop댄스)



올래 방학배움터(보드게임)



헤린과 함께하는 원데이 쿠키클래스



놀이쟁이 프로그램



중랑 청소년 꿈축제 부스운영